

“ 필리핀은 롤라 로사 마리아 핸슨이 1992년 최초로 증언한 후

174명의 필리핀 '위안부' 피해자들이 공식적으로 증언했다. 2022년 현재 11명만이 생존해있고 모두 90대 이상의 고령이다. 우리에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코로나의 긴 암흑을 지내온 생존자들이 말하는 롤라의 꿈은 무엇인가?

* 롤라는 필리핀 타갈로그어로 '할머니'를 의미합니다. 한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지칭할 때 할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처럼, 필리핀도 피해자를 지칭할 때 롤라를 사용합니다.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생존자와 가족, 활동가의 생생한 목소리

The vivid voices of survivors, families, and activists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the Philippines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생존자
구술기록집 **롤라의 꿈**

LOLA’S DREAM, an oral history record by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the Philippines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생존자와 가족, 활동가의 생생한 목소리
／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생존자 구술기록집 **롤라의 꿈**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생존자와 가족, 활동가의 생생한 목소리

The vivid voices of survivors, families, and activists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the Philippines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생존자
구술기록집 **롤라의 꿈**

LOLA’S DREAM, an oral history record by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the Philippines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생존자와 가족, 활동가의 생생한 목소리

The vivid voices of survivors, families, and activists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the Philippines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생존자 구술기록집 **롤라의 꿈**

발행일 | 2022년 11월 20일

발행처 | (사)캠프 / [WEB](http://www.icamp.asia) icamp.asia / [E-MAIL](mailto:campint@icamp.asia) campint@icamp.asia

디자인 | 김옥자

- * 이 책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 문제연구소 2022년 민간단체 교류협력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 이 책의 모든 저작권과 소유권은 사단법인 캠프에 있습니다.
- * 본문에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글꼴과 G마켓에서 제작한 서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생존자 구술기록집 『롤라의 꿈』은 우리의 꿈!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것은 2년 전이었다. 2020년 상반기 한국사회를 달구었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논쟁은 한국사회에 대해 다시 묻는 시간이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진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눈을 해외로 돌리자! 우리 안에 틀어박혀 고민하지 말고 시야를 넓게 보고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도 관심을 가지자. 다른 나라들과 상호공유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

그것이 『롤라의 꿈』 프로젝트였다.

국제개발협력 NGO인 사단법인 캠프는 평화와개발센터를 통해 평화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주 사업국이 필리핀이니 한국과 필리핀의 공유지점인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루는데 가장 적합하였다.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한국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생존자의 구술이야말로 우선순위가 되었다.

구술기록이라는 영역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한국인도 아니고, 필리핀 대상자에게 구술을 받고 정리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진행해보니 여간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구술기록집은 불가능했다.

먼저 현지 지원단체인 릴라 필리피나의 전폭적인 지원, 특히 코디네이터인 샤론 선생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애당초 프로젝트가 성사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유가족단체인 파마나PAMANA의 멤버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전문가로서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활동해온 강정숙 선생님, 윤명숙 선생님, 한혜인 선생님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연구처럼 챙겨줘서 이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지 않고 제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더욱 감사한 것은 2022년 민간단체 교류협력사업으

로 동력을 만들어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정유진 소장님이다.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필리핀 캠프 아시아와 캠프 한국본부 스텝진(조부영 필리핀지부장, 심미영 팀장, 이혜미 선임 간사, 이유정 인턴, 박성연 봉사단원)이 한 팀으로 움직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챙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따갈로그어와 영어 그리고 한국어로 이어지는 지난한 통번역 과정만큼이나 앞으로 이 문제해결을 위해 가야 할 길이 지난하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었다. 생존자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롤라들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길 바랄 뿐이다.

2022.11.17.

프로젝트 책임자 양미강 (사단법인 캠프 이사)

목차

PART 1

서론

1. 구술채록 배경과 구성 _ 8

PART 2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이해

1. 한국과 필리핀 관계 _ 12
2. 필리핀의 일본점령기와 전쟁 피해 _ 13
3. 필리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규모 및 분포도 _ 16
4. 피해자 지원단체 현황 _ 19
5.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둘러싼 쟁점 _ 21
6. 한국-필리핀 시민사회 연대 _ 25

PART 3

구술채록의 진행 과정

1. 사전준비 _ 28
 - 1) 역할분담 _ 28
 - 2) 구술대상자 선정 원칙 _ 28
 - 3) 구술 질문 구성 _ 28

- 4) 자문위원회 구성 _ 29
- 5) 구술대상자 1차 선정과 구술채록 원칙정리 _ 29

2. 구술채록 진행 _ 30

- 1) 구술 환경 정리 _ 30
- 2) 1차 현지 출장과 구술채록 _ 30
- 3) 1차 구술채록 정리 및 번역 _ 31
- 4) 구술대상자 2차 정리 _ 31
- 5) 2차 현지 출장과 구술채록 _ 31

3. 구술채록 정리 _ 33

- 1) 구술채록 번역 _ 33
- 2) 구술집 목차 구성 및 원고작업 _ 33

PART 4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생존자, 가족, 활동가 증언

1. 롤라 에스텔리타 바스마노 디(Estelita Basbano Dy) _ 37
 - 1) 롤라 에스텔리타의 초상 _ 37
 - 2) 생존자 구술 요약 _ 42
 - 3) 생존자 구술 전문 _ 43
 - 4) [가족] 딸 리사 디 아틸로 구술 전문 _ 56
 - 5) [활동가] 샤론 카부사오 구술 전문 _ 62

- 6) 생존자 기존증언 _ 66
- 2. 롤라 힐라리아 부스타만테(Hilaria Bustamante) _ 68
 - 1) 롤라 힐라리아의 초상 _ 68
 - 2) 생존자 구술 요약 _ 71
 - 3) [가족] 딸 테레시타 마라시안, 손녀 카렌 그레이스 마라시안 구술 전문 _ 72
 - 4) 생존자 기존증언 _ 81
- 3. 롤라 나르시사 클라베리아(Narcisa Claveria) _ 83
 - 1) 롤라 나르시사의 초상 _ 83
 - 2) 생존자 구술 요약 _ 87
 - 3) 생존자 구술 전문 _ 88
 - 4) [가족] 딸 조세핀 칸시노 구술 전문 _ 98
 - 5) 생존자 기존증언 _ 102
- 4. 롤라 에스텔라 아드리아티코(Estella Adriatico) _ 105
 - 1) 롤라 에스텔라의 초상 _ 105
 - 2) 생존자 구술 요약 _ 108
 - 3) 생존자와 [가족] 딸 얼린다 다리야, 손녀 마릴린 구술 전문 _ 109
 - 4) 생존자 기존증언 _ 122
- 5. 활동가 루시아 프란시스코 (Lucia Francisco) _ 124
 - 1) 활동가 루시아의 초상 _ 124
 - 2) 활동가 구술 요약 _ 127
 - 3) 활동가 구술 전문 _ 128

PART 5

구술채록 후기와 남겨진 과제

- 1. 구술채록 후기 _ 150
- 2. 남겨진 과제 _ 151

The vivid voices of survivors, families, and activists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the Philippines

1부 서론

1. 구술채록의 배경과 구성

1) 배경

- **한국과 필리핀 양국 공통의 역사적 경험** _ 한국과 필리핀 양국 모두 일본 제국주의하에서의 피해를 경험하였다. 또한,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양국 모두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 경험을 공유하며 역사 정의를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양국에서 본격 대두된 1990년대로부터 30년이 흘러 현재에 이르렀으나 피해자들과 운동단체에서 제기된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와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 **국제사회의 주요이슈로 부각** _ 시민운동이 본격화된 후 이 문제는 전쟁 시 일어난 여성 성폭력의 주요한 의제로 대두되어 국제사회의 이슈로 이어졌다. 그 결과 유엔인권위원회 차원의 특별보고관이 임명되어 1995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1999년 게이맥두걸 보고서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권고안을 내놓았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전시 중 여성 성폭력을 둘러싸고 있으며 2000년 이후 더 확장되어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여성평화안보(WPS) 1325 결의안이 수립되었다. 그 후 2021년 8월 기준, 97개국이 국가 행동계획을 실천하고 있는데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한 국가이다. 그만큼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전시 성폭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으며, 국제사회는 전시 성폭력이 안보와 평화를 위협한다고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 **30여 년간 활동해온 필리핀 지원단체들** _ 필리핀의 여성시민단체 ‘릴라 필리피나(1994)’, ‘말라야 롤라스(1995)’, ‘롤라스 캄파니에라(2000)’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증언수집 활동, 진상규명 및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활동을 해왔다. 또한, 한국과 함께 ‘아시아연대회의’에 지속해 참여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총 9개의 아시아 피해국과 일본시민단체들이 함께 한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법정’의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해왔다.
- **필리핀 정부의 무관심** _ 필리핀 정부는 1956년 일본과 체결한 손해배상 협정을 통해 과거사는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설치한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항의가 잇따르자 철거 및 도난을 방기하고 있으며 사회적 분위기도 무관심한 상황이다.
- **생존자들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지망 약화** _ 시간이 흘러 양국의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의

연령은 90대를 넘어선 초고령화를 맞이하고 있다. 생존자 없는 포스트 피해자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 174명의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공식적으로 증언했지만, 현재는 11명의 생존자만 남았다.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수입원이 끊겨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정서적인 지지망도 약화하고 있다. 생존자의 초고령화와 함께 지원단체 활동가들도 평균 50대 이상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역사 기억과 기록 자료 보존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과제로 있다.

2) 목적

- **과거와 현재로 이어지는 삶을 기록** _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자료수집과 구술채록을 통해, 필리핀에서 일어난 일본군‘위안부’ 피해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삶을 정리하고자 한다. 더불어 그 결과를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구술기록집으로 제작하여 한국과 필리핀의 청소년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아시아지역의 전시 성폭력 문제를 알리고 교육하고자 한다.
- **한국 최초로 필리핀 생존자 구술채록** _ 이 사업의 목적은 첫째, 필리핀 생존자의 증언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필리핀 사례를 소개하고, 둘째, 필리핀 사례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시 성폭력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셋째, 초고령자인 생존자 구술을 통해 역사 기록 보존 작업에 기여하고, 넷째, 역사교육이 부실한 필리핀 상황에서 미래세대의 역사 인식을 심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접근방식

- **생존자 중심의 접근방식** _ 구술기록집은 한국과 필리핀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적 경험인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기반으로 지난 30년 동안 양국에서 이루어진 운동을 성찰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의 경우 전쟁범죄에 대한 국가책임 추궁이라는 틀 속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일간의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었다. 피해자 중심 원칙을 내세우긴 했으나, 정작 당사자는 해결 과정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정치진영에 따라 편의적으로 고려하는 대상이 되었다. 우리는 피해자(생존자)의 삶 자체에 주목하면서 이분들이 생존하는 동안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19 위기 상황 속에서 생존자들이 처한 환경을 바꾸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우리의 관점을 정치적 접근에서 당사자인 생존자 중심으로 바꾸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생애사적인 접근방식** _ 구술기록집은 현재 증언이 가능한 생존자, 가족(2세대, 3세대 가족), 활동

가의 구술을 통해 생존자의 삶을 포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기존 기록집들은 피해 당시 당사자의 증언에 집중되었다면, 이번 기록집은 생존자들의 현재 삶, 특히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느끼는 일상을 포함하며 생존자와 함께 살면서 그들을 돌보고 있는 딸의 구술, 더 나아가 동시대에 함께 활동해온 활동가의 구술을 통해 생존자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구술을 채록한다는 의미가 있다.

- **평화 ODA 차원의 접근방식** 기존 시민사회의 연대방식은 국제회의를 통한 상호교류 차원이거나 일시적 모금을 통한 구호적 성격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ODA 분야에서 부각 되는 평화, 젠더 ODA는 우리의 시야를 해외로 확대하게 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인 여성평화안보 Women, Peace, Security에 연계되어 이 문제를 국제적 기준에서 바라볼 수 있다. 평화ODA의 기본구조는 HDP Nexus와 연계되는데, 인도주의적 접근(H)-개발적 접근(D)-평화적 접근(P)이라는 측면에서,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의 구술기록은 생존자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과 아울러 구술채록을 통해 장기적으로 평화적 토대를 만든다고 볼 수 있다. 한국 ODA 영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통한 평화ODA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4) 구성

- 구술기록집은 총 5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서론으로 프로젝트를 하게 된 배경과 목적, 접근방식과 구성을 정리하였다. 2부는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간략하게 담았다.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 필리핀의 일본군 점령 시기의 역사, 필리핀의 역사교육 현황, 일본군‘위안부’ 피해 규모, 생존자 현황, 지원단체 현황, 필리핀 내의 쟁점, 한국과 필리핀의 시민연대 사례 등을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구성했다. 3부는 구술채록의 전 진행 과정을 사전과 사후에 이르기까지 소상하게 담았다. 4부는 4명의 생존자와 4명의 가족, 2명의 활동가 총 10명의 구술채록을 정리했다. 5부는 구술채록 후의 소회와 남은 과제를 담았다.
- 구술기록집의 중심은 4부에 있으며, 대상자별로 ‘롤라의 초상’, 구술 요약, 구술채록 전문, 가족 혹은 활동가 구술, 기존증언, 사진 순으로 정리하였다. ‘롤라의 초상’은 이번 구술기록의 책임자(양미강 사단법인 캠프 이사)가 구술과정에 참여하면서 롤라에 대해 느낀 소감을 현재의 시점에서 정리하면서 현재성을 가미하였다. 구술 요약은 독자를 위해 간단하게 구술내용을 정리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구술채록 전문은 구술의 생명력을 위해 구술채록 전문을 한글번역본으로 제공하였다. 기존증언은 생존자가 1990년대 초기 증언한 내용으로 출판되었거나 릴라 필리피나가 제공한 것을 그대로 실었다. 사진은 구술채록 과정에서 생존자와 가족, 활동가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The vivid voices of survivors, families, and activists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the Philippines

2부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이해**

1. 한국과 필리핀 관계

1) 필리핀 국가 개요

- **400여 년간 식민지배 경험** _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 속한 국가로서 총면적 300,179km²의 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구는 2021년 기준 약 110,200,000명으로 세계 12위이며, 약 100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다. 역사적으로 약 400여 년간의 스페인, 미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식민지배를 경험하였고, 독립 후 공화제를 채택한 필리핀은 한때 아시아권에서 빠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장기간의 독재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지배층의 부정부패로 경제발전이 뒤쳐지게 되어 지금 개발도상국의 상태가 되었다.
- **부의 편중으로 소득 불평등** _ 최근 필리핀 경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6%에서 7%의 높은 GDP 성장률을 보여왔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아 2020년에는 -9.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부의 집중이 대부분 부유층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소득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2) 한국-필리핀 관계

- **참전동맹국, 상호협력의 양국 관계** _ 한국과 필리핀은 1949년 정식 수교를 체결한 이후,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유지·발전시켜오고 있다. 특히 한국은 필리핀의 4대 교역국이며, 우리나라 국민의 필리핀 관광·방문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전쟁 시기 필리핀은 참전동맹국이었다. 2016년 6월에 출범한 두테르테 정부는 국가 주도 인프라 사업인 ‘Build, Build, Build(BBB)’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한국은 필리핀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공여 계약 체결을 통해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 필리핀의 일본점령기와 전쟁 피해

1) 일본군 점령 시기

- **일본군의 전략적 요충지 필리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필리핀은 일본과 미국 사이의 영토확장과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필리핀과 조선은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힘의 관계 오랜 국제적 힘의 관계 속에 있었다. 1905년 태프트-카츠라 협정, 1908년 루트-타카하라 협정으로 미국과 일본 사이의 이권을 둘러싼 영역이 정해졌는데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과 만주에 대한 이권을 인정받았다. 당시 일본은 미국에 일본경제에 중요한 원자재와 군수품을 의존하고 있었는데 1941년 미국의 대일 수출금지 등 강화된 경제제재가 있자, 일본은 전쟁을 일으켜 동남아에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 **일본군 점령 시기 필리핀의 격렬한 저항**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은 태평양과 중국해의 미군기지, 12월 8일 진주만, 동시에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다바오시를 폭격했고, 12월 10일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착륙하여 수도 마닐라는 1941년 12월 26일 무방비가 되어 1942년 1월 일본군 정권이 필리핀에 세워졌다.¹⁾ 필리핀인들은 격렬한 게릴라 공세를 통해 일본군 저항운동을 펼쳤고, 일본군은 게릴라를 비롯한 반대파 진압을 위한 잔인한 작전을 펼쳤다. 필리핀의 전후 군사재판소에 제기된 B급, C급 전쟁범죄 381건 중 거의 절반이 지역 민간인 학살 138건, 강간 45건과 관련이 있으며,²⁾ 필리핀 역사상 ‘바탄 죽음의 행진’은 뜨거운 태양 아래 120km 이상을 음식과 물도 없이 7~10일 동안 62,000명의 필리핀인과 11,000명의 미군에게 행군을 강요하여 16,000명의 필리핀인과 1,200명의 미군이 죽은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³⁾

1)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필리핀 검사단,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필리핀 기소장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2000),2.
2) “Digital Museum”, Asian Women’s Fund, www.awf.or.jp
3)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필리핀 검사단,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필리핀 기소장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2000),3.

2) 필리핀 일본군 주둔과 일본군 위안소

- **장기 주둔 기간 중 강간 사건이 많은 필리핀** _ 필리핀은 일본군의 중요한 이동 경로였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의 자원을 일본으로 수송하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요지였다. 1942년에서 1943년 초 일본군은 일찍부터 일본 군부대를 배치하여 비교적 장기간 주둔하였는데 다른 점령지역보다 필리핀에서 강간 사건이 많았다. 일본군 부대가 들어오면서 군 위안소가 만들어졌지만, 말단 부대가 마을에서 여성들을 강간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⁴⁾
- **점령지역에서 여성의 납치, 강간** _ 일본군 점령 기간 중 필리핀 여성들은 강간, 고문, 수족 절단, 몰살 등 일본군에 의한 비참한 경험을 당하였고 광범위하고 계획적인 강간과 학대가 있었다. 위안소는 구도시 건물, 큰 규모의 민가,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건물 병원이나 교회 등을 사용하였고, 일본군은 점령지역에서 많은 여성을 폭력적으로 납치 강간하여 수비대 건물에서 성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했다.⁵⁾
- **필리핀 전역의 위안소 설치** _ 필리핀 정부는 당시 군 기록에서 수집한 정보를 통해 전국에 있는 위안소의 규모를 파악했는데, 마닐라 위안소 17곳, 일로일로 2곳, 부투안, 카가얀, 단살란, 파나이섬, 마스바테섬, 타클로반, 라구나에서 확인되지 않은 수의 위안소가 보고되었다. 마닐라 12개 위안소와 5개 매춘업소가 있으며, 전쟁포로들은 한국인, 필리핀인, 중국인 여성들이 일하는 위안소가 5~6개 있다고 증언했다. 루손 북부지역 바온봉 위안소, 중부 비사야 군 클럽 이름의 위안소, 파나이섬 일로일로에는 2개의 위안소, 1944년 8월까지 브라우엔 위안소 영업, 민다나오섬의 부투안 필리핀 여성 3명이 일하는 위안소, 1943년 2월 카가얀 위안소가 설립되어 총 3개 위안소가 있다고 기록했다. 다바오에 한국인, 대만인, 필리핀인이 끌려와 강제로 일하는 위안소가 있었다고 보고했다.⁶⁾

3) 필리핀 역사교육

-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역사교육 부실** _ 필리핀 정규 교육과정에서 일반적인 역사교육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되며, 고등학교⁷⁾ 1학년 필리핀 역사, 2학년 아시아 역사, 3학년 세계사로 구분하

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간상조사연구위원회 편,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 1997, 180~187

5) “Digital Museum”, Asian Women’s Fund, www.awf.or.jp

6) “Digital Museum”, Asian Women’s Fund, www.awf.or.jp

7) 필리핀은 초등학교 6년, 고등학교 4년+2년으로 학제가 나뉘어 있어, 고등학교 1학년은 한국의 중학교 1학년과 그 시기가 같음.

여 학습한다. 역사 교과서 내 일제 점령기를 다루고 있으나 필리핀과 일본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편향된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세계 2차대전에 발생한 죽음의 행진과 같은 역사적 사실이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과서에서 생략되거나 경시되고 있다.⁸⁾ 이 결과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 안에서도 세대가 지남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약화되고 있다. 릴라 필리피나에 따르면, 3세대는 피해자들에게서 경험을 들은 것이 전부이며, 4세대는 전체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1시간의 위안부 교육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⁹⁾

8) 김민정(2003). 일본점령기에 대한 필리핀의 역사인식: 필리핀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45, 41~70.
Maca, M. & Morris, P. (2013). National identity formation and the portrayal of the Japanese occupation in Filipino textbooks, In P. Morris, E. Vickers & N. Shimazu, *Imaging Japan in Post-war East Asia: Identity politics, schooling and popular culture*(pp. 229~248). Oxon: Routledge.

9) 릴라 필리피나 인터뷰 (2021. 8. 13)

3.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규모 및 분포도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규모와 생존자 현황

- **공식 증언 174명** _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규모에 대해서도 약 1,000여 명의 일본군‘위안부’가 존재했다고 추정하기도 하지만, 지원단체 등의 보고에 따르면, 롤라 로사 마리아 헨슨이 1992년 최초로 증언한 후 174명의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공식적으로 증언했다.¹⁰⁾ 그러나 피해자 분포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2011년 일본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WAM)이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출간한 도록이 비교적 전국적인 형태의 파악이 가능하다.¹¹⁾

〈표1〉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전국 분포도(2011년)

지역	피해자 수
팡가시난	2
바탄	1
마닐라	14
라구나	1
누에바시아	1
팜팡가	8
볼라칸	6
마파니케	90
귀마라스	2
마스바테	2
파나이	15
네그로스	3

10) 174명은 릴라 필리피나 활동가 샤론과 루시아 증언에 따랐고(2022.9.20.), 벨리아 산초 편, 『Justice with Healing』에서는 175명으로 기록하고 있다(138p).

11) 이 자료에는 필리핀 전역 분포된 피해자 수는 169명이다. WAM, 『다시 일어서는 롤라』, 2011

알베이	2
소르소곤	6
사마르	1
레이테	4
세부	5
보홀	3
민다나오	3
총계	169

2) 최근 생존자 현황

- **최초 증언자 롤라 로사 헨슨** 1992년 롤라 로사 헨슨의 첫 증언 이후 필리핀 사회에 침묵을 깨고 증언을 시작한 피해자들은 시민단체와 함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쟁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해왔다. 1990년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 패소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증언을 담은 책을 출판해왔다. 그 후 마닐라 퀘존시티에 롤라 하우스가 만들어져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 친교하고,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롤라 하우스는 피해자들의 사진과 작품을 전시하는 박물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현재 필리핀에는 11명의 생존자** 모두 90세를 넘겨 거동이 불편하고 기억력 감퇴가 일어나는 등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생존자 가족들의 수입이 불안정하여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며, 코로나 19로 인해 외출하지 못하게 된 생존자들은 우울증과 무력감,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가 악화되었다. 지원단체들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피해자 가족과 생존자들에게 쌀과 약품, 기저귀 등 고령의 생존자를 위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현재 생존자는 총 11명으로 마닐라 2명, 안티폴로 2명, 불라칸 1명, 카비테 1명, 로하스 5명 등이다.¹²⁾

〈표2〉 생존자 피해지역과 현 거주지역

	생존자	피해지역	거주지역
1	Estelita Basbano Dy	세부 탈리사이	메트로 마닐라 말라본
2	Estella Adriatico	메트로 마닐라	메트로 마닐라 칼로오칸

12) 릴라 필리피나 인터뷰, (2021. 8)

3	Fedencia 00	팡가시난 다솔	안티폴로
4	Narcisa Claveria	아브라 산후안	안티폴로
5	Lucia 00	불라칸	불라칸 산호세델몬테
6	Hilaria Bustamante	팜팡가	메트로 마닐라 카비테
7	Teresita 00		로하스
8	Felicisima 00		
9	Pacita 00		
10	Natividad 00		
11	Patria 00		

4. 피해자 지원단체 현황

1) 릴라 필리피나(Lila Pilipina)

- **대표적인 필리핀 지원단체** 1992년 7월 13일, 7개의 여성 단체는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TF팀을 설립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정의 실현 캠페인을 이끌었고, 1994년 5월 16일 국회에서 TFFCW 회원들의 협의로 일본군‘위안부’를 위한 릴라 필리피나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마닐라 퀘존시티에 마련된 톨라 하우스에서 피해자들의 작품과 사진을 전시하고 있으며, 로하스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1대 대표 넬리아 산초, 2대 대표 리치 엑스트라마둘라에 이어 현재 3대 샤론 카부사오가 활동하고 있다. 피해자의 기록을 위한 아카이빙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진, 신문기사, 피해자의 자필편지, 미술작품, 카세트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DVD, CD 등 모든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2) 말라야 롤라스(Malaya Lolos)

- **마파니케 집단강간 피해자 지원** 1997년 아시아여성인권센터(ASCENT)의 지원으로 아시아 여성기금에 반대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약 100명의 마파니케 집단강간 피해자들과 함께 설립했다. 아시아여성인권센터는 인다이 사호르가 대표로 활동하며,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 국제법정(이하 2000년 여성법정)의 공동주최국인 한국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 바우넷 재팬 (VAWW-Net Japan)과 함께 필리핀 사무국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팜팡가를 중심으로 1명의 생존자와 일반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로 활동 중이다.

3) 롤라스 캠페니에라(Lolas Kampanyera)

- **로하스 지역 중심 활동단체** 2000년 설립되어 Kumpensasyon Survivors Organization에서 Lolas Kampanyera Para sa Kapayapaan로 알려졌고, 약 135명의 피해자로 구성되었으며, 2개의 지부를 설립했다. 하나는 2000년 1월 파나이섬 카피스 지방 로하스시에 기반을 두었고, 같은 해 11월 팜팡가 아라얏시 30명과 판가시난과 메트로 마닐라의 피해자들로 구성되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생존자 구술채록과 연구를 진행하여 [Justice with Healing]을 출판했다. 이 단체는 로하스 지역을 기반으로 릴라 필리피나의 초대 대표를 지낸 넬리아 산초가 대표를 맡았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2020년 릴라 필리피나와 공식적으로 합병했다.

4) 유가족지원단체(PAMANA)¹³⁾

- PAMANA (Pamilya at mga Anak ng Lolang Nagkakaisa)는 따갈로그어로 상속(Inheritance)이란 의미를 가지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일부 지지자들과 가족으로 구성되어 릴라 필리피나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구성원들은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대신하여 정보를 알리고 시위에 동참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릴라 필리피나와 함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5) 자원봉사단체(Flowers for Lolos)¹⁴⁾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지지하는 단체이며 마닐라 소녀상이 철거될 때 문제 인식을 가진 NGO 활동가와 개인, 언론인들이 모인 자원봉사단체이다. 이들은 릴라 필리피나와 말라야 롤라스 그리고 전쟁 당시 일본군에 맞서 싸운 미군과 필리핀 게릴라 후손인 WACHI, 2차 세계대전 미국인 희생자 후손들로 구성된 MEMORARE Foundation과도 연대 활동을 하고 있다.

13) Reuters, “WW II ‘comfort women’ push fight for justice, compensation.”, CNN, 2015년 8월 14일. <https://www.cnnphilippines.com/news/2015/08/14/WW-II-comfort-women-push-fight-for-justice-compensation.html>

14) Dennis Gorecho, “Comfort Women and the police force’s insensitive red-tagging”, CDN, 2020년 3월 10일. <https://cebudailynews.inquirer.net/293058/comfort-women>

5.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둘러싼 쟁점

1) 필리핀 정부 입장

- **일본과 배상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되었다는 필리핀 정부 입장** _ 필리핀 정부는 1956년 일본과 체결한 손해배상협정을 통해 과거사는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일본으로부터 2018에서 2019년 평균 7억 8,140불에 달하는 대규모 ODA 자금을 받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더는 언급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 역시 없다. 필리핀 정부는 일본의 아시아 여성기금이 필리핀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자,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DSWD)를 중심으로 1997년부터 2002년도까지 피해자 보상을 위한 국가 조사 프로젝트인 Assistance to Lolas in Crisis Situation 프로젝트(ALCS)를 진행하였고, 그에 기반하여 아시아 여성기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국가 차원의 조사는 더 진행되지 않았다.

2) 필리핀 소녀상 건립과 도난

- **계속된 건립과 도난, 사회적 무관심** _ 필리핀 내 일본군‘위안부’ 소녀상이 마닐라, 보라카이, 라구나에 세 군데에 각자 다른 형상으로 건립되었으나 일본 정부의 항의로 인한 철거, 도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난사건이 필리핀 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 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필리핀 사회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가) 마닐라 소녀상¹⁵⁾

- 2017년 12월 8일에 마닐라 베이에 세워진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소녀상은 필리핀 국립역사 위원회(NHCP)와 기타 기부 및 재단을 통해 건립되었다. 그러나 이후 일본 정부의 항의로 인해 정부 기관의 비판을 받았고, 조각상은 2018년 4월 28일 철거되어 시민사회의 반발이 있었다. 이후 소녀상을 보관하기 위해 Jonas Roces 예술가가 Antipolo와 Rizal 사유지로 옮겼고 2019년 8월 25일 재건립 예정이었으나 예술가 스튜디오에서 도난당해 무산되었다.



〈사진1〉 필리핀 마닐라에 설치되었던 소녀상 (Hideki Yoshimura, Sankei Shimbun 2017)

나) 보라카이 소녀상¹⁶⁾

- 2018년 7월에 완성되고 2019년 보라카이로 향하는 여객선을 타는 곳 근처 바랑가이 까띠글란 부두 항구 근처 부지에 건립되었으나 역시 도난당했다. 조각가 카를로스 아노리코 산초가 두 달 동안 제작하고 넬리아 산초가 주도하여 설치한 소녀상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로사 헨슨과 마르코스 정권 하에서 계엄군에 성폭행을 당한 넬리아 산초의 언니인 아그네스 산초를 형상화했는데 현재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



〈사진2〉 필리핀 보라카이에 설치되었던 소녀상 (최기원 2019)

15) Dennis Gorecho, “Three decades of Filipina comfort women’s fight for justice” Palawan News, 2022년 9월 2일, <https://palawan-news.com/three-decades>
Raymund Villanueva, “Gabriela condemns govt’s removal of comfort woman statue”, Bulatlat, 2018년 4월 29일, <https://www.bulatlat.com/2018/04/28/gabriela-condemns>
Hideki Yoshimura, Sankei Shimbun, “Foreign Ministry Didn’t Know: Chinese Hand Seen in Comfort Women Statue in Manila, JAPANForward, 2017년 12월 26일, <https://japan-forward.com/foreign-ministry>

다) 산페드로 라구나 소녀상¹⁷⁾



〈사진3〉 필리핀 라구나에 설치되었던 소녀상(정의기억연대 2019)

- 2018년 12월 28일 건립되고 2018년 12월 30일 철거되었다. 카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자비로운 성모마리아 노숙인 쉼터’ 앞 건립되었으나 설치 이틀 뒤 인부들이 와서 소녀상을 철거해 산페드로 시장의 사저로 옮겼다. 한국 소녀상과 동일 모델로 김서경 김운성 작가의 작품이다.

3)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하 아시아 여성기금, Asia Women’s Fund, AWF)

- **아시아 여성기금 필리핀 피해자에게 지급** _ 1995년 종전 5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 정부는 아시아

16) 최기원, “Filipino activist erects comfort women memorial on private property”, 한겨레, 2019년 2월 7일,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international/881268.html

17) 최상현, “필리핀 정부, 일본 항의에 ‘위안부 소녀상’ 철거하고 나몰라라”, 조선일보, 2019년 1월 4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4/2019010402232.html

정의기억연대, “필리핀 산페드로 시 평화의 소녀상 철거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성명서”, 2019년 1월 3일, <https://womenandwar.net/kr/notice/?pageid=32&mod=document&uid=20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정부와 민간에서 모금한 아시아 여성기금 지급을 결정하고 한국을 비롯하여 대만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피해자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한국과 대만의 피해자들은 아시아 여성기금이 일본 정부의 공식적 배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령을 거부했으나 필리핀의 경우 초기에는 반대했지만 롤라 로사 헨슨이 아시아 여성기금 수령을 받아들이면서 입장을 선회해서 수용했다. 필리핀은 아시아 여성기금이 정부 기금과 민간기금이 함께 있기에 민간모금을 통한 일본국민의 성의는 수용하되,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피해자 개인 소송은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롤라 필리피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아시아 여성기금을 수용하든 거절하든, 우리는 두 그룹의 피해자들을 모두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 후속 조치**_ 아시아 여성기금은 필리핀 피해자를 대상으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을 진행하였고, 사죄금(200만엔), 의료·복지지원사업(약 120만엔) 그리고 총리의 서한을 제공했다. 아시아 여성기금을 받은 피해자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¹⁸⁾ 필리핀에서 보상 사업의 창구가 되었던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는 사업종료 보고서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 고령자용 의료시설 건설 필요성을 제안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02년 9월 보상 사업종료 후, 기금의 후속 조치 사업의 일환으로 ‘풀뿌리 인산의 안전보장 무상자금 협력 프로젝트’로 실시해온 고령자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종료 이후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¹⁹⁾

18) 일본의 한 매체는“2002년까지 피해자 211명에게 보상했다. 이런 식으로 필리핀의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보도했다. <https://bunshun.jp/articles>

19) 마닐라 수도권 퀘존시티 고령자복지시설 확충계획, 혜택받지 못하는 고령자 여성을 위한 시설 확대계획, 필리핀 종합병원 고령자 진찰실 확대계획

6. 한국-필리핀 시민사회 연대

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기억연대 (아시아연대회의)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제안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1992년 8월에 결성한 아시아연대네트워크인 아시아연대회의에 필리핀은 지속해서 참여해왔다. 한국·대만·필리핀·북한·중국·인도네시아·동티모르 등 피해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본 단체, 개인으로 구성된 아시아연대회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배상, 유엔을 위시한 세계인권기구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요청 등을 요구해왔다. 필리핀 아시아 여성인권센터(말라야 롤라스)는 2000년 여성 법정에서 한국, 일본과 함께 공동사무국을 맡았다.

2)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모임

- 2019년부터 매년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청년 국제포럼을 미국, 필리핀, 일본, 필리핀 청년들을 초청하여 개최하였고 이때 필리핀의 릴라 필리피나와 연대하여 롤라와 청년들을 초청했다. 2021년 3월 코로나 19로 인한 필리핀 생존자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창원시약사회와 함께 모금을 진행해 필리핀 지원단체 가브리엘라에 피해자 물품을 지원했다. (기저귀, 영양제)

3) 동아시아평화를 위한 역사NGO포럼

- 역사갈등을 화해로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제대회를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과 해외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있으며, 국제대회 기간 중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 과거사 문제를 정기적인 의제로 다루고 있다. 또한, 2018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역사 NGO 활동가대회를 주최하였다. 2020년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글로벌 목요일포럼을 줌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의제를 토론하는데 2021년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 세계의 여성 인권과 폭력 문제를 일본, 필리핀, 발칸, 아프리카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하였다. 2022년 10월 일본군‘위안부’ 문제연구소가 주최하는 2022 여성 인권과 평화 국제대회에서 아시아 5개국(한국, 일본, 필리핀,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의 대학과 연계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여성 인권을 주제로 한 아시아

청년포럼을 주관했다.

4) 사단법인 캠프 평화와개발센터

- 필리핀을 기반으로 한 국제개발협력단체인 캠프는 2021년 ‘평화와개발센터’를 설립하여 평화 ODA 차원에서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지원하고 있다. 2021년에는 공공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과 필리핀 단체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해 여성평화안보(WPS)에 기반한 한-필 국제세미나,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15인의 증언을 담은 ‘침묵을 깨다, 역사를 열다.’ 증언집 발간, 온라인전시회 개최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2022년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생존자 구술을 통해 구술기록집을 발간하여 필리핀 피해자의 증언을 꾸준히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생존자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과 역사기록물 수집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 2019년부터 세계시민교육을 국내외로 진행하면서, 국제교류에 기반한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는데, 2021년 한국·필리핀·인도네시아 3국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2022년 한-필 청소년 국제교류프로그램, 한-필 평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평화와 인권문제를 청년들에게 교육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5)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

-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하기 위해 2014년부터 7개국 14개 단체가 국제연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필리핀은 릴라 필리피나가 국제연대위원회의 멤버로 활동하며, 소장하고 있는 피해자 조사자료, 피해자 작품 등을 공동으로 등재 신청하고 있다. 릴라 필리피나는 2017년 일본 우익단체들의 방해로 등재가 연기되어, 현재 유네스코 사무국의 조정으로 일본 우익단체와 대화 준비를 하고 있다. 국제연대위원회와 영국 왕립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관련 자료 2,744건을 2016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하였다.

The vivid voices of survivors, families, and activists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the Philippines

3부

구술채록의 진행 과정

1. 사전준비

1) 역할분담

-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90대 초고령화로 진입한 지 오래되었고, 공식 피해자 집계 174명 중 11명이 생존한 상황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자로부터 직접 증언을 들을 기회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상황에서 생존자와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들이 수입원을 잃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필리핀 정부의 강제 봉쇄정책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 프로젝트 책임자인 양미강 이사(사단법인 캠프)를 중심으로 사단법인 캠프의 필리핀지부, 필리핀 현지 단체인 릴라 필리피나가 협력하여 전체일정을 조율하며 진행하였다. 한국에 있는 사단법인 캠프는 총괄 기획, 필리핀지부인 캠프 아시아는 현지 진행팀과 함께 통·번역, 기록, 일정조율 등 실무 진행, 릴라 필리피나는 생존자 인터뷰 일정조율, 현지어 통역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2) 구술대상자 선정 원칙

- 생존자를 직접 지원하는 릴라 필리피나와 수차례에 걸친 사전협의를 통해 증언 원칙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하고 증언내용을 사전공유하였다. 구술내용은 과거 피해 사실에 집중하기보다는 피해 사실은 기존증언을 참고하기로 하고, 코로나 19 이후 현재 생존자의 삶에 초점을 두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구술대상자 선정은 ① 생존자와 가족이 동의하고, ② 생존자의 기존증언을 통해 피해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고, ③ 가족의 증언을 통해 생존자의 증언을 다각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였다.

3) 구술 질문 구성

- 위의 기준에 따라 적합한 생존자 리스트를 정리하고 리스트에 따른 기존증언을 수집하여 구술 질문을 구성하였다. 구술 질문은 기존증언에서 묻고 싶은 점, 증언하게 된 계기나 증언 이후의 삶의

변화, 최근 생활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생존자 구술 질문 이외에도 가족이나 활동가 질문은 별도로 정리하였다. 가족 질문은 언제 생존자의 피해 사실을 알았는지, 증언 당시 상황과 생존자의 변화, 가족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생각과 일본 정부나 필리핀 정부에 관한 의견 등으로 구성하였고, 활동가의 구술 질문은 생존자와 함께 활동하면서 느낀 점과 생존자의 삶을 중심으로 구성해 진행하였다.

- 구술을 위한 개인 정보동의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듬어 구술채록 사용 기간을 생존 기간 혹은 사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구술 진행 전에 생존자와 가족에게 구술채록의 목적과 개인정보 동의서 내용을 설명하고, 생존자가 직접 서명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생존자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다 보니, 생존자들이 정성스럽게 자신의 서명을 서류에 기입할 때 드는 느낌은 이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 동의라는 형식을 넘어 증언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의미라는 점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4) 자문위원회 구성

- 구술 시작부터 전체 마무리까지 자문을 진행하였다. 1차(5월 4일, 현지 1차 출장 전), 2차(7월 6일, 현지 1차 출장 후), 3차(10월 12일, 현지 2차 출장 후) 3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다. 자문위원은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전문가 3인(윤명숙, 강정숙, 한혜인)을 위촉하여 질문내용, 진행 과정, 보완사항, 기록집 목차와 형식에 관해 전반적인 구술채록 구성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5) 구술대상자 1차 선정과 구술채록 원칙정리

- 구술대상자를 생존자 4명으로 하고, 마닐라권 2명, 로하스 2명으로 정리하였으나, 생존자의 건강상 문제, 가족의 여러 가지 변수가 등장하였다. 활동가 구술채록은 릴라 필리피나 1대 대표인 넬리아 산초와 2대 대표인 리치 엑스트라마둘라, 3대 대표인 샤론 카부사오를 선정하고 구술채록 요청 공문 등을 준비했다.
- 구술채록팀은 총 6명으로 구성하였는데 현지 코디네이터 1인, 따갈로그어 통역자 1인, 영상기록팀 2인, 캠프 필리핀지부(이하 캠프 아시아) 1인, 총괄책임자 1인으로 구성하고 구술채록 진행 시 통역 순서와 녹취록을 위한 원칙을 정리하였다. 생존자와 가족 구술채록 시 따갈로그어에서 영어로 통역하고 필요할 시 영어에서 한국어로 다시 통역하는(현장) 순서로 하며, 영상기록팀이 동행하여 구술채록 전체를 기록하고 그 기록 전체를 가감 없이 녹취하기로 하였다.

2. 구술채록 진행

1) 구술 환경 정리

- 구술시간과 대상별 구술 순서를 정했다. 생존자의 구술은 오전 중에 2시간 정도가 가장 최적화된 시간으로 생각했는데, 2시간이 넘으면 생존자의 집중력과 체력이 현저하게 저하되기 때문이었다. 가능하면 오전에 구술을 받고, 바로 이어 가족이 구술하도록 배치하였다. 생존자들은 대부분 가족, 특히 딸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3대 혹은 4대가 모여 살고 있었다. 필리핀 사회는 대부분 어머니와 함께 가족이 모여 사는 게 일반적이며, 생존자들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가족 중 딸과의 구술은 생존자의 삶을 비교적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다고 생각한다. 가족 구술은 생존자의 결혼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삶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있었으며 증언 이후 생존자의 변화된 삶을 증언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구술을 위해 생존자의 집을 방문하는 과정은 생존자가 처한 환경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었으며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파악하는 일은 생존자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집이라는 공간은 단지 구술 장소의 의미를 넘어서 생존자를 둘러싼 다양한 관계망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인이 사는 집에서 구술채록하는 것은 중요하다.
- 구술팀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영상팀이 함께 가기 때문에 구술채록을 위한 역할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가장 먼저 영상팀이 먼저 생존자의 집에서 영상촬영 준비를 마치면 생존자들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게 되었다. 이때 증언팀의 구술채록이 시작되었다. 생존자마다 주변 환경이 달라서, 영상팀의 촬영 장비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비좁고 조명이 약한 경우 조명 설치에 애를 먹기도 하고, 반면 테라스에서 촬영이 가능할 정도로 넉넉한 공간을 확보한 경우 영상팀이 쉽게 작업을 하였다.

2) 1차 현지 출장과 구술채록

- 양미강 총괄책임자 진행 하에 전반적인 일정을 잡고, 현지에서 캠프아시아가 현지 단체 릴라 필리피나와 협의하여 대략적인 구술채록 일정을 정리하였다. 1차 현지 출장은 2022년 5월 15일~2022년 6월 3일(19박 20일) 이루어졌으며, 캠프아시아와 릴라 필리피나와의 업무협의 미팅과 관계자들과 대면 간담회를 지속해서 가지며 이 사업의 목적을 공유하였다. 이후 구술채록이 가능한 마닐

라권 생존자 2명을 선정하여 접촉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1명만 가능하고, 다른 1명은 갑작스럽게 건강상의 문제로 구술채록 진행이 어려워 캠프아시아 스텝이 7월 방문하여 기본적인 구술채록을 진행하였다.

3) 1차 구술채록 정리 및 번역

- 1차 현지 출장에서 만난 생존자의 녹취록을 따갈로그어에서 영어로 번역하고, 다시 한국어로 번역 정리하였다. 1차 구술채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문 회의를 통해서 검토하고 추가 보완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주로 기존증언에서 더 확인해야 할 내용, 최근 생존자의 활동에 따른 다양한 사람들(이웃, 가족)의 구술채록 보완요청이 있었다.

4) 구술대상자 2차 정리

- 활동가 구술준비가 예상보다 어려웠다. 넬리아 산초와 리치 엑스트라마둘라 두 명의 전 대표는 투병 중인 관계로 연락 자체가 어려웠고, 아픈 사람에게 구술을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부득이 대안을 찾기로 했다. 그 대안으로 중부지역 일로일로에서 가브리엘라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초기부터 활동 중인 루시아 프란시스코를 소개받고 구술대상자로 확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마닐라권에 거주하는 생존자 2명과 로하스 지역에 거주하는 생존자 2명 총 4명과 가족 4명, 일로일로 활동가 1명이 확정되었다.

5) 2차 현지 출장과 구술채록

- 2차 출장은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이미 확정된 구술대상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했다. 로하스 출장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던 중 현지 지원단체인 릴라 필리피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나타났다. 필리핀의 불안한 정치 상황으로 로하스 지역 코디네이터가 일정을 수행하기 어렵고 대체인력도 찾기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영상팀과 증언팀 모두 출장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으나 이 돌발변수를 해결하기 위한 릴라 필리피나와 캠프 아시아와 합동 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출장 중단을 결정하였다. 프로젝트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로하스 출장을 계속 미루기 어렵고, 지역 상황이 언제 해결될지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 대안으로 마닐라권에 거주하는 생존자를 찾기로 했다.

- 출장 기간 중 태풍이 있어 인터넷도 끊기고, 날씨도 갑작스럽게 변해 일정 변경은 다반사였다. 마닐라권 구술대상자 선정을 위해 고심하던 중, 자매 관계인 생존자 2명을 릴라 필리피나와 협의하여 구술 일정을 확정하였다. 이와 함께 일로일로 활동가 구술 일정도 마닐라에서 하기로 최종정리되었다. 이렇게 2차 출장 마지막 기간에 모든 구술 일정을 확정하고 원래 계획대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 2차 현지 출장 기간에 예상치 않은 일들이 있었다. 초기부터 구술대상자로 선정했던 릴라 필리피나 1대 대표인 벨리아 산초 2대 대표인 리치 엑스트라마둘라가 투병 중이어서 구술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은 했으나, 갑작스럽게 전해온 두 사람의 사망 소식은 주변의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특히 8월과 9월 릴라 필리피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두 대표의 연이은 사망 소식은 누구보다도 생존자들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활동해왔기에 생존자들에게나 활동가들에게 힘겨운 시간이었다. 벨리아 산초의 추모식, 리치 엑스트라마둘라의 온라인 추모식에 참여하면서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운동에 참여한 활동가들을 자세히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9월 17일 최초 증언자인 롤라 로사 헨슨 증언 3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마닐라의 바클라란 성당에서 대면으로 개최되어 기자회견과 젊은 세대들과 생존자들의 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오랜만에 대면 행사에 참여한 생존자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3. 구술채록 정리

1) 구술채록 번역

- 녹화 촬영본을 기반으로 녹취(따갈로그어 → 영어 → 한국) 번역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따갈로그어와 영어를 병기 해서 1차 번역이 완성되면 2차로 영어와 한글을 병기 하여 녹취록 초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따-영, 영-한 병기는 번역을 확인할 때 유용한 형식이었다. 녹취 정리는 구술채록 대상자의 발언과 감정을 가감 없이 정리하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감정변화 등 세심한 내용은 빠지고 인터뷰 내용만 녹취된 아쉬움이 있었다. 이는 1차 녹취(따갈로그어 → 영어)를 필리핀에서 진행하였기에 충분하게 의도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현지 번역자가 생존자와 가족이 따갈로그어를 사용한 것을 영어로 번역하고, 한국 번역자는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삼중 번역의 과정을 거치며 생존자의 증언이 그대로 전달되지 못한 한계도 있을 것이다. 녹취록 하나를 삼중번역하는 시간은 3주 정도 시간이, 다시 검토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이렇게 녹취록 번역작업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탄생했다.

2) 구술집 목차 구성 및 원고작업

- 구술집 목차는 구술채록의 생생함을 살리는 방향으로 구성하고,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생존자의 목소리를 처음 접하는 한국 독자들을 위해 필리핀 상황과 정보를 소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구술 진행 과정의 전반을 자세히 알도록 별도의 챕터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 목차에 따른 원고 구성과 구술채록 검토작업이 반복되었고, 최종적으로 자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 최종 수정하였다.

The vivid voices of survivors, families, and activists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the Philippi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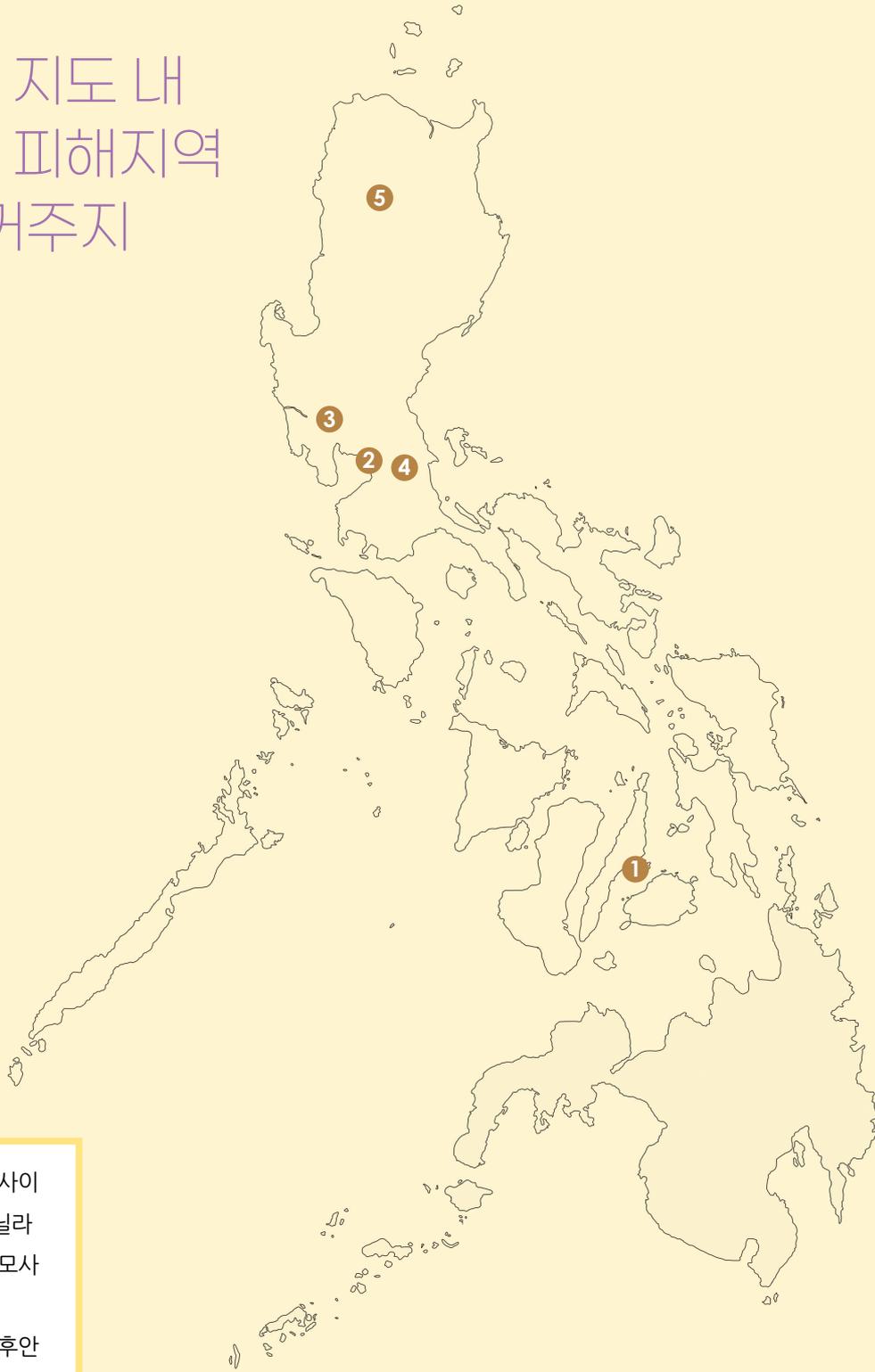
4부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가족, 활동가 증언

일러두기

- 'Lola(롤라)'는 따갈로그어로 '할머니'를 의미하며 발음 그대로 '롤라'로 표기하였다.
- 구술채록 전문의 대화에서 질문자와 대상자를 기호 또는 호칭으로 표기하였다.
 - 질문자가 한 명일 경우 **가나다**(색)로 표기하였다.
 - 질문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현지 스태프는 **가나다**(색), 캠프 스태프는 **가나다**(색)로 표기하였다.
 - 대상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대상자의 호칭을 딸과 손녀 등으로 표기하였다.
- 지역명, 인명, 고유명사 등의 첫 표기는 '한국어(영어)' 형식을 따르며, 이후 한국어만 표기하였다.
- 필리핀 이름은 이름과 별명/애칭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식 이름은 대부분 두 단어가 합쳐져 있다. 이에 따라 정식 이름과 애칭을 함께 명시하였다.
- 필리핀은 일본군 '위안부' 동상 혹은 기념비라는 단어를 사용하나, 한국 독자들에게 '소녀상'이 보다 친숙하게 다가오기에 '소녀상'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

필리핀 지도 내 구술자 피해지역 및 현 거주지



- ① 세부, 탈리사이
- ② 메트로 마닐라
- ③ 바탄, 헤르모사
- ④ 안티폴로
- ⑤ 아브라, 산후안

구술자	피해 지역	현재 거주 지역
Estelita Basbano Dy	① 세부, 탈리사이	② 메트로 마닐라
Hilaira Bustamante	③ 바탄, 헤르모사	② 메트로 마닐라
Narcisa Claveria	⑤ 아브라, 산후안	④ 안티폴로
Estella Adriatico	② 메트로 마닐라	② 메트로 마닐라

1. 롤라 에스텔리타 바스바노 디 (Estelita Basbano Dy)

93세, 나보타스주 말라본(Navotas, Malabon) 거주,
롤라 에스텔리타로 불림

1) 롤라 에스텔리타의 초상

롤라 에스텔리타를 만나기 위해 메트로 마닐라에 있는 말라본 집을 방문한 것은 5월 20일이었다. 그 후 서너 번 더 만날 기회가 있었다. 롤라 에스텔리타를 첫 증언자로 선택한 건 행운이었다. 롤라의 건강 상태가 구술채록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양호했고, 매우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증언을 이어갔다. 또 함께 사는 딸 역시 어머니와 킬라 필리피나 활동에 열심이어서 가족 입장의 구술을 받기에 적합했다.



<사진4> 집 앞에서 구술채록 팀을 맞이하는 롤라 에스텔리타

롤라 에스텔리타를 만나면서 마치 한국의 이용수 할머니가 생각났다. 외부 사람을 만날 때나 증언할 때 소신껏 이야기하고 자기관리가 철저해서 의상이나 화장이 갖춰진 상태에서 외부인과 만나는 모습이 오랜 시간 활동해온 대표적인 인권활동가 모습이었다.

롤라가 사는 마닐라 외곽에 위치한 말라본은 주변에 덩크 사이트(쓰레기 더미)가 있어 환경이 썩 좋지 못하다. 우리와 동행한 릴라 필리피나의 샤론 선생과 영상 1명 등 총 5명이 길을 찾아 나섰다. 샤론 선생은 몇 번이나 왔지만 늘 길이 험갈린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그도 그럴 것이 골목이 다 닳다닥 연결되어 있어 그 집이 그 집 같아 보인다. 한참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롤라 에스텔리타의 큰딸 리사에게 전화를 거니 바로 인근에서 나와 우리 일행을 맞이했다.

집을 찾아온 것에 대한 안심도 잠시, 롤라를 만나러 집으로 들어가는데 골목이 심상치 않다. 집들이 연이어 붙어 있는데, 입구 쪽에 집이 하나 있고 골목을 들어가니 왼쪽에 방 하나와 화장실, 쪽 들어

가서 또 방과 간이 2층 방이 있다. 이 집에서 증손녀까지 총 4대, 12명이 함께 살고 있다.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냐고 물으니 롤라가 사는 이 집은 90년대 이사를 왔고, 입구 쪽 방은 둘째 딸이 손주와 함께, 두 번째 방은 롤라 본인과 최근 아들이 손주와 함께, 세 번째 방은 첫째 딸이 손녀 그리고 증손녀까지 함께 산다고 한다. 막내딸은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큰딸 리사는 에스텔리타를 돌보며 콘도미니엄 파트타임 관리인이다. 남편 없이 두 딸 모두 혼자서 자녀와 손주들을 양육하고 있다.

집 구조상 좁은 골목을 지나는데 너무 킁킁해서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마치 터널을 지나는 느낌이다. 전등이 켜있지 않으니 어디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된다. 직진으로 들어가 방에 들어가 앉았다. 그때 옆방에서 옷을 입고 화장을 한 롤라가 우리를 맞이하러 나왔다.



〈사진5〉 롤라 에스텔리타 집으로 가는 골목길

샤론은 롤라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킁킁해요?”

롤라는 대답한다.

“전기세를 내지 못해 전기가 안 들어와요”

최근 코로나 19로 가족들이 일자리를 잃어서 전기세를 내지 못해 강제로 단전을 당했다는 것이다.

밀린 전기세가 17만 페소(약 400만원)라니 꽤 오랫동안 전기세가 밀렸다. 실직으로 인해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전기세를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증언팀 중에 영상팀이 가져온 조명 장비를 설치할 곳을 찾지 못하자, 큰딸 리사는“잠깐만 기다려요.” 하면서 밖으로 나간다. 그 후 천장 형광등에 불이 들어왔다. 급할 때 옆집 전기를 끌어다 쓰는 것 같았다. 드디어 집이 환해졌다. 창문도 없어서 답답하고 날씨가 더워 후덥지근하던 집안에 선풍기와 형광등이 있으니 한결 나아졌다.

이제 구술을 위한 준비가 끝났다. 방 안에는 의자 2개가 놓였다. 하나는 롤라를 위해, 또 다른 하나는 큰딸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롤라는 필리핀 전통 옷인 바룻사야를 입으시고, 얼굴에 곱게 분도 칠하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 어젯밤 잠을 설치 늦잠을 주무셨다는 롤라는 분유를 탄 우유로 아침을 대신한다. 연세가 93세인데 자기만의 스타일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 같다. (이후 롤라와 세 번 더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롤라는 늘 바룻사야를 입고 사람을 맞이했다)

“롤라,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보통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모닝커피를 마시기 위해 물을 끓여요. (필리핀 커피는 커피 1, 설탕 3, 프림 3개로 매우 달짝지근하다). 그 후 마당으로 나가 화분에 물을 주고 청소도 하고, 반려견 목욕도 시키고 그래요. 코로나 19 전에는 매일 채소와 쌀을 사러 집 근처 시장에 걸어갔어요. 내가 먹을 반찬은 내가 요리해서 먹어요. 점심을 만들어 먹고 남은 반찬으로 저녁까지 먹는 편이에요. 점심을 먹고 나면 마당에 나가 쉬면서 성경도 읽고 낮잠도 자고 그래요. 저녁 먹고 나면 텔레비전을 보고 지내다가 밤 10시가 되면 잠을 청하는데, 잠이 안 오면 속옷 바느질하고 잠이 들 때까지 라디오 음악을 들어요.”



<사진6> 질문에 답하는 롤라 에스텔리타와 딸 리사

롤라는 2시간여 내내 또렷한 말투로 말씀하신다. 아마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증언활동을 하면서 몸으로 체득한 거 같다. 구술내용은 과거 피해 사실, 증언하게 된 과정과 증언활동, 그리고 필리핀 정부와 일본 정부에 대한 입장 등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지난 5월이 필리핀 대선 직후인 관계로 필리핀 대통령에 선출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 마르코스 봉봉이 당선된 소감에 대해 롤라는 분명하게 마르코스 봉봉에게 더는 희망을 걸지 않는다고 답하신다.

모든 일정이 끝나자 점심시간이다. 아침을 간단하게 우유만 드셔 배가 고프셨는지 판싯(필리핀 전통음식, 우리나라의 잡채가 비슷함)을 맛있게 잡수신다. 점심 후 큰딸 리사의 구술이 있었다. 딸과 롤라는 함께 의자에 앉아, 롤라는 딸의 증언을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다. 리사는 갑자기 감정이 폭발 치는지 눈물을 참는다. 그동안 쌓인 엄마에 대한 미안함 때문일까? 아니면 코로나 19로 더 힘들어진 상황 때문일까?

구술시간이 한 시간 정도 지나자, 롤라는 힘이 들었는지 잠시 꾸벅이며 졸다가 금방 깨어난다. 이렇게 모녀가 나란히 앉아 이야기할 기회도 별로 없었을 거 같다. 딸의 구술을 조용히 듣는 롤라의 얼굴에 순간순간 감정이 묻어난다. 롤라의 든든한 지원군인 딸, 롤라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겨주는 딸,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낸 딸이기에 딸의 속마음을 이렇게라도 들으니 좋아하시는 것 같다.

롤라의 집 입구를 보면 20여 개의 화분, 새 장, 반려견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매일매일 롤라의 손길이 닿아서인지 꽃이 활짝 피어있었다. 처음 만날 때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새도 있었는데 지금은 더는 안 키우신다. 롤라가 애지중지하는 반려견이 있다. 늘 롤라 옆을 지키는 강아지도 롤라의 친구이다.



<사진7> 롤라 에스텔리타의 반려견

롤라는 현재 다리가 아프고 청각이 안 좋다. 코로나 19 전까지만

해도 본인의 식사를 위해 장을 보러 매일 다녀오셨으니 건강하신 편이었다. 코로나 19 봉쇄로 집에 있어야 하고, 사람도 만나지 못해 롤라는 많이 힘드셨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 사람 대하는 게 좀 어둔해지신 감은 있지만 요즘 다시 활기를 찾고 계셔서 그나마 다행이다.

롤라를 보면 마른 체격에도 부지런하게 몸을 움직여 집안을 쓸고 닦는다. 필라 필리피나 롤라 하우스에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롤라는 늘 청소를 도맡아 하셨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롤라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유는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지고 옛날 일이 생각나기 때문에 잊어버리려고 늘 바쁘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신다.

현재 공식적인 구술채록에서 들려주는 롤라의 꿈은 일본 정부가 배상하고 사죄하는 일이다. 젊은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롤라는 앞으로 이 운동이 활발하게 유지되기를 바란다. 현재 롤라에게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코로나 19로 일자리를 잃은 9명의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수입원이 없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최근 아들까지 함께 살다 보니 롤라의 표정이 어둡다.

93세 롤라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롤라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신다. 롤라가 함께 활동해 왔던 벨리아 산초와 리치 엑스트라마둘라 대표의 연이은 부고 소식도 알고 계신다. 롤라의 꿈인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이 그리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자꾸 나이 들어가면서 동료들은 죽고 이제 나도 좋은 음악 들으면서 편히 쉬고 싶다는 롤라 에스텔리타의 소박한 꿈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그 날을 위해 기도한다.



〈사진8〉 롤라 에스텔리타와 딸 리사 그리고 구술채록 팀

2) 생존자 구술 요약

롤라 에스텔리타는 1930년 4월 28일에 탈리사이 네그로스에서 오 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1942년 일본군 침략으로 가족과 함께 피난하였고 일본군 항구에서 어머니와 일하며 생계를 책임졌다. 그녀가 14살이 되던 1944년, 시장에 갔다가 일본군에 납치당했다. 3주 동안 위안소에 갇혀 힘든 시간을 보냈다.

1945년 위안소에서 탈출하여 가족과 재회한 후 초등학교를 수료하였고 1949년 마닐라로 이주하여 세탁일을 하며 지냈다. 이후 1950년 남편과 살기 시작하여 6명의 자녀를 낳고 남편과는 헤어졌다. 남편에게는 피해 사실을 말한 적이 없으며 자녀 중 이 사실을 받아들인 이들도,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1993년 롤라 에스텔리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뉴스에서 소개한 주소로 찾아가 필리피나와 함께 하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 정의를 찾을 수 있다고 믿으며 용기를 갖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롤라 에스텔리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생존자에게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더불어 다음 세대 청년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잊지 않고 함께 지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3) 생존자 구술 전문

증언자 | Estelita Basbano Dy (93세)
증언일 | 2022.05.20 (1차), 09.06 (2차)
증언장소 | 롤라의 집(메트로 마닐라 말라본)
참석자 | [한국] 양미강, 이혜미 [필리핀] 샤론 카부사오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하세요.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롤라 에스텔리타예요.

현재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현재 저는 93세입니다.

93세이시군요. 최근에 생신이셨죠? 지금 기분은 어떠신가요?

네,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 뭐하며 지내시나요?

전 요즘 집 안을 청소하고 식물에 물도 주면서 지내요. 그걸 매일 해요. 그 후에는 세탁할 옷들이 많으면 제 옷을 세탁해요.

세탁을 직접 하세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꽤 괜찮아요. 비타민을 계속 먹고 있어요.

비타민을 드세요? 최근에는 어떠세요? 특별한 건 없으세요?

제 발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프세요?

여기, 그리고 여기가 아픕니다.

아, 저 밑이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걸어 다니려고 하는 이유예요.

관절염은 없으세요?

네 없어요. 발 이곳이 아픈 것 말고도, 손도 아파요.

여기도 아프세요? 들으시는 것과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힘듭니다. 저는 지금 거의 들을 수 없어요.

눈은 어떠세요? 시력은 괜찮으세요?

잘 안 들려요. 더 크게 말해줘야 들을 수 있어요.

눈은 어떠세요? 잘 보이세요?

아니요. 눈 검진을 받았는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백내장이 있으신가요?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해요.

이 집 소유하고 있는 거죠? 직접 지으셨나요? 언제 지으셨나요?

1999년도예요.

1999년도군요. 가족은 몇 명이나 여기 살고 있어요?

세 가족이 같이 살아요.

세 가족이나요? 코로나 19 때 생활은 어떠셨어요? 매일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냥 조금씩 쉬고 그랬어요.

릴라 필리피나의 멤버가 맞으시죠? 릴라 필리피나에서 무엇을 했었죠?

그땐... 그땐 향의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꽃무늬 리그를 만들었어요. 우린 그걸 일본에

서 팔기위해 만들었어요.

언제 릴라 필리피나의 멤버가 되셨죠? 19...

19...1993년도예요.

네, 1993년도군요.

롤라 시사는²⁰⁾ 1992년도에 피해 사실을 밝혔어요.

그녀(롤라 시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두 번째 그룹²¹⁾이었어요. 어떻게 릴라 필리피나에 대해서 알게 되셨나요?

그날로 돌아가 보면, 롤라 로사 헨슨(Rosa Henson)²²⁾이 “동료들이여, 만약에 일본군에게 피해를 입었다면...”이라고 알렸어요. 그녀가 주소를 줄 거라고 했어요. 만약에 거기로 가면, 주소를 알 수 있을 거라고, 그걸 갖고 있으라고요. 1992년에 롤라 로사가 그랬어요. 그녀가 그 사실을 알렸을 때, 전 부끄러웠어요. 자신에게 질문했죠, 왜 그녀가 피해 사실을 밝혀야 했을까? 왜 침묵할 수 없었을까? 일 년 뒤에, 전 깨달았어요. 롤라 로사가 옳다고요. 아마도 우리가 겪은 고통에 대한 정의를 찾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함께 밝히게 되었어요. 그때 이름이 'Filipina, Filipino ...'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TF팀이죠.

제가 까먹었네요. 지금은 릴라 필리피나로 불리죠.

왜 릴라 필리피나로 가기로 결정 했나요?

롤라 로사가 옳았던 것 같다고 제가 말했죠.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정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전 케손시티에 있는 주소를 찾아보았어요. 거기 갈 방법을 찾았고 리치(Richie)도 거기 있었고 넬리아(Nelia)도 있었어요.²³⁾

20) 시사(Cisa)는 Narcisa Claveria의 애칭

21)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활동 그룹 중 시기에 따라 첫 번째, 두 번째 등으로 구분

22)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첫 증언자 마리아 로사 헨슨(Maria Rosa Henson)

23) 릴라 필리피나 소속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며 활동에 많은 영향을 준 Richie Extramadula, Nelia Sancho. 2022년 8월과 9월 두 분 모두 생을 마감

거기 갔을 때, 무엇을 했나요? 릴라 필리피나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넬리아와 활동했을 때, 우린 어떤 프로젝트도 없었어요.

음, 롤라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릴라 필리피나 사무실에 처음 가셨던 거 맞죠? 누가 함께 하였고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우리를 인터뷰했던 일본 변호사가 있었어요. 마사(Masa)가 통역사였어요.

롤라의 피해 경험을 물었나요?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터뷰했고 저는 그들에게 말해주었어요.

거기(릴라 필리피나)에 가셨을 때 따님 리사(Lisa)가 함께 갔나요?

전에요? 아뇨. 딸은 몰랐어요.

그러면 혼자 가셨나요?

저만 갔어요.

리사는 언제 피해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나요?

언제 알게 되었냐고요? 우리가 시위를 활발히 했을 때 자녀들이 저를 텔레비전에서 보게 되었어요. “저기 우리 엄마가 나오고 있어!”라고 했죠.

리사의 반응은 어땠나요?

우리 아이들은 제가 일본군들에게 강간 피해가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들이 알게 되었죠.

집에 가셨을 때 리사의 반응이 어땠나요?

제가 집에 도착하고, 우리(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일어난 그 일은 절대로 제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도요. 그 시기는 일본이 왕처럼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어요.

일본군들이 왔을 때 어떤 삶을 살고 계셨는지 전에 말하셨죠. 안락한 삶을 살고 계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물건들을 팔고, 항구에서 일했다고 알고 있어요. 일본군들이 도착한 걸 알았을 때,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드셨나요?

1942년, 일본군들이 우리 지역으로 왔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있던 농장에서 강 근처로 옮겨 대피

해야겠다고 결정했어요. 먼 장소였죠.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가야 했기 때문에 농장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소와 물소, 그리고 말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농장에서 일할 때 그 가족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언제 일본군들이 왔다고 알게 되었나요?

우리가 대피하고서 저는 닭을 돌봤어요. 가끔 일본군들이 와서 닭값을 찾았어요. 저는 닭값을 그들에게 주었고요.

일본군들이 처음엔 친절했나요?

그들은 간장, 소금 그리고 설탕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랑 교환하기 위해서요.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뭐라고 하셨나요? 잘 안 들립니다.

그들이 롤라 집으로 가진 않았나요?

전 닭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일본군들이 처음에 왔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나요?

그들에게 전 닭값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呢요?

모든 것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떠났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상황이 심각해진 건, 1943년에서 1944년이었어요. 전 항구에서 일했어요. 바콜로드(Bacolod) 도시 안에서요. 우리는 거기서 일했어요. 우리는 깊고 깊은 계곡을 내려가서, 그 아래에서 돌을 모았어요. 우리가 많이 모으면, 하나씩 올라갔어요.

그 돌들은 무엇을 위한 거였나요? 팔기 위한 것이었나요?

일본군들은 항구에 돌을 놓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항구가 척박했거든요. 거기엔 돌을 놓는 광부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

그 후에는, 5시가 되면 쉬는 시간이었어요.

쉬셨군요.

그리고 우리는 줄을 섰어요. 우리는 2.5 kg 정도의 쌀을 받았어요.

일본군들한테 받으신 건가요?

네, 일본군들에게서요. 그게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럼, 항구의 책임자는 일본 군인들이었나요?

늦은 오후가 되면, 그들이 다시 포장해온 껍질이 벗겨진 쌀자루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죠? 농장 안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아뇨, 일본군 항구요. 일본군 항구에서 일했어요. 우리는 거기서 한동안 일했어요. 하루는 전투기가 지나갔어요. 그 전투기에는 'Estrella'라고 적혀있었어요. 일본군들은 헬멧을 쓰고 숨었어요. 민간인과 함께 숨었어요. 가끔 전투기가 안 보이면 담배를 피웠어요. 그다음 날 우리에게 일을 그만하라고 하는 팻말을 붙였어요. 그다음 날은 다른 비행기가 지나갔어요. 전투기는 정말로 'Estrella'라고 적혀있었어요. 그 전투기가 낮게 날아서 읽을 수 있었어요. 'Estrella'라는 이름이 정말 컸어요.

'Estrella'라는 단어가 적혀있었나요, 아니면 별 모양이 있었나요?

단어 'Estrella'가 적혀있었어요. 아주 거대한 'Estrella'가 날개에 있었어요.

일본 전투기였나요, 미국 전투기였나요?

미국이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일을 그만하라고 말했어요. 폭탄이 우리에게 떨어질지 모른다고요. 우린 일을 멈추고 키우던 닭장에 돌아갔어요. 왜냐면 할머니를 남겨두고 왔기 때문이죠. 매일 그랬어요. 하루는 우리 농장 물건을 팔려고 시장에 가지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시장에 갔을 때, 갑자기 일본군 트럭이 왔어요. 일본군 트럭 1대요. 게릴라로 추정되는 민간인을 옮기고 있었어요. 일본군들은 그들을 광장으로 데리고 와서 줄 세웠어요. 광장에는 마을 정원사가 식물에 물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우물이 있었는데, 일본군들은 포로 한 명씩 목을 치고, 머리를 우물로 밀어 던졌어요.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물론 무서웠죠. 저는 숨었지만, 저를 보고 있는 일본군이 있었어요. 전 너무 무서웠고 도망쳤어요. 도망치다가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가(일본군) 제 머리를 붙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광장 한쪽으로 끌고 갔어요. 그곳엔 대기하고 있는 여성들로 가득 찬 트럭이 있었어요. 저는 트럭에 올라탔어요. 그곳에 총검이 달린 소총을 들고 있는 일본군 병사가 있었어요. 말하는 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우린 그냥 서로를 쳐다봤어요. 매 순간 총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뛰어다녔어요. 왜냐면 목이 잘려 죽기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뛰어 도망쳤지만, 총에 맞고 죽었죠. 그 후에 민간인들은 집에 가도록 명했어요. 제 어머니는 집에 갔지만 저는 트럭에 남았어요.

어머니가 울지 않으셨나요?

물론 우셨어요.

어머니는 무엇을 했나요?

어머니는 집에 가셨어요. 저는 일본군 기지로 끌려갔고, 어머니는 농장으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기지에 갔을 때, 거기에 몇 명의 다른 소녀들이 있었어요. 저는 방이 여러 개 있는 집으로 갔어요. 세 개의 방들이 있었고 제가 가장 어렸어요. 한 일본군이 들어와서 저에게 왔어요. 저를 끌어안고 강간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명도 왔어요. 저는 저항하며 싸웠고 그가 화를 냈어요. 그는 제 머리를 들어서 책상에 세게 내려쳤고, 전 기절했어요. 그 후에 한 여성이 저에게 와서 “다음번엔, 그들에게 저항하지 마.”라며 조언했어요. “그냥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줘. 그래야 다치지 않을 거야.”라고 했어요. 그 여성은 일본말을 할 줄 알았어요. 일본군들은 그녀가 말하는 게 무엇이든 따랐어요. 강간당할 때마다, 전 그냥 울며 눈을 감았어요. 왜냐면 제가 저항하면 그들이 저를 죽일 거라고 말해준 걸 기억했기 때문이죠.

전 삼 주 동안 기지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미군이 조만간 올 거라는 소문이 돌기 시



〈사진9〉 추억이 담긴 사진앨범을 보는 롤라 에스텔리타와 딸 리사

작했어요. 그들은 미군들을 멈추게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가까이 왔어.” 그들이 진짜 오고 있었어요. 하루는 꿈을 꾸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밖에서 소리를 질렀죠. 전 그냥 엿보았어요. 전 필리핀 사람이 미군들과 걷는 걸 봤어요. 미군들은 포로들을 풀어주었어요. 저는 다른 길로 집에 갔어요. 제 어머니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셨어요. 전 어머니에게 일본군에게 강간당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고, 제 형제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만 말했어요.

아버지는 모르고 돌아가신 건가요?

제 아버지는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저랑 제 어머니만 알고 있어요. 심지어 제 사촌들도 몰라요. 제가 바콜로드에 있는 할머니 댁에 휴가를 간 거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전 학교에 등록했고 공부를 계속했어요.

바콜로드에서요?

탈리사이(Talisay)에서요. 전 다시 공부했고 6학년을 마쳤어요.

그리고서 삶이 어땠나요? 일본군들은 다 갔던 거죠? 제 말은, 일본군들은 도망갔죠? 미국인들이 그들을 대신해 왔었죠. 어떻게 사셨나요?

전 일을 했어요. 우린 캠프에서 일했어요. 그리고서 6학년을 마쳤어요. 쉽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일본군들에게 강간당했다는 것을 알아낼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전 마닐라로 갔어요.

일본군 편을 든 이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죽임을 당했죠? 게릴라들과 미국인들이 일본군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을 찾으면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마닐라로 가셨죠.

저는 마닐라로 갔어요. 한 가족의 가정부로 일을 했어요. 그 집안의 남편분은 파블로 오캠프, 팜올리브(Pablo Ocampo, Palmolive)의 관리자였어요. 그리고 아내분은 토레스(Torres)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들의 자녀 3명을 돌보았어요.

마닐라에서 일하셨던 거네요. 남편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때까지 남편은 없었어요.

어떻게 그를 만나셨어요?

그 집에서, 세 명의 아이들을 돌보았어요.

그 집에서 남편을 만났나요?

저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가정부 일이 힘들어서 제 친구가 저에게 소개해 준 일이었어요. “와서 해봐, 디비소리아(Divisoria)에 가자”, “일을 찾으러 가자”. 그리고 우리는 일을 찾았어요. 신발 크기를 고르는 거였어요. 거기서 제 남편을 만났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고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었나요?

음, 우리는 결혼하고서 애를 낳고… 다시 헤어졌어요.

그럼 남편에게 말한 적이 없으신가요?

우리는 헤어졌고 다시 합치지 않았어요. 전 이미 엄마가 되어있었어요.

그럼 한 번도 남편에게 일본 식민지 당시 있던 피해 사실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으신 거네요?

네

자식들이 몇 명인가요?

여섯 명요.

그럼 누가 첫째인가요? 리사인가요?

첫째는 남자아이였어요. 그는 이미 죽었어요. 준준(Junjun)이 막내예요. 그 애를 만난 적 있으시죠?

그럼 리사는…?

둘째예요.

리사가 처음 알게 된 건 이미 당신이 릴라 필리피나에 있었고, 티비에서 보게 됐던거죠.

그녀의 반응이 어땠나요? 리사가 무슨 말을 했어요?

제가 강간당했을 때요?

네, 그거에 대해서요.

리사는 받아들였어요. 거부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몇몇 몰라는 일본군들에게 강간당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거부당했어요. 다른 이들은 본인의 어머니를 인정하고 있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있죠?

Felias²⁴(펠리아스)요.

아... 레메디오스(Remedios)

리사는 일본군이 저에게 그런 일을 했을지라도, 제가 절대로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게 리사가 받아들일 수 있던 이유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원한 적 없어요.

왜 릴라 필리피나에 가게 되었나요?

저는 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밝힌 이유예요. 몰라 로사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겪은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힘들었나요? 경험을 다시 떠올리는 거였잖아요.

일본군에게 강간당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어려웠냐고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야 하고 떠올려야 하잖아요.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힘을 준 것이 무엇이었나요?

계속 싸우는 거요. 우리가 계속 맞서서 싸울 거라는 게 힘이 되어 줘요.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나요? 누군가가 당신의 경험 때문에 당신에게 안 좋은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이웃 중에서요.

없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여기 이미 살고 있었나요? 집에 가셨을 때, 이웃들이 알아보았나요? 사람들이 텔레비전에서 당신을 보지 않았나요? 이웃들이요.

우리가 시위하고 있었을 때, 우린 이미 여기 살고 있었어요.

24) 릴라 필리피나 소속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Remedios Felias (레메디오스 펠리아스)

이웃들이 뭐라고 말했나요?

아무것도요. 그들은 저를 일본군 자파유키(Japayuki)²⁵라고 불렀어요.

당신을 조롱했나요?

단지 그런 것들만 말했어요. 자파유키라고.

농담처럼요? 당신은 뭐라고 답했나요?

그들은 제가 가브리엘라(Gabriela)²⁶로 부터 왔다고 말해요. 그 소속 일원이라고요.

롤라는 뭐라고 반응했나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롤라께서 증언을 하고 밝히고 나서, 스스로 그리고 삶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했나요?

우리가 밖에 나가고, 일할 때 저는 잊을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일하고 또 열심히 하는 이유예요. 잊기 위해 일을 해요.

릴라 필리피나 소속이 되고 나서 삶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우리가 시위했을 때 행복했어요. 우린 낮부터 로톤다(Rotonda)에서 루네타(Luneta)까지 걸었어요. 엄청 더웠음에도요.

웰컴 로톤다에서(Welcome Rotonda)²⁷...?

웰컴 로톤다에서요.

루네타까지요?

웰컴 로톤다에서 루네타까지요. 걸어서요.

25) 1990년대 일본으로 돈을 벌러간 예술인들이 일본에서 매매춘을 했다며 부르는 호칭으로 차별적이고 편견이 담긴 용어

26) 필리핀 개혁, 청렴, 평등, 리더십을 위한 집단 활동을 하는 여성 단체이며 릴라 필리피나 초기 활동을 이끌며 지원하였다.

27) 필리핀 케손시티 내 대리석 기념물이 있는 원형 교차로이며 많은 집회 또는 시위 등이 이루어짐

삶에서 다른 변화는 없었나요? 친구나 동료들을 얻거나 하는거요.

집이 있고, 먹을 게 있고, 할 일이 있는 한 다른 문제는 없어요. 전 옷을 꿰매요. 전 계속 앉아서 일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에게 화를 내요.

한국에 있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요?

다른 국가에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요, 그게 제가 항상 말해오던 거예요. 일본 정부는 그들을 책임을 져야 해요.

이곳 필리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다른 국가에 있는 피해자들을 비교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 한국이 량요.

다른 국가에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더 나아요. 왜냐면 정부가 그들을 지원해주잖아요. 필리핀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르코스 봉봉²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전 그를 지지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지금까지 알기로도, 계엄령 피해자들은 정의를 찾지 못했어요, 맞죠? 리치는 피해자예요. 이나(Ina)도 피해자예요. 그들이 한 짓 때문에 그녀의 아이까지 죽었어요.

어떤 이나를 말씀하시는 거죠?

감옥에 있을 때 출산했던 분 있잖아요.

그녀가 누구죠?

Calendar에서 온 이나요.

여전히 당신은 정의를 찾기 위해 뭔가 말하고, 하기를 원하고 있나요? 정부를 향해서, 대중을 향해서 하실 말이 있나요? 예를 들어, 한국과 필리핀에게요. 또는 일본에게요.

저는 전 세계에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길 일본 정부에 요청해요.

28) 필리핀 제17대 대통령 봉봉 마르코스

여기 필리핀은,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린 희망이 없어요. 우리의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청년들에게는 하실 말씀이 없나요?

전 청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기 필리핀에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돕길 희망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도요. 그들은 우리를 도울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시위를 통해서요.

다른 전하고픈 메시지는 없으신가요?

우리는 또 다른 전쟁이 발생하길 원치 않아요. 만약에 다른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이 또 다른 새로운 세대에게 반복될 거예요. 우린 침략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4) [가족] 딸 리사 디 아틸로 구술 전문

증언자 | Lisa Dy Atillo(큰딸, 66세)

증언일 | 2022.05.20

증언장소 | 롤라의 집(말라본)

참석자 | [한국] 양미강, 이혜미 [필리핀] 샤론 카부사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제 이름은 리사 디 아틸로(Lisa Dy Atillo)입니다. 이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66세입니다.

어머니께서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군의 피해자였다는 것을 언제 처음 알았나요?

시위대에 계신 어머니를 보았어요. 우린 어머니께서 시위하고 계신 걸 봤어요. 그때 어머니가 과거 피해자분 중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그전에는 아무것도 모르셨나요? 어머니께서 그 일을 겪으셨다는 것을 전혀 몰랐나요? 처음 아셨을 때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슬펐어요. 물론 전 일본군들에게 화가 났어요. 전 이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들에게, 그 녀에게, 제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너무 화가 났어요. 당연히 전 너무 슬펐어요. 일본군들에게 화가 나요.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전엔 일본인들을 보면 화가 났어요.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게 되잖아요. 특별히 일본인들을 만나게 되면요. 전 그들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언제 태어나셨나요?

1956년 9월 22일예요.

전에 아버지랑 함께 있을 기회가 있었나요?

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있었어요.

부모님이 함께 계셨나요?

그들은 함께였어요.

부모님의 관계는 어땠나요?

부모님이 헤어지시고 난 뒤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함께하고, 헤어지고, 함께하고. 그사이 우리는 여섯 명의 자녀로 늘었어요.

부모님이 헤어졌음에도요.

부모님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고 다시 헤어졌어요.

따님 의견으로는, 부모님의 관계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전 왜 그러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렸고, 아마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고 말한 뒤로 아버지가 바람둥이여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아는 전부예요.

당신에게, 어머니로서, 에스텔리타가 무엇을 말하고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당신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당신의 어머니로서,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무엇을 당신에게 가르쳤나요? 특별히 당신이 결혼했을 때, 그녀가 뭐라고 했나요?

어머니는 책임감 있고 저와 계속 싸우지 않을 남자를 찾길 원했어요. 왜냐면 어머니는 남편으로부터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제가 가정을 깨는 남편을 만나지 않기를 원했어요. 부모님에게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왔다 갔다 했어요.

어머니가 일본군'위안부'에 대해서 증언했을 때, 함께 있었죠? 릴라 필리피나에서 어머니와 함께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그곳(릴라 필리피나), 소속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를 데리고 갔어요. 우리 둘만요. 제가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었어요.

다른 형제들은 몰랐나요?

네, 몰랐어요. 제가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말했어요.

아때²⁹⁾ 때문이야, 그녀는 나나이³⁰⁾와 함께 시위에 가잖아”

“몰랐어?” 저는 말했어요.

“일본이 점령했을 때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라고 저는 말했어요.

“그게 다 뭘데? 우리가 왜 신경 써야 해?”

“우리 엄마가 일본군들의 피해자라는걸 몰랐어?”라고 제가 말했어요.

“음, 넌 어머니를 믿는구나.”하고 그들이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가서 어머니에게 물어봐. 가서 물어봐”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었어요. 물론 그녀는 슬픔과 싸웠죠.

“일본 식민지 때 어머니가 겪은 일은 참 슬프구나.”

릴라 필리피나에서 그녀가 증언했을 때, 그녀로부터 어떤 변화를 볼 수 있었나요? 당신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왜냐면 물론 슬프셨겠지만…

당연히 저는 슬펐어요. 어머니와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저 자신에게 말했어요. “이게 어머니가 그런 이유야, 어머니와 아버지가 헤어진 이유야. 그녀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를 잘 돌볼 필요가 있어.”

그게 어떤 영향을 당신에게 미쳤나요?

저에게 미친 영향은…당연히 전 극도로 슬펐어요. 그게 저에게 미친 영향이에요.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이요. 물론, 전 슬펐어요. 이걸 마치,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 아시나요? 저는 그걸 씻어내고 잊고 싶었어요. 마음에 품고서 가져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돌봐야 할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릴라 필리피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나요?

제가 받은 영향은, 전 일본인들에게 화가 났어요. 일본인들만 보면 화가 날 것만 같았어요. 그게 저에게 나타난 결과예요.

하지만 그들이 이미 싸우고 있었을 때…

29) 따갈로그어로 ‘누나, 언니’ 등을 의미

30) 따갈로그어로 ‘어머니, 아주머니’를 의미

우린 그때 맞서 싸우고 있었어요, 맞죠? 하지만 우린 받아 마땅한 보상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어머니 삶에서, 어머니가 그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녀 삶에서 차이가 있었나요? 혹시 그녀가 더 활기차졌나요?

어머니가 아버지랑 함께하셨을 때를 생각해보면, 조금은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헤어지고 나서, 어머니는 슬퍼하셨어요. 아마 어머니에게 전에 일어난 일 때문인 것 같아요.

릴라 필리피나에 어머니가 가셨을 때는요?

물론, 어머니는 더 많은 친구를 얻으셨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 어머니는 파티도 하셨어요. 그리고 롤라 하우스³¹⁾에서 패션쇼도 열었어요. 어머니는 활동들에 참여했어요. 춤추고 노래 부르구요. 어머니는 더 행복해 보였어요. 전과는 다르게요.

지금, 어머니 삶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있나요?

현재 우리는 가난해요. 물론 어머니에게 배우자가 없기에 우리 형제들이 보태고 있지만, 안정적이지는 못해요. 우리는 뭔가 얻게 되면 어머니에게 주어요. 어머니에게 음식을 주죠.

어머니가 그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했나요? 그녀가 말하기 전과는 다르게요. 그녀가 릴라 필리피나 소속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녀가 그 소속이 되지 않았다면요?

만약에 그 사실을 혼자 품고 있었다면, 아주 무거운 짐을 어머니 가슴 속 깊이 품고 사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그걸 지워버리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 달라 보였어요.

따님 의견으로는, 필리핀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을 돕기를 희망해요.

어떤 방식으로요?

우리의 세 가지 요구를 충족하는 것을 보장해주길 원해요. 사죄, 역사책에 기록하는 것, 그리고 보상이요.

31)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을 위한 공간

어머니를 지지하고 다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대중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지지해주어야 해요. 왜냐면 일본 식민지를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함께 지지해야 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시위를 계속하고 계속할 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지해주길 원해요 왜냐면 그들은 일본 식민지 때 어땠는지 몰랐기 때문이죠.

어떤 방식으로 지지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들을 도우면서요.

도움을 주면서요? 또 다른 거는요?

금전적인 도움이요. 또는 약품이라도 사주는 거요.

이번엔 가족에 대해 이야기 해 봅시다. 롤라의 정의를 찾기 위해 캠페인을 할 때 가족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가족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롤라의 자녀들은 캠페인을 지원해야 해요. 만약에 거기에 우리 같은 사람이 많다면 우리는 서로서로 도울 수 있어요. 만약에 인원이 많다면, 사람들은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이 가장 바라는 것 또는 가족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어머니가 겪은 일에 대한 정의를 찾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거예요. 정의를 찾길 바라요.

매일 누가 어머니를 돌보나요? 당신인가요?

그녀는 우리 중 누구보다 강해요. 어머니는 밤에 바느질 일을 하시고, 낮에 일어나세요. 그녀가 도착하면, 전 아침을 사드려요. 아침을 드시고, 어머니는 식물에 물을 주세요. 어머니는 여전히 식물에 물을 주고 있어요. 청소도 하시고요. 그리고 10시가 되면 시장에 가시고 점심을 거기서 드세요.

가장 행복했던 때와 슬펐던 때는 언제인가요?

가장 행복한 기억은 어머니가 롤라 하우스에 계실 때,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볼 때예요. 그녀는 다른 분들과 함께 웃어요. 왜냐면 그곳에서는 행사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12월에는요. 전 어머니가 다른 분들과 함께 있으실 때마다 행복한 걸 봤어요. 물론 그들은 대화를 많이 해요. 거기엔 방문객들

도 있어요. 제 가장 슬펐던 기억은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예요... 아프셔서 수술받으셔야 했죠. 우리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보석을 전당포에 잡아놨어요. 어머니의 목걸이와 귀걸이와 모든 것어요. 수술을 위해서 25,000페소(약 60만 원)가 필요했지만 부족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수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약을 처방해주시기로 했고,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녀는 약을 한 달 동안 먹었어요. 우리는 약값을 지불 하기 위해 그녀의 보석을 맡긴 돈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그녀를 위해 조금의 보석은 남겨뒀어요. 그리고 전 안도할 수 있었어요. 전 걱정하고 슬퍼하기를 멈추었어요. 어머니가 마실 수 있는 약을 구했거든요. 신의 은총으로 어머니는 여기 있는 거예요.

아이들과 손자, 손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나요, 그리고 어떻게 어머니와 다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의를 위한 캠페인을 돕기 위해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전 저와 같은 유가족단체 파마나 소속원들이 그들의 부모가 살아계실 동안 부모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들이 가고 나면, 분명히 그들이 죽고 난 뒤에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살아계실 때, 열심히 사랑해 주세요. 그게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같아요.

자식들과 손녀들에게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그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제 아이들, 나의 아이들. 우리는 유가족단체 구성원이에요. 계속해서 싸워서 그래서 제 아이들, 제 손자, 손녀들이 어머니를 위해 계속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의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5) [활동가] 샤론 카부사오 구술 전문

증언자 | Sharon Cabusao (현 릴라 필리피나 대표)
증언일 | 2022.05.22
증언장소 | 릴라 필리피나 사무실 (메트로 마닐라 퀘존시티)
참석자 | [한국] 양미강, 이혜미 [필리핀] 샤론 카부사오

어제 우리는 롤라 에스텔리타(Estelita)의 집을 방문했어요. 얼마나 자주 롤라의 집에 방문하시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해요.

롤라 에스텔리타를 언제 만나셨나요?

저는 2018년 릴라 필리피나의 코디네이터가 되고 나서 롤라 에스텔리타를 만났어요. 그녀는 1990년대에 있었던 일본군‘위안부’ 첫 번째 피해생존자 그룹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전 당시 가브리엘라(Gabriela)³²⁾에만 1995년, 1996년까지 머물렀어요. 전 그때까지 그녀를 못 봤어요. 전 첫 번째 증언 그룹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2018년에 처음 그녀를 보았어요. 그녀는 아주 용감한 여성이었고 놀라울 만큼 체력적으로 아주 강했어요. 여기(릴라 필리피나)에 그녀가 머물 때 그녀를 처음 보았어요. 그녀는 센터의 사무실을 관리하는 롤라 중 한 분이었어요. 조용하지만 아주 열심히 일하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놀랐어요.

그 이후 그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어요. 필리핀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큰 박물관인 Ayala에서 사진 전시회에 참여했을 때였어요. 거기에는 “여성과 전쟁”이라는 전시가 있었어요. 거기엔 필리핀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아주 의미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녀는 포럼의 연설자였고 마이크를 잡고 있었어요. 그게 어땠는지 알겠나요? 당신이 이야기할 때, 입에서 마이크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그녀 입에 더 가까이 대려고 마이크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녀의 힘을 느낄 수 있던 것 같아요. 전 그녀의 손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때 그녀는 일본군들이 그녀에게 한 일에 대해 말하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가까이 가져가려는 제 힘에 저항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그녀가 체력뿐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매우 강한 사람이라는

32) 필리핀 개혁, 청렴, 평등, 리더십을 위한 집단 활동을 하는 여성 단체이며 릴라 필리피나 초기 활동을 이끌어 지원하였다.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마, 그녀에게 일어난 일에 맞서 싸우고 정의를 요구하는 것에서 나온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우리는 릴라 필리피나에서 더 많은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아주 예리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기억력이 좋았어요. 그녀는 우리가 또 다른 피해생존자를 찾을 수 있도록 다른 몰라 집에 동행하며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캠페인 활동의 핵심적인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필리핀의 일본군‘위안부’ 캠페인의 두 번째 바람이라고 부르는 시점이 여기서부터예요. 그녀는 자기 딸 리사(Lisa)와 아주 활발히 활동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피해생존자 그룹을 위한 대변인이예요. 또한, 그녀는 이상적인 세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많은 자질이 있죠. 그리고 그녀는 최근의 시사 이슈들을 분석하는데도 강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정의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 위원회 그리고 비위원회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전 그녀가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을 때 놀랐어요. 그녀는 두테르테(Duterte) 정부를 일본 제국주의의 개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녀가 그 말을 했을 때 놀랐어요. 아마 그녀의 분노가 반영되어서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두테르테 정부가 그들을 지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소녀상을 없애기 위해 비용을 주었기 때문에 그녀는 화가 났을 거예요. 그녀는 소녀상이 제거된 것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을 뺀 거로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정의가 없어요. 우리는 정부로부터 지원이 없어요. 그것(소녀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여전히 그 상징을 제거하는데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요.

롤라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제 생각에 롤라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롤라는 자신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곧 돌아가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당신도 그녀가 나이가 드셨고 더는 전처럼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렇지만 그녀는 아직 모든 것을 끝내지 못했어요. 그녀는 그녀가 요구하고 있는 정도까지의 정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든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까지요. 제 생각에 이게 그녀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되어서 그녀는 그 경험 때문에 시작된 가난을 넘어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녀는 정식으로 어딘가에 취직한 적도 없어요. 학교 교육을 끝내지 못했고요. 그녀는 고등학교도 끝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사교적이지 않았고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집중했어요.

롤라는 아주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지금껏 나이가 들 때까지,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잊기 위해, 적어도 잠시 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였어요. 그게 당신이 여기서 한순간도 그녀를 볼 수 없던 이유예요. 심지어 그녀가 여기 살 때는, 항상 옷이든 뭐든 세탁했고

그렇지 않다면 부엌에서 그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닥이나 다른 곳에서 자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녀는 항상 바빴고, 그게 그녀가 잇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롤라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롤라는 다른 롤라가 여기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춤을 추고 회의하고 가끔 노래 부를 때 행복해해요. 그때가 제가 그녀가 행복하다고 본 유일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다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을 방문할 때도요. 그녀가 다른 롤라 중에, 자신의 친구가 여전히 살아있고 방문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도요. 그리고 가끔 누군가 돌아가셨음을 알게 되면 슬퍼해요. 심지어 로하스(Roxas)에 사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피해생존자에 대해서도요. 그녀는 항상 우리가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정의를 찾지 못했다고 말해요.

필리핀 피해생존자들 사이에서 롤라 에스텔리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녀는 대변자로서 있어요. 그녀는 피해생존자들을 돕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에 있어 아주 좋은 자세로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또한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모임의 상징적인 존재예요. 특히, 그녀를 만났던 청년들 사이에서요. 가끔 그녀는 아주 피곤한데도 청년들이 계속 질문을 해서 토론을 끝내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녀는 여전히 젊은 여성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녀는 요즘도 모든 질문에 답해주려고 더 노력하고 있어요.

다른 피해생존자들과 롤라의 증언에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증언들은 각각 특별한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그녀의 특징은 본인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았고 아주 제한된 방법 속에서도 가정을 꾸리고 삶을 다시 만들어 나갔다는 것이예요. 일부 롤라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몇 명은 절대 결혼하지 않았고, 몇 명은 결혼했죠. 하지만 그들 중 몇몇은 남편과 이별하며 남겨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몇몇은 절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들은 사무실에 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하지만 공개되지 않기를, 언급되지 않기를 부탁해요. 왜냐면 그들은 꽤 괜찮은 가정에서 살아왔고, 사회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지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롤라 에스텔리타는 지속해서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제 생각엔 그녀와 다른 이들과의 차이가 여기서 생기는 것 같아요.

롤라가 가장 원하는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 여전히 정의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과와 보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녀의 이야

기를 젊은이들과 인터뷰하며 이야기해주며 그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포용 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녀는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항상 말해요. 그녀는 필리핀의 개발과 관련해서 중국이 필리핀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걱정해요. 그녀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 걱정한다고 말해요. 이러한 부분이 드러나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속 그녀가 말하는 부분에서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아시죠. 당신도 일본에 억압받은 시기를 경험하셨고요. 그러니 제발 우리 필리핀 장교에게 그러지 말아 주세요. 우리나라에 그러지 말아줘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녀는 서부 필리핀 사건에 대해 라디오에서 듣고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롤라 에스텔리타와 함께한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다른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과 포럼을 열었어요. 그녀는 수요집회에 함께 하기 위해 한국도 갔다 왔어요. 그녀는 항상 일본 대사관 앞에서 우리가 조직한 항의시위에 참여해요.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이 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격당하기 때문이에요. 당시 일본군들과 일본군에게 협력한 필리핀 사람들은 게릴라에게 잡혀 죽었어요. 그래서 연관된 여성들, 일본군들과 함께 있던 여성들은 협동자나 배반자로 의심받았어요. 그래서 그들 또한 죽거나 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일본군‘위안부’를 겪은 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매우 어려운 시간을 가졌던 이유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아주 분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일본에 선택된 사람 중 몇 명은 결국 일본 군인들의 관리인 중 한 명의 동거인(mistress)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봐야 할 것은, 롤라 중 한 분이 말한 것과 같이 이건 전쟁이었어요. 우린 선택권이 없었어요. 우린 잡혀가 강간당했어요. 그녀는 가족을 보기 위해 동거인이 되는 것에 동의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어느 롤라가 동거인이었는지도 잊었어요. 하지만 동거인은 다른 필리핀 여성들의 편의를 봐 달라고 협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은 분명하지 않아요. 전쟁 후 상황을 떠올려보면 될 거예요.

에스텔리타 증언 속 필리핀 여자는 누구인가요?

그녀가 협력자인지 배반자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녀는 일본어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녀는 동거인이나 같은 팀인 거 같아요. 아마, 협력자...그리고 중간관리자 마마상³³⁾(Mamasan)이 있었어요. 그들이 몇 명이 있었고, 어떻게 왔는지는 알 수 없어요.

33) 위안소에서 중간책임 맡은 여성을 의미

6) 생존자 기존증언

원 문 | 『Summary of Circumstances of My Sufferings Lola Estelita Basbano Dy』

진술자 | Estelita Basbano Dy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 자 | 1999.03.29

장 소 | Malabon, Metro Manila

제 이름은 Estelita Basbano Dy입니다. 저는 1930년 4월 28일 탈리사이(Talisay), 네그로스 옥시덴탈(Negros Occidental)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는 Martin Basbano와 제 오빠 두명은 어머니 Castora Bacaro가 작은 가게를 봐주실 동안 큰 농장인 리자르(Lizares)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오남매 중 넷째입니다. 우리는 고속도로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큰 농장 리자르 안 주거단지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땅을 경작하는데 필요한 말과 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만 막 마쳤을 때였습니다.

1942년, 제가 12살이었을 때 일본 군인들이 탈리사이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나무가 우거진 강 근처에 있는 Minuloang으로 대피했습니다.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해 있던 장소에서 1km 정도 떨어진 큰 농장인 리자르에서 일했습니다. Minuloang에 머물 때 우리는 키우던 닭들과 애완동물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제 롤라는 그 가축들을 돌보셨습니다. 가끔, 일본군들이 피난처를 지나갈 때, 우리는 우리 닭과 계란을 그들이 갖고 있던 설탕과 소금으로 물물교환했습니다. 1943년부터 1944년까지 저는 어머니와 바콜로드(Bacolod) 도시 안에 있는 탄굽(Tangub) 항구에서 일했습니다. 농장에서 바콜로드까지, 우리는 일본식 6×6 트럭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한 명당 쌀 0.25kg 정도를 받았습니.

1944년에 어느 날, 우리는 불꽃과 같은 뭔가가 떨어지며 비행하는 미국 비행기를 봤습니다. 그다음 날, 우리는 또다시 미군들이 오고 있으니 항구에서 일을 그만하라는 경고를 하는 미국 비행기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항구에서 일을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미군들이 곧 올 것 같았는지, 일본군들은 매우 잔인해졌습니다. 특히, 게릴라들에게 매복 공격을 당했을 때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서 보이는 모든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1944년 10월에서 11월까지, 저는 물건들을 팔기 위해 시장에 갔습니다. 저는 그 당시 14살이었습니다. 게릴라 소속으로 의심되는 이들은 체포되어서 교회 인근 공설광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뒤 총

검으로 참수된 뒤 우물에 던져졌습니다. 나머지는 살기 위해 도망쳤지만 먼 거리에서도 총을 맞았습니다. 일본 군인들은 탈리사이에 있는 Silay Milling 회사로 데리고 온 여성들을 붙잡았고 탈리사이에 머물던 기지로 데리고 갔습니다. Silay Milling 회사는 탈리사이에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일본군들이 Silay Milling 회사로 데리고 온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단지 안에 있는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기지에 도착하고 한 시간 뒤에, 저는 한 군인에게 강간당했고 뒤이어 다른 군인들에게, 몇 명인지 셀 수 없을 때까지 강간당했습니다. 저는 저항했지만, 머리를 맞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식을 다시 찾았을 때, 주변에 일본군은 없었습니다. 그 집에 있던 여성 중 한 명인 Linda는 일본 군인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하면 다치지 않을 거라고 충고하였습니다. 다음날, 4명의 일본군이 저를 강간하려고 했지만, 제가 여전히 너무 약했기 때문에 린다는 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3일 동안, 저는 첫날 당했던 강간으로 인한 부상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지에서의 셋째 날 일본군들은 제 숙소로 돌아와서 2~3명의 군인이 저를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리의 일본군들도 와서 저를 강간했습니다.

삼 주 동안, 저는 기지에서 일본군들에게 성(性)을 제공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낮에는 집을 청소하고 그들의 옷을 빨았습니다. 밤에는 두 명 혹은 더 많은 일본군이 집에 와서 그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당했습니다. 하루는 탈리사이에 미국 군대가 온다는 경고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일본 군인들은 계속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미군이 왔을 때 기지에는 소수의 일본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Victory Joe”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일본군들에게 잡혔던 사람들은 풀려났습니다. 미군이 Silay Milling중심에 왔을 때 저는 이미 기지 밖에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가족은 제가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온 걸 보고 놀랐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3학년에 입학했고 초등학교를 끝마쳤습니다. 1949년, 저는 비밀을 유지한 채 전쟁에서 있던 일을 잊기 위해 마닐라(Manila)로 갔습니다. 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세탁 일을 했습니다. 1950년에 남편을 만났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996년 4월 11일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축복 가득한 6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1993년 일본군 ‘위안부’ 뉴스를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통해 얻은 주소로 찾아갔고, 릴라 필리피나 소속이 되었습니다.

2. 롤라 힐라리아 부스타만테 (Hilaria Bustamante)

96세, 카비테(Cavite)거주, 롤라 힐라리아로 불림

1) 롤라 힐라리아의 초상

롤라 힐라리아 구술채록 일정이 여러 번 변경되었다. 지난 5월 24일 첫 구술채록 일정이 롤라의 사정에 의해 불발되고 9월 3일에 잡힌 구술채록 일정이 롤라 힐라리아 큰딸의 부상으로 연기되더니 드디어 9월 7일 구술채록이 성사되었다. 캠프 아시아에서 사전에 기초조사를 진행했기에 롤라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현재 롤라 힐라리아는 와병 중이고 의식은 있으나 치매가 진행되어서 본격적인 구술채록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코로나 19 전에는 비교적 건강하셨다는데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었다. 몇 년 전의 낙상사고로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대부분 시간을 침대에서 지내고 계셨다. 연세도 96세가 되시니 어쩌면 건강한 활동 자체가 무리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했다. 예전 사진을 보면 롤라 힐라리아는 어느 집회에도 빠지지 않는 열성적인 생존자였는데 말이다.

카비테로 향하는 도로는 마닐라에서 빠져나가기까지 정말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다. 우들두들 덜 썩거리리며 겨우 고속도로로 빠져나와 거의 2시간 이상 걸려 카비테에 있는 롤라의 집 근처에 도착했다. 롤라의 집은 자동차 도로에서 10분 정도 복잡한 골목을 걸어 들어가야 한다. 좁은 골목에는 유난히 개들이 많다. 낯선 방문자들을 보고 짖어대는 개들의 합창이 주변의 적막을 깨친다. 유일하게 롤라의 집을 알고 있는 유가족단체 파마나의 아페 네니타가 너무 빨리 가는 바람에 그를 놓쳐, 엉뚱한 곳에



〈사진10〉 롤라 힐라리아 집으로 가는 골목길



〈사진11〉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누워 생활하시는 롤라 힐리아

서 해마다 롤라의 집에 도착했다. 생각보다 롤라의 집은 깔끔한 편이었다. 나중에 들으니 거의 쓰러져 가는 집을 대출을 받아 얼마 전에 리모델링 했다고 한다.

롤라가 누워계시는 방은 킁킁했고 습기가 많았다. 침대에 누워 계셔서 기저귀를 사용하는데 주변 환경이 깨끗하지 않았다. 방이 좁다 보니 영상팀이 들어가기도 어려운 환경이었다. 롤라와 인사를 하니 웃음으로 맞아주신다. 롤라 침대에 반쯤 걸쳐 앉아 롤라의 손을 잡고 귀에다가 큰 소리로 대화했다.

“롤라 언제 태어나셨어요?, 이름은 뭐예요?”

“1926년, 97세 힐리아”

롤라는 또렷하게 이름과 태어난 해를 이야기했다. 롤라의 한쪽 다리가 꺾여 있어서 침대에 누워있는 자세가 불편해 보인다. 알고 보니 롤라 다리가 아파 제대로 펴기 어렵다고 한다. 롤라 다리를 계속 주물러 드리고 싶었는데, 만지는 것도 힘들어하신다니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었다.

롤라의 집에는 4대 총 15명의 가족이 함께 산다. 롤라의 딸 테스는 이미 70대 롤라다. 롤라의 유일한 혈육으로 24시간 롤라 힐리아를 보살피고 있고, 오랜 간병으로 지쳐서인지 40kg로도 안될 것 같은 깡마른 몸매를 가지고 있다. 테스의 딸 4명과 손주 9명을 합하면 15명이 함께 살고 있었다. 집안의 주 수입원은 고등학교 선생님인 손녀딸이다. 다른 가족 1명도 일자리가 있긴 하나, 15명의 생계를 충당하기에는 이미 한계치에 달했다. 우리가 찾아간 날, 딸 테스는 손주에게 교복을 입히며 일하러 간 딸을 대신해서 손주를 양육하고 있었다.

롤라의 일상은 어떨지 딸 테스에게 물었다. 롤라는 아침 10시에 침대에서 일어나 식사를 한다. 롤라는 커피를 하루에 너댓잔도 먹을 만큼 좋아하는데, 딸은 어머니가 밥은 안 먹고 커피만 달라고 해서 하루에 한잔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롤라가 일주일에 3번 정도 목욕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진땀을 뺀다. 와상 환자용 침대가 없어서 일으켜 세우는 일이 보통이 아니다.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는데 롤라의 가족들이 하루에 서너장을 갈아야 하는 기저귀 값을 대는 것이 벅차다.



<사진12> 롤라 힐라리아와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양미강(프로젝트 책임자)

롤라는 침대에 누워 건강했을 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 같다. 릴라 필리피나 예전 활동사진에 롤라의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정신이 들 때면 함께했던 동료들을 생각하고 슬퍼진다. 시력이 안 좋은 롤라는 사진첩을 만지작거리다가 사진첩이 해졌다고 한다. 당시가 너무 그리우신 거 같다. 롤라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올드 송을 웬만하면 다 따라부르신다. 그렇게라도 울썩한 마음을 달래고 싶으신 거다.

96세 초고령의 롤라 힐라리아의 꿈은 무엇일까? 건강할 때는 동료들과 함께 캠페인도 하고 롤라 하우스에서 춤도 추고 밥도 먹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 그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쌀과 음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침상에서 생활하는 롤라에게 위생적인 환경도 필요하다.

롤라 힐라리아를 만나고 온 느낌은 착잡 그 자체였다. 그를 둘러싼 환경이 모두 어렵고 힘들다. 구술채록을 하면서 가족사를 보고 들을 때마다 감정이입이 일어나는데, 이럴 때마다 감정 소모가 많아진다. 카비테를 오가는 4시간 내내 덜컹거리는 차량 속에서 힘든 내 몸만큼 내 마음 역시 덜컹거린다.

※ 롤라 힐라리아 증언은 생존자가 와상 중이고 치매가 있어서 정상적인 증언이 어려웠다. 따라서 힐라리아의 기존증언으로 대신하고, 딸과 손녀의 증언을 포함하였다.

2) 생존자 구술 요약

롤라 힐라리아는 1926년 2월 18일에 마닐라 싱가포르에서 태어났다. 롤라 힐라리아의 기존증언에 따르면 1943년 아버지는 그녀를 팜팡가에 있는 사촌의 집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생활했다. 그녀가 16~17살쯤 되었을 때, 일본군 세 명이 헤르모사에 위치한 기지로 그녀를 잡아갔다. 기지에서 1년 2개월 동안 갇혀있었으며 매일 밤 일본군 3명이 그녀를 강간했다.

롤라 힐라리아는 미군들이 왔을 때 탈출하여 가족과 재회하였다. 해방 후에는 미군의 군복을 수선하는 일을 하며 살아왔다. 1949년 Gregorio Talagtag와 결혼하여 아이 세 명을 낳았다. 1972년 남편이 사망하고 이후 어릴 적 남자친구 Adolfo Bustamante와 22년간 함께 살았으며 1994년 두 번째 남편 또한 사망했다. 두 남편에게는 과거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롤라 힐라리아는 친구 Violeta 지지에 힘입어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해 증언하고 릴라 필리피나에 가입하였다. 그녀는 롤라 하우스에 3년 정도 머물다 2017년경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릴라 필리피나 시위에도 열심히 참여했다.

롤라 힐라리아는 릴라 필리피나를 통해 정의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 그녀는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서 일본군들이 죄를 인정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마땅한 보상을 함으로써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가족] 딸 테레시타 마라시간, 손녀 카렌 그레이스 구술 전문

증언자 | Teresita Marasigan(딸, 73세), Karen Grace Marasigan(손녀, 52세)

증언일 | 2022.07.09 (1차) 09.07 (2차)

증언장소 | 롤라의 집(카비테)

참석자 | 1차 [한국] 조부영, 이혜미 [필리핀] 샤론 카부사오

2차 [한국] 양미강, 이혜미 [필리핀] 네니타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성함과 롤라 힐라리아(Hilaria)와의 관계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딸 제 이름은 테리시타 마라시간(Teresita Marasigan)입니다. 피해자 힐라리아 부스타만테(Hilaria Bustamante)의 딸입니다. 현재 73세이고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 카비테(General Mariano Alvarez, Cavite)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손녀 제 이름은 카렌 그레이스 마라시간(Karen Grace Marasigan)입니다. 롤라 힐라리아의 손녀입니다. 테레시타는 제 어머니입니다. 전 52세입니다.

혹시 롤라 힐라리아의 피해 경험에 대해 알고 있나요?

딸 솔직히,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몰라요. 전에 어머니께서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때 저는 “우리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 집을 찾아보죠?”라고 물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내가 돈이 있으니 집을 찾고 가격을 알려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집을 찾았고 어머니는 180,000페소(약 400만 원)를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집을 찾았지만, 우리가 살기엔 작아요”라고 하며 우리에게 맞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우리가 고치면 된다고 하시며 집을 사고 나서, 제 딸에게 돈을 주고 수리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언제 알았나요? 어떻게 그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나요?

딸 우리는 어머니에게 그 돈을 어디서 받았는지 물었어요. 그녀는 릴라 필리피나에서 받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왜 그 돈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언제 알게 된 거죠? 어머니께서 말해주셨나요?

딸 어머니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언제 알게 되셨죠?

딸 제가 어머니와 롤라 하우스를³⁴⁾ 함께 방문했을 때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직도 알지 못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으실 것 같아요.



〈사진13〉 롤라 힐라리아가 노래를 들을 때를 설명하는 손녀 카렌 그레이스와 딸 테레시타

릴라 필리피나를 통해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딸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릴라 필리피나는 피해생존자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언제 릴라 필리피나에 처음 데리고 갔나요? 아직 기억하나요?

딸 기억이 잘 안 나요.

1995년, 1996년도 또는 1994년도였을 거예요

손녀 저는 그때 이미 자녀가 있었어요.

딸 아마 그 애가 이미 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졸업하기 전쯤이었던 거 같아요.

손녀분이요?

손녀 아니요. 제 딸이요. 제 딸은 1995년에 태어났어요. 아마, 2000년... 그때 6학년이었어요.

1995년도에서 12년 지난 2007년? 아니에요. 그녀가 12살이었으니 2002년이었던 것 같아요.

꽤 최근이네요?

손녀 저는 알 방법이 없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릴라 필리피나의 역사에 대해서 직접 읽

34)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을 위한 공간

고 확인하고 롤라의 사진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걸 읽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서 롤라께서 일본으로 갔었던 것도 알 수 있었어요. 마치 만화처럼 읽을 수 있는 그 모든 역사 자료들이 롤라에게 직접 일어난 일이잖아요. 신문도 읽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 피해생존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롤라께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잘 알지 못해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말하길 거부하고 있어요…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손녀 당연히, 우리는 슬프죠. 왜냐면 힐라리아는 나이가 이미 많이 드셨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으셨으니까요. 아마 모든 것을 잊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녀의 힘든 경험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힐라리아는 그녀의 이야기를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손녀 아마 힐라리아는 불운의 사고들을 회상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할머니가 견뎌온 그 고통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거고 그 일들이 부끄럽기도 매우 당황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손자 손녀가 알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힐라리아의 인생은 어땠나요? 결혼을 했었죠? 아버지는 어떠셨고, 결혼생활은 어떠셨나요?

딸 부모님의 결혼생활은 좋았어요. 부모님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셨어요. 아버지가 어디로 발령이 나든 어머니는 함께 하셨어요.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딸 경비였어요. 그것 외에 아버지에게 들은 건 없어요.

형제가 어떻게 되나요?

딸 우린 세 명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몇 째신 거죠…?

딸 제가 첫째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모님은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힐라리아의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딸 어머니는 세탁 일을 하셨고 다른 가족의 옷을 다림질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자식들을 다 키울 수 있었군요?

딸 네.

학교 다니는 게 가능했나요?

딸 고등학교까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나요?

딸 네, 저랑 두 명의 형제까지요. 하지만 우리는 학교를 계속 다닐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직업을 찾기 시작했어요.

롤라는 그 후 재혼을 하셨나요?

딸 네, 어머니는 재혼하셨어요. 새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어머니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어요.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새아버지 또한 우리를 친자식처럼 대해주셨어요.

새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딸 회사 운전기사였어요.

롤라 힐라리아가 릴라 필리피나에 왔을 때,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이 죽고 난 이후였나요?

딸 그녀가 집으로 왔을 때, 새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지 꽤 지난 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결혼생활을 위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릴라 필리피나에 왔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피해 경험에 대해 알게 된 후에 어머니에게 물어보려고 했었나요?

딸 아뇨 우린 안 그랬어요.

손녀 사실, 전 물어봤어요. “롤라, 왜 그런 일이 있었나요?”라고요. 하지만 대답하지 않으셨고 비밀로 하셨어요. 롤라 혼자만 알고 있길 원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어머니와 같은 집에 살고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느끼시나요? 어머니에게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것 같나요? 릴라 필리피나를 소개받은 후 뭔가 달라진 것 같나요? 먼저, 어머니에게 변화가 있는지 말해주세요.

딸 일단 저는 특별한 차이를 보진 못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릴라 필리피나에 가입한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녀 안에 있던 무언가를 해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손녀 롤라가 릴라 필리피나에 머무실 때마다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기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릴라 필리피나에 가입하는 것을 통해 정의를 찾을 수 있다고 믿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롤라 힐라리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손녀 아마도, 그들에게 정의를 찾아주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피해 경험에 대한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

딸 보상 ...

손녀 단지 돈을 달라는 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죄를 인정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두 분은 필리핀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손녀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찾기 위해 피해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덧붙일 말이 있나요?

딸 없어요.

일반 필리핀 시민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손녀 필리핀 시민들이요?

필리핀 사회요. 우리 필리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손녀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딸 적어도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해요.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없어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두 분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가족으로써 바라는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 어려움이 해결되길 원하나요? 그리고 필리핀 사람에게 전하고픈 메시지가 있나요?

손녀 필리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울 권리를 주길 원해요. 단지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신념을 위해 싸울 권리가 주어져야 마땅해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학대당하면 안 돼요.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딸 없습니다.

딸과 손녀분은 유가족단체 파마나에 소속돼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두 분은 유가족단체에 소속돼 있나요?

딸 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머니가 릴라 필리피나 소속이면 가족들도 자동으로 유가족단체 소속이 된다고 들었어요.

유가족단체의 어떤 활동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딸 어머니를 릴라 필리피나에 모시고 함께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특정한 활동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어머니에게 항상 시위할 때 앞에 서지 말라고 했어요. 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곤 했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나이가 드셨지만, 시위대 앞으로 가려고 하셨거든요. 다치셨을 수도 있었어요. 심지어 티비에서 제 아이들이 어머니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티비를 보고 롤라가 시위대 앞에 서 있다고 저에게 말해줄 정도였어요.

어머니에게 치매가 오기 시작했을 때, 어땠는지요.

롤라 힐라리아가 치매를 겪기 시작했을 때, 증세가 어땠고 언제 시작되었나요?

손녀 꽤 최근에 시작되었어요. 아마 2년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딸 네 맞아요.

손녀 되게 최근이에요. 롤라 나이가 96세가 되고 잇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더 자주 잊어버려요. 없는 게 보이신다고 하시고 ...

코로나 19가 시작되고 나서인가요?

손녀 네, 이제 롤라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요. 심지어 방에 혼자 있을 때, 가끔 “너는 밥을 먹어야 해. 난 누군가와 같이 있어 같이 먹자, 음식이 여기 있어”라고 이야기해요.

딸 가끔 어머니는 “여기에 와서, 같이 먹자”라고 말씀하세요.

손녀 아마 롤라가 함께 있었던 분들을 보는 것 같아요. 이름은 모르겠지만, 다른 롤라들 같아요.

롤라 힐라리아가 릴라 필리피나에 머물렀을 때 매일 밤 다른 생존피해자분들과 대화와 교류가 있었어요.

손녀 가능하다면 롤라도 거기서 머물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건강 상태가 안 좋으셔서 불가능하지만요.

롤라 힐라리아는 거기 살았어요(릴라 필리피나).

손녀 롤라는 거기 꽤 오랜 시간 머물렀어요.

거기 얼마나 머물렀었죠?

손녀 꽤 길었어요.

거의 3년 정도?

딸 그런 것 같아요.

아마 3년 정도 에스텔리타(Estelita)와 같이 있었을 거예요. 말라본(Malabon)에서 인터뷰한 다른 피해생존자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분은 누구셨죠?

그녀가 이사하고 집을 관리하기 전 즈음 ...

그녀는 거기 머물렀어요.

3년 정도였나요?

네. 3년 동안이요. 새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롤라는 어디 살았나요?

딸 만달루용(Mandaluyoug)에 살았었어요.

그녀는 그녀가 빌린 집에서 살았어요. 그녀가 언제 릴라 필리피나로 이사했죠?

손녀 당시에 우리가 롤라 댁에 방문하면 가끔 집에 없으셨어요. 그때 릴라 필리피나에 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가끔 우리가 도시에 방문해서 롤라에게 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롤라 집을 갔다가 이웃집에 방문했을 때 그녀가 집에 없다고 알려줬어요. 아마 거기(릴라 필리피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밖에 갈 곳이 없으셨거든요. “왜 집에 안 계셨나요?”라고 물으면 롤라는 릴라 필리피나에 갔다고 말했어요.

여기로는 언제 이사하셨나요?

손녀 롤라는 집에 다시 ...

아마 2017년쯤이었던 거 같아요. 리치(Richie)가 2017년에 아팠고 다른 롤라들을 사무실에서 이동시켜야겠다고 결정했을 때였어요. 리치는 힐라리아가 여기로 올 수 있는 이동 수단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또 힐라리아가 거기에 있었을 때 사고도 있었거든요. 사고까진 아니지만,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지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롤라 에스텔리타와 힐라리아는 항상 다투었어요. 어느 날 밤은, 저도 거기 있던 건 아니기에 모르지만 힐라리아가 넘어졌었고 바닥에 앉아서 일어날 수 없으셨데요. 힐라리아는 다른 롤라들과 선풍기 같은 거로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그들 사이에 일어났었죠. 그때 이미 나이가 드신 리치가 다른 롤라

들을 가족에게로 보내야 할 때라고 결정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에는 항상 누구에게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들은 각자 같은 일에,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힐라리아 증언에 대해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그녀에게는 바이올레타(Violeta) 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딸&손녀 바이올레타요?

네? 그녀가 누굴 ...

친구요. 그녀는 바이올레타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두 명의 ... 그녀의 증언을 지지하는 ... 친구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바이올레타? 우리가 아는 바이올레타는 마낭(Manang)³⁵⁾

맞죠? 다른 롤라인 것 같은데요? 바이올레타 렌사로테(Violeta Lansarote) 말이에요.

어머니의 ...

아 알았어요. 왜 그녀를 이야기 한 거죠?

바이올레타는 음 ... 다른 롤라예요. 그녀는 힐라리아가 증언하도록 지지해주었어요.

아 바이올레타는 힐라리아가 증언하고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도와주었군요. 따님과 손녀분은 그분을 아나요?

만난 적이 있나요?

손녀 저는 그분을 몰라요.

무엇을 물어보고 싶은거죠? 바이올레타를 만났었나요?

전 그냥 그들이 바이올레타를 아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

두 분이 만날 수 있었던 다른 롤라가 있었나요? 그리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나요?

딸 롤라 에스텔리타요.

아 롤라 에스텔리타요?

딸 하지만 그녀를 제외하고 다른 롤라는 기억 나지 않아요.

손녀 어머니만 릴라 필리피나에 가서서 저는 몰라요.

이제 두 분 다 힐라리아를 보살피고 계시군요...



<사진14> 현장을 촬영하는 영상팀

35) 따갈로그어로 나이가 많은 여성, 아줌마 등의 의미

혹시 건강문제는 없나요?

롤라 힐라리아 아니면 따님과 손녀 말씀이신가요?

롤라 말이에요.

힐라리아에게 현재 어떤 질병이나 건강의 문제가 있나요?

딸 없어요.

손녀 딱히 다른 질병은 없어요. 단지 가끔 투정을 부리시거나 까먹으실 때가 있죠. 롤라는 전에 넘어지고 나신 뒤로 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고 불평을 하세요.

하지만 최근까지, 힐라리아는 스스로 걷고 씻는 게 가능하셨던 것 같은데요?

손녀 아니요. 우리가 롤라를 들어서 옮겨드려요. 매번 롤라는 목욕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밖으로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해요. 화장실을 쓸 수 없어서요. 하지만 이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어머니가 드시는 양이 많아졌어요.

손녀 왜냐하면 전에는 한두 손가락밖에 드시질 않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롤라에게 밥을 드릴 때마다, 양이 얼마나 되든 간에 그 음식을 다 드세요. 보통 사람들이 평소에 먹는 양을 다 드실 수 있어요. 심지어 주무시는 중에도요. 눈이 감겨있을 때도 옆에 음식을 두면, 롤라는 노란색 음식 보관함을 확인해요. 거기에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딸 심지어 한밤중에도요.

손녀 심지어 눈을 감고서 드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롤라에게서 가져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한번은 기저귀를 음식이라고 착각해서 잘게 조각을 낸 적이 있거든요.

딸 네 맞아요. 어머니가 기저귀를 찢은 적이 있어요. 음식으로 착각하고 그걸 열어버리셨거든요.

손녀 롤라 힐라리아는 앞을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옆에 음식을 잘 놔두어야 해요. 롤라는 항상 본인 옆에 있는 음식 보관함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를 채우기 위해 오후마다 장을 봐요. 롤라는 드시고 싶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과일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죠, 맞나요?

손녀 네, 바나나, 과자, 또는 빵이요. 뭐든 잘 드세요.

딸 가리시는 것 없이 ...

4) 생존자 기존증언

원 문 | 『War Crimes on Aisan Women』 (2) 58~59p

번역본 | 『침묵을 깨다, 역사를 열다』 67~69p

진술자 | Hilaria Bustamante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 자 | 1998(원본), 2021(번역본)

나는 Hilaria Bustamante입니다. 마닐라 싱가포르에서 1926년 2월 18일에 태어났습니다. 전쟁과 필리핀 일제강점기 당시 인트라무로스에서 증명서(지방세 증서)를 판매했습니다. 이 증명서는 마닐라를 드나들 때 통행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후 1942년부터 마카티에서 일본군복을 수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후 계속 싱가포르에 머물렀습니다.

1943년 아버지는 팜팡가에 있는 우리 집으로 나를 데려가셨고, 바탄 헤르모사에서 아버지의 사촌들과 지냈습니다. 수확기였기 때문에 농장 일을 거들어야 했습니다. 당시 16~17살쯤 되었습니다. 농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일본군 세 명이 나를 보고 헤르모사에 위치한 그들의 기지로 잡아갔습니다. 그 곳은 내가 있던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6시경 나에게 위협적으로 말을 했고, 일본군 기지에 도착한 것은 한 시간 정도 지나서였습니다. 그 후 그곳에 구금되었던 세 명의 여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른 세 명은 17살에서 20살 사이였고, 그 중에선 내가 가장 어렸습니다.

매일 밤 일본 군인들이 우리를 강간했습니다. 그들은 보통 8시경에 왔고, 약 세 명이 매일 밤 나를 강간했습니다. 낮에는 우리는 군인들의 옷을 세탁하고 음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가시철조망이 기지에 둘러져 있어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근처 검문소에 보초가 지키고 있어서 도망가기 어려웠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그 기지에서 지냈습니다. 미국인들이 왔을 때 비로소 기지를 벗어날 수 있었고 보초를 서던 Makapili가 도망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곧장 아버지의 사촌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강간당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성노예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방되자 아버지는 나를 마닐라에 있는 가족에게 데려갔고, 그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으셨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나는 인트라무로스에서 미국인의 옷을 세탁하는 일을 했습니다. 카무닝에 창고가 생기고 나서 그곳에서 미군의 군복을 수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1949년 Gregorio Talagtag과 결혼했으나 전쟁 중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세 명을 낳았고,

남편은 1972년 사망했습니다. 그 후 나는 어릴 적 남자친구인 Adolfo Bustamante와 지내면서 만달루 용에 살았습니다. 내 과거가 수치스러워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22년간 함께했고, 그는 1994년 8월 6일에 사망했습니다.

제 친구인 Violeta 역시 생존자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내가 전쟁 중 성노예로 겪은 경험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습니다.

3. 롤라 나르시사 클라베리아

(Narcisa Claveria)

93세, 안티폴로(Antipolo) 거주, 롤라 나르시사 또는 시사(Cisa)로 불림

1) 롤라 나르시사의 초상

9월 들어 롤라 나르시사를 세 번 만날 기회가 있었다. 안티폴로에서 사시는 롤라는 언제나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를 맞아준다. 93세의 연세에도 3층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진 롤라, 긴 머리를 고무줄로 묶고 입고 계신 편한 꽃무늬 원피스가 인상적이다. 코로나 19 시절 워낙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기에, 유난히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롤라는 외부의 방문을 즐거워하셨다.

릴라 필리피나가 있는 마닐라 퀘존시티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안티폴로, 롤라가 76년부터 사는 이



<사진15> 반갑게 손님을 맞이하는 롤라 나르시사



〈사진16〉 롤라 나르시사 집으로 가는 길

곳은 시장과 가까운 3층짜리 건물이 다. 1층은 가게 세우고, 2층은 딸이 살고, 3층에 95세 치매가 있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큰 딸네 가족과 손녀 등 총 8명이 롤라와 함께 산다. 두 딸 Marlaene과 Dory의 집도 근처에 있다. 큰딸은 장례 관련한 직장 일로 바쁘지만 롤라의 열렬한 지원자이다. 남편 역시 롤라가 과거 피해로 인해 겪은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도록 해주었고, 증언을 망설일 때 도와준 적극 지지자이다.

이 정도 가족 구성원이면 롤라 나르시사의 정서적 지지망은 꽤 튼튼한 편이다.

롤라의 생활공간인 3층은 넓직한 테라스가 있어서 코로나 19 때 울적한 마음을 달래려고 시작한 화초 키우기가 거의 작은 나르시사 정원이 되었다. 롤라의 손길이 가지 않은 화초가 없을 정도로 나르시사 정원은 다양하고 큼직하고 화려하다. 화초 덕분에 코로나 19 시절을 잘 견딜 수 있었다는 롤라, 화초와 대화하는 것이 매우 즐거웠다고 한다.

“롤라, 화초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말이 기쁘셨는지 일일이 화초의 내력을 설명하신다.

증언팀은 화초들 사이에 포토존을 만들어 롤라와 사진을 열심히 찍었다.

롤라와의 구술을 위해 3층 테라스에 자리를 잡았다. 증언팀이 준비한 빨간색 파우치를 선물로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신다. 화려한 색을 좋아하시는지 파우치를 여기저기 살펴보고 만족해하니 드리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흐뭇하다.

롤라의 구술이 시작되었다. 롤라에게 증언은 익숙한 일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기억을 되집어낸다는게 힘든 거 같다. 증언하면서 순간순간 롤라의 감정이 폭발쳐 오른다. 특히 롤라 나르시사 증언은 좀 특별하다. 일본군 점령 당시 아버지의 잔인한 죽음, 딸 3명 모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되었고, 큰 언니와의 이별과 시장에서 재회 등 남다른 가족사를 이야기할 때 몇 번의 눈물을 흘렸고 그때마다 증언팀은 같이 울었다.

롤라는 일본군 성폭력 피해 때문에 남자와 사귀는 것을 꺼렸는데, 동네 친구였던 남편이 말없이 지지하고 응원해서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결혼하기 전에 남편에게 과거 피해 사실을 말했고, 남편은 이를 알고도 기꺼이 받아주었다. 오늘의 롤라를 만들게 된 원동력이 바로 가족이었다고 힘주어 말한다. 딸 조시의 구술이 이어졌다. 딸이 바라본 어머니에 대해 “어머니가 존경스럽다. 어머니가 정의를 요구하시니 우리도 요구한다”고 말한다.

롤라의 일상은 늘 새벽 4시경에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녀의 정원을 가꾸고 늘 즐겨 먹는 오크라 요리를 위해 시장에 나가기도 한다. 건강한 덕에 아직도 남편을 위해 음식을 하고 함께 먹는다. 오후가 되면 일주일 세 번은 밀라(Mila)집을 간다. 밀라는 파마나 멤버로 필라 필리피나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그를 만나면 밀라가 하는 일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 같았으면 롤라 하우스에 수시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곤 했겠지만, 코로나 19 때문에 가지 않은 지 꽤 오래되었다. 밀라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돌아가는 사정을 알 수 있어서 그나마 속이 시원하다.

롤라는 구술이 끝나고 기분이 좋은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시 낭송을 했다. 시 낭송은 코로나 19 전에 롤라 하우스에서 모여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배웠다. 아직도 또렷하게 암송하는 롤라에게서 어떤 경외감마저 든다. 92세의 나이에 저렇게 암송할 수 있다니 신기하다. 롤라 나르시사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만날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족의 강한 유대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래서 먼저 죽은 둘째 딸을 생각할 때마다 슬퍼진다. 아이를 지키지 못 해줬다는 죄책감이 들기 때문이다.

롤라를 다시 만난 건 9월 17일 로사 헨슨 증언 30주년 기념 행사였다. 여전히 유쾌하시고 기자들의 질문이나 청소년들의 질문에 귀를 쫓긋하며 경청하고 대답을 한다. 그리고 함박웃음으로 행복감을 표시한다. 롤라 나르시사가 행복할 때는 젊은 세대들에게 둘러싸여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그들로부터 지지받을 때인 거 같아 보인다.



롤라 나르시사는 다른 생존자들보다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자녀들 모두 먹고 살만큼의 여유는 있어서 롤라에게 기대지 않는 거 같다. 롤라도 건강해서 전적으로 딸의 부양을 받아야 할 처지가 아니다. 몇 번 롤라를 만날 때마다 딸 조시가 늘 간식을 제공한다. 칼라만시 주스와 과자가 유독 맛있었던 것은 구술 후 출출함과 함께 외부 방문객을 환대해주는 훈훈함 때문이다. 정서적이고 경제적인 안정감이야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낀다.



〈사진17〉 롤라 나르시사와 딸 조세핀 그리고 구술채록 팀

2) 생존자 구술 요약

롤라 나르시사는 1931년 12월 23일 필리핀 산후안 아브라에서 8남매의 딸로 태어났다. 1942년 일본 군인들은 그녀가 거주하던 마을에 와 마을의 이장이었던 그녀의 아버지에게 몇 가지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 후 일본군들은 그녀의 가족을 죽이고 그녀를 포함한 3명의 자매를 일본군 기지로 붙잡아갔다.

롤라 나르시사는 3개월 동안 기지에 갇혀있었다. 미군 공습이 시작되었을 때 그녀는 에메테리아와 탈출하여 집에 돌아왔다. 이후 힘겨워하는 자신을 보고 함께 응원해주는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롤라 나르시사는 로사 핸슨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해 최초 증언하는 것을 계기로 증언 하였다. 그 후 릴라 필리피나와 함께 일본군‘위안부’ 피해 시위를 할 때 기적적으로 언니인 에스텔라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

롤라 나르시사는 사람들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고통이 사람들의 응원을 통해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그녀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필리핀 시민들이 함께 지지해주길 부탁하고 있다.

3) 생존자 구술 전문

증언자 | Narcisa Claveria (91세)

증언일 | 2022.09.20

증언장소 | 롤라의 집 (메트로 마닐라 안티폴로)

참석자 | [한국] 양미강, 이혜미 [필리핀] 클라이델 조르시오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나르시사 클라베리아(Narcisa Claveria)입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모르겠네요. 태어난 건 1931년 12월 23일입니다.

1931년 12월 23일에 태어나셨군요. 지난 토요일에 저희가 개최한 행사에 참여하시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저는 여전히 우리의 싸움에 공감하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사진18〉 추억이 담긴 앨범을 보는 양미강(프로젝트 책임자)과 롤라 나르시사

지금은 어떤가요?

전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어요. 저는 지을 수 없어요. 하지만 줄어 들고 있어요.

롤라의 경험이 무겁게 느껴지나요?

네.

저희가 드린 라디오나 앨범 보고 계세요?

네, 저는 가끔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가요?

저는 노래 부를 때 참 즐거워요.

앨범은 어떠세요? 항상 앨범을 보시나요?

네, 저는 항상 그걸 보고 있어요. 저는 아직 다른 앨범에 제 사진들을 넣지 못했어요.

롤라는 릴라 필리피나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나요? 그리고 위안부 여성임을 밝히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그 당시에는 롤라 로사 헨슨(Rosa Henson)이 있었어요. 그녀가 최초였어요. 저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악의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라디오 방송을 들었어요.

롤라 로사 헨슨에 대해 어떤 것들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롤라 로사 헨슨에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녀는 우리가 일본 군인들을 향한 증오심 그리고 그들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우리에게 했던 폭력에 대한 증오심을 해소하고 풀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어요. 이전에 저는 자녀들 때문에 밝히고 싶지 않았어요. 제 아이들이 “내 엄마는 매춘부야(whore)”라는 식으로 생각할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 매우 고민하였고 힘들었어요. 제 남편이 말했어요 “만약에 그게 너의 선택이라면, 나는 당신을 지지 할거야” 라고요. 그게 제 남편이 저에게 해준 말이에요.

롤라 로사 헨슨과 함께 일을 하셨나요? 롤라 로사와 함께 경험한 것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네, 그녀는 우리와 같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 롤라 로사와 함께 있었나요?

사무실에 같이 있었어요. 가끔 우리는 활동을 했어요.

롤라 로사는 시위하는 동안에도 함께 있었나요?

네, 롤라 로사 헨슨은 우리와 함께 했어요.

어떤 활동들을 함께 하였나요? 롤라 로사 헨슨이 후에 밝히려 나왔을 때요.

우리는 다양한 장소들을 가고, 회의하고, 시위도 했어요.

당신이 피해생존자임을 공개하며 밝혔을 때, 가족들의 상황은 어땠나요? 당신이 일본군‘위안부’ 생존자임을 밝혔을 때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남편이 말한 것이 사실이였어요, 숨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 남편은 저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큰 소리로 말해야 하고 그래야 제 고통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미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일본군들이 우리에게 한 것에 대해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제 남편이 없었

더라면, 아마 저는 지금 미쳤을 거예요. 저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어떻게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셨나요? 남편에게 바로 일본군 점령 당시의 경험에 대해 말했나요?

그 당시 그는 이미 제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미쳐가고 있는걸요. 그는 제 형제에게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물었어요. 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본군들에게 죽었기 때문이었어요. 제 오빠는 제가 일본군 기지에 오래 있었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 라고 제 오빠는 그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남편을 만나게 되셨나요?

제 남편은 아브라(Abra)에서 왔어요. 저도 아브라에서 왔고요. 하지만 그들은 지역 앞쪽에 있었고 우리 지역은 더 뒤쪽에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두 분이 만났나요? 어떻게 서로를 알게 되셨나요? 아브라에서 만났나요?

네, 그는 갑자기 울음이 터져 울고 있는 저를 본 적이 있어요. 옛날 그 당시, 일본군들은 농부들이 밭을 갈기 위해 사용하는 물소를 찾고 있었어요. 우리는 농부들이었어요. 그는 물소들이 없어서 우리가 있는 아브라의 끝까지 와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물소들을 찾고 있었어요. 그는 우리의 상황을 보았어요, 우리가 남자들을 보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요. 그들은 저희가 뒤로 숨는 이유를 물었어요. 오빠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들이 우리를 잡아갔었다고 말했어요. 그게 그 남자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라고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미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나요?

제 남편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이 여성들은 불쌍해요. 왜 이렇게 되어야 하죠?” 그게 제 남편이 그의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맞아, 그들은 참 불쌍해,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들에게 학대를 당했다니.” “그들이 필요한 건 위로야” 그 상황을 슬퍼했던 제 남편은 우리를 소개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두려웠어요. 그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며 “우리는 일본군들이 아니야, 우리는 필리핀인이야”라고 했어요. 우리는 마침내 친구가 되었어요.

당신이 남편을 만나기 전에 미쳐가고 있는 것 같이 느꼈다고 말했잖아요. 그때 어떤 것들을 느꼈나요?

그를 만나기 전예요? 저는 그때 겁에 질려 있었어요. 저는 남자들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제 친구는 “두려워 하지만, 그들은 필리핀 친구들이야. 그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어”라고 말했어요.

롤라, 제2차 세계대전 때 가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일본군'위안부'피해가 있기 전예요. 아버지에게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요.

전에, 저는 공개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저를 매춘부라 부를지도 몰라요.

전 당신의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제 부모님들은 일본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네, 그 이야기에 대해 말해주세요.

제 아버지는 그 당시 우리 이웃들의 마을 이장이었어요. 일본군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왔을 때,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일본군들은 집들을 훑쳐보며 사람들이 있는지 봤어요. 그 당시 이미 일본군들이 폭력을 가했기 때문에 숨어있던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들은 숨어있었어요. 일본군들은 이웃들에게 그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있었어요. 이웃들은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그때 남성들은 일본군들이 자신들을 게릴라로 생각해서 잡아갈 거라 생각해 숨어있었어요. 그들은 마을의 이장이 누구인지 물었어요. 물론, 그들은 제 아버지를 가리켰어요. 그들이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통역가는 일본군들의 목적은 이 마을 주민들이 왜 이런지 물어보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제 아버지는 그들에게 답해주기로 동의했어요. 통역을 위해 고용된 필리핀인은, “자 그럼, 저 집에 살던 가족은 어디 있나요?”라고 물었어요. 제 아버지는 답했어요, “저도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뭔가 먹기 위해 쌀을 농사짓는 밭이나 물고기를 잡는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본군들은 사라진 사람들을 찾도록 명령했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를 포함한 사람들은 그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찾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일본군들이 잔인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숨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우리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물었어요 “몇 명의 자녀들이 있어?”라고요. “8명입니다.”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줄을 서라고 했어요. 그들이 물었어요 “남자들이 몇 명이니?” “2명이 남자예요.” 제 아버지가 답했어요. 우리는 줄을 섰어요. 그들은 우리를 세고 있었어요. 그때 제 언니는 고모와 마닐라(Manila)에 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7명이었어요. 일본인들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만약 그들이 무언가를 원하면, 그들은 무조건 원하는 걸 가져야 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계속 섰어요. 하지만 거기엔 7명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다시, 제 언니는 고모와 마닐라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제 아버지의 유일한 죄였어요, 일본인들은 지속해서 우리가 8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거기에는 7명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언니가 마닐라에 있는 고모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 후에, 일본군이 무엇을 했나요?

일본군이 말했어요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8명의 자녀가 있다고 말했지, 하지만 7명밖에 없네”

6명은 자매들이었나요?

네.

아버지가 거짓말쟁이라 불리고.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들은 제 아빠의 손을 뒤로 묶었어요. 그들은 그를 데리고 계단 아래로 내려갔어요. 우리 집 기둥은 아주 거대했거든요, 큰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곳에 제 아버지를 묶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 기억들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간단히 설명해볼게요. 그들은 제 아버지의 피부를 벗겼어요. “우리에게 거짓말 하지마” 일본군들이 말했어요. “아니, 나는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난 진실만을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답했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했어요” 애들아, 여보, 나는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그는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에메테리아(Emeteria), 에스메냐(Esmena), 저 까지요. 우리는 이미 피를 흘리고 있는 우리 아버지를 덮으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본군들은 우리를 아버지로부터 떼어놓았어요. 그들은 우리를 당기고, 아버지로부터 떼어놓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아브라에 있는 기지로 데리고 가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아버지가 애원하고 있는 소리를 들려요. “애들아, 여보, 나를 도와줘.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라고요. 그게 아버지로부터 제가 들은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후에, 우리는 다른 지역을 향해 걷고 있었어요. 우리가 산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우리의 도시가 불길에 휩싸였어요. 제가 아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제 남매들이 불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지에서 풀려났을 때, 우리는 그들의 뼈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없어졌어요. 옛날에 큰 기둥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기둥들만 남아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제 팔을 보세요. 일본군들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에게 있었던 일은 너무 힘겨웠어요. 우리가 너무 어렸음에도 전쟁 때문에 그 고통을 겪었어요.

롤라 에스텔라를 제외하고 몇 명이 화재에 휩싸였나요? 몇 명이 기지로 끌려왔나요? 얼마나 많은 남매가 있었나요?

우리는 세 명이었어요.

일본군들로부터 탈출했을 때, 기지를 떠났을 때, 어디로 갔나요?

저는 제 언니 에메테리아를 우리 마을까지 끌고 갔어요. 에스메냐는... 저는 그녀를 다시 보지 못했어요. 전쟁이 끝나고부터 지금까지요. 그녀는 없어졌고, 사라졌어요. 에메테리아는 제가 되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자매였고 에메테리아 역시 일본군들이 저지른 일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미칠 위기에 처했었어요. 만약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저는 그 어둠을 멈췄을 거예요, 밤이 오는걸요. 어두워지면, 강간범들이, 다른 남자들이, 다른 일본군들이 왔기 때문이에요.

다시 돌아간 마을이 아브라에 있었나요?

(고개를 끄덕임)

어디로 갔나요? 당신과 에메테리아는 어디로 갔나요?

우리 마을로요, 발린톡(Balintog), 산후안(San Juan), 아브라요.

밤에는 어디 머물렀나요, 또는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쌀자루들을 모았어요. 우리는 집도 없었거든요. 우리가 잠을 자기 위해 깔았던 매트는 바나나 잎들이었어요. 우리의 담요는 바나나 잎들이었어요.

증언이나 이야기를 할 때, 군중에게 말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당신이 해야 할 말의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고통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청춘을 즐길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전 세계에 공개할 용기가 있습니다. 참고 견디기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청춘 시절을 즐길 기회는 없었어요.

당신은 그것에 대해 말해야 할 때마다 무엇을 느끼나요? 말할 때 그 일이 있었던 때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느끼는 것과 경험했던 모든 것을 증언하며 공유할 때마다 고통이 줄어드나요?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비극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저는 어릴 때 겪게 되는 전쟁은 힘들다고 말해요. 너무 어린아이가 겪지 말아야 할 것을 겪었어요. 저는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부럽고 그렇기때문에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말해요. 어렸을 때 이를 경험했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전에 남자들이 무서웠다고 말했잖아요. 어떻게 관점이 바뀌셨나요? 어떻게 남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극복

하셨나요?

조금씩이요, 큰오빠가 조언해주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빛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 무서워 하지마” “그는 우리의 동맹자야” 또, 남편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그와 친구가 되어줘” 오빠가 말했어요. “그는 친절해. 그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만 해줘”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전쟁을 일으킨 상처가 치유되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상처가 단지 줄어들 뿐이에요. 저는 항상 깜짝 놀라곤 해요. 특히 경호원에게 잡히면요.

쉽게 놀라는 편이세요?

네, 저는 대부분 깜짝 놀라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롤라가 일본군'위안부'로 끌려 갔을 때, 언니인 롤라 에스텔라는 고모와 마닐라에 있었죠?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었나요?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두 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함께 공유한 이야기들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멘디올라(Mendiola)거리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시위했어요. 우리는 몇몇 시위들을 멘디올라쪽에서 가졌지만, 저는 주변에 환경에 친숙하지 않았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했을 때, “마리아(Maria), 화장실을 급히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되죠?”라고 물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어디를 화장실로 쓸 수 있죠? 운하로 가나요? 저도 화장실을 정말 가고 싶은데요”. 누군가가 우리 얘기를 듣고 그곳에서 불일을 보지 말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사람은 우리에게 화장실이 Wet 시장에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근처였어요. 저는 그녀에게 우리가 거기로 가서 화장실을 쓰자고 말했어요. 우리는 Wet 시장에 갔고 거기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하지만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근처에 채소 가게가 있었어요. 저는 누군가를 보고 놀랐어요. 제 언니인 에스텔라가 우리를 떠났을 때 그녀는 어렸었죠, 제 언니 에스텔라가 어릴 때였어요. 저는 그녀가 제 언니인 것 같았어요. 화장실을 가서 전 생각했어요. ‘그녀가 정말 내 언니일까? 그녀가 정말 내 언니 에스텔라일까?’ 저는 제 직감을 따르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왔고, 마리아가 말했어요. “가자 나르시사, 우리 없이 그들이 갔을지도 몰라” “아니, 그들은 우리를 기다릴 거야. 오래 걸리지 않을거야. 저쪽으로만 가면 돼”라고 제가 말했어요. “자, 가자, 그들은 우리 없이 떠날 거야” 마리아가 돌아가자고 재촉했어요. “그러라고 해, 그들은 인원수를 세니까 우리를 기다려 줄 거야” 제가 말했어요.

저는 언니에게 돌아가서 물었어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요.

“왜 제 이름을 물어보죠? 저는 에스텔라예요”.

그녀는 저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말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나요? 저는 일로코스(Ilocos)에서 왔어요” “일로코스 어느 지역이요? 어느 장소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발린톡, 산후안, 아브라예요” 에스텔라가 답했어요.

“그래서 당신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라고 다시 제가 물었어요.

“에스텔라예요. 당신이 지금 페를 끼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의 채소를 사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 언니”라고 부르며 저는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죠?”

“퀴노, 유헤니오 아드리아티코(Quino. Eugenio Adriatico)”예요 그녀가 답했어요.

“오 이런, 당신이 제 친언니 에스텔라가 맞나요?” 제가 물었어요.

“맞는데요? 뭐라고요? 누구시죠?” 에스텔라가 물었어요.

“저는 시사(Cisa)예요” 우리는 께안았어요.

그리고서 저는 일본인들이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죽였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겪은 일은 너무 비극적이었어요.

롤라 에스텔라와 다시 함께 하게 된 건 언제였나요?

오래전이었어요. 우리가 멘디올라에서 시위를 하곤 했을 때였어요.

언제 있던 일인지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전 기억나지 않아요. 이건 오래 전에 있던 일이에요.

롤라 에스텔라가 전쟁 동안 있었던 일을 공유해주었나요? 그녀도 당신에게 말했나요? 그녀의 이야기를 말해주었나요?

그녀가 말했어요. “나에게 일어난 일은 너무 힘든 일이었어.”

그녀도 경험한 건가요?

네, 그녀도 이결(일본군‘위안부’ 피해) 겪었다고 말했어요.

롤라 에스텔라가 그녀의 이야기를 공유했을 때 무엇을 느꼈나요?

우린 울었어요. 저는 “우리가 같네.”라고 말했어요.

그때, 그녀는 아직 릴라 필리피나 구성원이 아니었죠, 맞나요?

아직 아니었어요.

누가 그녀에게 릴라 필리피나 구성원이 되라고 권했나요? 당신이었나요?

네, 저는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에게 말해주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동생아, 여기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게 내가 아브라에 있는 집에 갈 수 없던 이유야. 나는 더는 알지 못해, 나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서 잊혀지고 있어, 고마워”

제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가자, 릴라에 가자”

제가 말했어요.

“언니에게 있었던 일을 그들에게 말해줘”

옛날에는 우리가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릴라 필리피나와 가브리엘라가 도와주러 왔을 때, 우리는 괜찮아졌어요.

얼마나 오래 롤라 에스텔라와 떨어져 있었나요?

오래됐죠. 우리가 아직 어린애였을 때 그녀가 마닐라에 갔어요. 제 고모가 그녀와 함께했어요.

한국을 방문했었나요?

네, 저는 한번 갔었어요.

일본군들에게 학대당한 다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을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우리는 한 분을 만났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부둥켜 안았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도예요, 저도 피해자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결국 서로 만났다는 것에 감사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계속 앞으로 가세요. 계속 싸웁시다”

한국에 다시 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한국을 다시 보고 싶어요. 그곳에서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요.

다음 활동으로는 어떤 것을 하고 싶나요? 다음 활동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저는 뭔가 재미있는 것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싸워온 것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같은걸요. 우리는 뭔가 흥미로운 것들을 원해요.

롤라를 위한 정의를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롤라 의견으로는 당신이 원하는 정의를 실현할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두의 지지를 통해서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일본군의 학대와 폭력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정의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원하는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지지해주는 것을 보면, 일본군들이 우리에게 한 일을 떠올릴 때 겪는 고통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원이에요. 우리가 겪는 그 내면적인 아픔과 고통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들은 롤라가 이미 다른 나라에서 유명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얼굴, 모든 것, 당신의 이야기가 잘 알려졌다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밖으로 드러내야 해요.

그들은 그들의 지원을 보내고 있어요.

고마워요, 모두에게 고마워요.

구술의 모든 정보를 잘 수집해서 더 많은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한국 사람에게 공개할 겁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다른 나라의 군인에게 학대당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우리 한국 친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우리 한국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정의를 찾을 수 있도록 싸우는 데 있어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감사해요. 고마워요. 여전히 우리를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혐오한다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세대에 '위안부'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4) [가족] 딸 조세핀 칸시노 구술 전문

증언자 | Josefina Cancino

증언일 | 2022.09.20

증언장소 | 롤라의 집(메트로 마닐라 안티폴로)

참석자 | [한국] 양미강, 이혜미 [필리핀] 클라이델 조르시오



〈사진19〉 담소하는 롤라 나르시사와 딸 조세핀, 헤다(릴라 필리피나)

따님이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셨나요?

조금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말해주시지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조심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건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더 나이가 들고, 더 성숙해졌을 때, 어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성인이 되고 다 자랐을 때, 전체 이야기를 알게 되었나요?

네, 하지만 모든 내용을 알게 된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너무 바빴기 때문이죠. 제 가정이 생겼거든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언제 알게 되었나요?

최근에, 그들이 정의를 위해서 싸우기 시작했을 때요. 시위들에서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정을 느꼈나요?

우리는 어머니를 동정했어요, 당연하게도요.

자녀들과 함께 있었을 때 어머니의 삶은 어땠나요? 당신이 다른 곳으로 갔을 때는요? 어떻게 어머니의 삶이 달라졌나요?

우리는 점차 각자의 가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한, 자기 집을 갖게 되면서 우리는 부모님을 거의 찾아뵙지 못했어요. 저는 한 주에 한 번 정도 찾아 뵈요. 너무 바쁘기 때문이죠. 저는 부모님의 삶을 잘 몰라요. 예를 들어, 우리는 방문할 때, 기념품이나 선물을 가지고 가요.

지금보다 더 어리셨을 때, 본인의 가정이 생기기 전에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때도 바빴어요.

그때 롤라는 어땠나요?

어머니는 우리의 가정이 생기기 전에도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아버지와 집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손이 잘려나갔어요. 어머니는 세탁일을 하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는 어땠나요?

좋아요. 부모님은 사이좋으세요.

어머니께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임을 밝히고 난 뒤 변화된 부분이 있나요? 그녀의 태도 중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이전과 같나요?

어머니는 전에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였어요. 태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으세요.

어머니의 성격은 어떤가요?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할 때마다, 그 사건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 생길 때마다, 가끔 화를 내세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삶을 만족하며 사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근처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머니를 지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에, 어머니는 삶을 만족스러워했나요?

전에는 그다지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이 우리와 멀리 있으셨거든요. 그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는 찾아뵈어야 해요.

따님 의견으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롤라의 문제들요.

그들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인가요?

네.

어머니가 유일하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예요. 그게 그녀가 원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당신도 그걸 원하나요?

물론이죠.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이 주제가 그들에게 닿아야 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주제를 들고 가서 그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일본인들에게도 가져가야 해요. 그래서 모두가 알도록 해야 해요. 우리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당신처럼요. 이걸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당신이 전달하려고 하는 것처럼요.

정부한테 어떤 해결방법을 제안하고 싶나요?

만약에 정부가 괜찮다고 한다면, 일본군'위안부'에 대해 얘기하면서 인식을 높여야 해요, 토론회처럼요. 이 문제에 대해 알 수 있도록요. 저는 이걸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당신이 하는 것처럼 해야 해요. 정부가 있는 이유죠. 그들의 역할이에요. 그들이 이것을 준비해서, 다른 나라로 전달한다면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요. 정부는 여기서 토론회도 열 수 있어요. 만약 괜찮다면 그들은 토론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토론할 수 있어요. 정부가 허락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으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인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을 넘어서서, 어머니인 것을 넘어서서 롤라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인 롤라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낮춰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지지해줘야 해요. 우리는 그들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필요한 것은 정신적인 지지예요.

어머니로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어머니로서요? 아주 착하세요. 도움을 많이 주시고요. 성격이 그러세요. 누구든지 도와주세요. 만약 자신이 할 수만 있다면, 도와주려고 하세요. 심지어 어머니 자신과 관련이 없을지라도요. 저랑 어머니는 그래요.

가족은 어떤 일이 가장 일어나길 바라고 있나요? 무엇이든요. 당신이 가장 바라는 건 무엇인가요?

어머니는... 우리가 함께 있는 한... 모두가 모이는 것을 원해요... 생일처럼요. 가족 모두가 함께 있길 원하고 볼 수 있길 원해요, 손녀 손자, 모든 자녀를요. 제 오빠는 라구나(Laguna)에 살고 있거든요. 어머니는 우리가 다 같이 찾아뵙길 바라요.

한국인들 또는 필리핀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제 어머니가 힘든 것처럼 일본군‘위안부’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신 피해생존자들을 함께 돕기를 원해요. 그들을 도와서 피해생존자들이 찾아야만 하는 정의를 찾길 원해요. 그들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피해생존자들은 가난한 여성들이에요. 그들은 영원히 살지 않아요. 한 분씩 돌아가고 계세요. 제가 원하는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의를 찾아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승리를 목격하는 증언자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도 큼니다. 감사해요. 다음에도 다시 와주세요.

우리는 롤라를 지지하는 인터뷰들을 통해 정말 감동 받았어요.

부모님은 행복해요. 어머니는 행복하세요. 그거 아셨어요? 어머니는 기부받은 쌀을 자녀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조차도 이걸 다 먹지 못했어요. 여러분께 참 감사해요. 어머니는 기뻐하며 “얘야, 이걸 나눠줘. 어차피 우리는 이걸 다 먹지 못할 거야”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이기적이지 않아요. 어머니는 당신한테 기부를 받을 때마다, 자녀들과 나누길 원해요. 물론, 제가 가장 나이가 많아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의 몫을 가져가세요. 제가 이미 다 나누어 주었어요.”

5) 생존자 기존증언

- 원 문 | 『War Crimes on Aisan Women』 (2) 61~64p
- 번역본 | 『침묵을 깨다, 역사를 열다』 74~79p
- 증언자 | Narcisa Claveria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 자 | 1998(원문), 2021(번역문)

Narcisa Claveria입니다. 내가 필리핀 아브라 주 산후안에 위치한 발린톡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겪은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군인들은 1942년 마을로 왔습니다. 군인들이 모든 집을 수색하는 동안 두 명의 장교가 마을 이장이나 “Teniente del Barrio”를 찾았습니다. 당시 마을의 이장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집에 도착해, 일본어로 이야기하다가 통역을 불렀습니다. 일본군은 아버지에게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집에 왜 사람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 말하지 않아서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일본군은 마을 이장이 왜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왜 모르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우리 마을에 있는 집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세세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에게 아이들이 몇 명이냐고 묻자, 자녀들은 여덟 명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다섯 명은 딸이고 세 명은 아들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아이들이 모두 집에 있느냐고 물었고 아버지는 우리들을 불러 가족의 숫자를 세었습니다. 첫째 언니인 Estela는 메트로 마닐라에 살았기 때문에 언니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집에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첫째 오빠를 밧줄로 묶고 다른 남자형제들도 똑같이 밧줄로 묶었습니다. 그렇게 남자 형제들이 집에서 끌려 나간 후, 일본군은 아버지를 기둥에 묶여 매달리면서 아이들을 해치지 말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필리핀 통역사는 우리들에게 다치지 않으려면 옷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살려 달라고 애원했지만, 군인들은 어머니와 Emeteria를 강간했습니다. 군인들이 그들에게 한 짓을 보고, 자매 중 한 명이 일어나 반항했습니다. 군인 중 한 명이 채찍을 꺼내 그녀의 등을 때리고, 그녀를 집에서 끌어냈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강간을 당할 차례였습니다. 막내 남동생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걸 알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군인 중 한 명이 남동생을 밖으로 던져 총검으로 찔렸습니다. 동생은 소리지르다 죽었습니다.

내 동생을 찌른 군인은 ‘Suga’라고 불렸습니다. 군인들은 키가 제각기였고, 위장복과 뒤 쪽이 트인 위장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총과 총검 그리고 밧줄을 가지고 있었고, 필리핀 남성들을 잡아

다가 짐꾼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잡아 반항했고, 그 때문에 팔 하나가 꺾였습니다. 바닥에 던져진 나를 보고 통역사는 반항하지 말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다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일본군은 부모님과 남동생 그리고 언니를 죽였습니다. 난 일본군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피부를 목에서부터 성기까지 벗겨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일본군은 아버지의 피부를 물소를 도살하듯 벗겨냈습니다. 아버지가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르자 그것을 빌미로 처벌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군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이후 우리는 일본군이 기지로 쓰고 있던 건물로 옮겨졌습니다. 도착해보니 이웃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당시 동네에 없던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동네 여성들을 그곳에 모아놓았습니다. 남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이 센 남성들을 데려다 노예와 짐꾼으로 썼습니다. 기지에는 일본군이 아주 많았습니다. 건물을 한 대대가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지에 도착했을 당시 나는 팔이 너무 아파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건물에서 끌고 나와 근처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나는 열이 심하게 났고 그때 필리핀 협력자가 내 팔을 주무르고 약초를 사용해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2주 후 나를 때까지 나를 도와준 2명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낮자 군인들이 다시 기지로 데려갔습니다. 키가 작은 군인 한 명이 나를 음흉하게 쳐다봤습니다. 통역사 중 한 명이 말하길, 나에게 냄새가 고약하게 나니 목욕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갈아입을 옷이 없는데 어떻게 목욕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군복처럼 보이는 옷과 평퍼짐한 바지를 건네줬습니다. 날 음흉하게 쳐다보던 군인은 그날 밤 나를 강간했습니다.

기지에는 큰 방이 네 개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명에서 기지 안에 있는 방 하나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시멘트 바닥에서 담요 몇 개와 옷가지 몇 벌로 덮고 잤습니다. 일본 군인들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우리를 강간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야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언니인 Emeteria는 군인들에게 강간당한 후에 미쳐버렸습니다. 군인들은 항상 그녀를 채찍질했습니다. 계속되는 채찍과 성폭력으로 인해 Emeteria는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우리를 강간했습니다. 낮에는 일본군을 위해 요리하고, 세탁하고, 물을 길어 와야 했습니다. 기지를 탈출하는데 성공한 여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탈출사건이 있는 후 감시망이 더 강화되었고, 그들은 이동할 때마다 우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평벌에서 걷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들판과 강을 맨 발로 건너야 했습니다. 강을 건널 때마다 군인들은 짐꾼들에게 올라타 강을 건넜고, 신발이 물에 담기라도 하면 짐꾼을 처벌했습니다. 너무 걷다 보니 발바닥이 찢기고 물집이 잡혀 고통스러웠습니다.

미국이 공습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비로소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폭격이 시작되자 기지에서 도망쳤는데 사력을 다해 달렸습니다. 기지에서 2-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멈췄는데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무릎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던 길에 딸을 찾아 헤매던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기지에서 멀리 왔으니 안심하고 쉬엄쉬엄 숨어 가라고 했습니다. 안심하고 주변을 돌아보니, 노인과 아이가 물소와 함께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까지 물소를 타고 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집들이 모두 불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지로 끌려간 날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모두 집과 함께 불타버렸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자매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주거나 사랑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아서 커야 했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긴 했지만, 부모 없이 사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4. 롤라 에스텔라 아드리아티코

(Estella Adriatico)

94세, 칼로오칸(Caloocan) 거주, 롤라 에스텔라 또는 스텔라 (Stella)로 불림

1) 롤라 에스텔라의 초상

9월 2일 롤라 에스텔라가 사시는 칼로오칸으로 가는 길은 비가 부슬부슬 오고 있었다. 칼로오칸이 상습 침수지역이라 그런지 비가 많이 온 거 같지 않은데 군데군데 물이 차 있었다. 이러면 롤라 집에 갈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떠난 길이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해가 반짝이며 롤라가 사시는 집에 무사히 도착했다. 롤라의 집은 비교적 찾기 쉬웠다. 차가 다닐 수 있어 골목 주차가 가능했다. 넓고 깨끗한 이층집이었다.

롤라의 첫인상은 단아하고 깔끔하고 차분한 느낌이었다. 구술할 때도 언제나 조용조용하고 입술만 살짝 올리면서 웃으시는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다. 롤라의 일상은 코로나 19 시대에 최적화된 스타일이었다.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인근 10분 거리에 사는 손주네 집에 가서 텃밭 농사를 짓는 게 가장 중요한 일과였다. 오크라도 심고 야채도 심으면서 시간도 보내고 건강도 지키는, 그리고 반찬거리도 챙길 수 있는 일석삼조 가드닝, 롤라는 가드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일상에서 최우선 과제로 올려놓았다고 말씀한다. 그래서인지 롤라는 2년 전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은 다



〈사진20〉 구술채록팀을 맞이하는 롤라 에스텔라

리 때문에 약을 먹는 것 외에는 다른 특별히 아픈 곳은 없어 보였다.

롤라는 안티폴로에 사는 롤라 나르시사와 자매이다. 자매들이 모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는 사실은 일본군에 의해 전쟁범죄가 국가 뿐 아니라 한 가족에게 미쳤던 심각한 영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녹취록 참조), 일본군 점령 당시 큰 딸이었던 롤라 에스텔라는 돈을 벌기 위해 마닐라로 나간 이후 그곳에서 피해를 당했고, 부모랑 같이 살고 있던 여동생 롤라 나르시사는 살고 있던 마을에서 피해를 당했다. 서로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가, 90년대 피해자들이 커밍아웃하기 시작한 당시 마닐라의 어느 시장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는 기막힌 사연이다.

두 자매는 성격도 매우 달랐다. 롤라 나르시사는 매우 적극적이고 증언활동 등 대외활동에 관심이 많아 가능하면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 롤라 에스텔라는 내성적이고 차분해서 꼭 필요한 말만 하기 때문에 구술을 받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70대인 롤라 에스텔라의 딸 얼린다(Erlinda)는 어머니를 늘 돌보고 있다. 식사부터 각종 모든 면에서 어머니를 챙기고 있었다. 구술 채록 할 때도 어머니가 잘 못 알아 들을까봐 옆에서 설명해주고, 롤라는 대답이 생각이 안나면 옆에 있는 딸을 쳐다보기도 한다. 오랜 세월 그 힘든 시절을 함께 겪어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자매 같다.

롤라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남편과 사별하고 딸 하나를 온갖 고생을 다하며 키웠다고 한다. 하나밖에 없는 그 외동딸 린다³⁶⁾는 9남매를 두어 자녀가 아홉 배 늘어났다고 웃으면서 말한다. 작년 말 외국에서 일했던 손녀가 집에 들어와 살고 있다.

구술은 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한번은 롤라에게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라고 라디오와 사진앨범 선물을 가지고 방문했다. 코로나 19 때문에 힘들셨으니 음악도 듣고 옛날 사진도 보면서 울쩍한 마음을 달래시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평소에 말씀을 별로 하지 않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팝송, Moon River 노래를 들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글썽거리었다.

“롤라, 왜 눈물이 나세요? 이 노래에 무슨 사연이 있으세요?”

“자꾸 옛날 생각이 나요. 일본군 점령 당시, 너무 힘들어서 밤에 하늘을 보며 울었어요. 이 노래를 들으니 그때가 생각나요”

36) 얼린다(Erlinda)의 애칭

롤라와 두 번째 만남은 9월 20일 이루어졌다. 첫 방문과는 달리 긴장하신 분위기였다. 워낙 소극적인 분이라 긴장을 풀려고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물어보니 활짝 웃으시면서 매일매일 앨범을 본다고 하신다. 그 앨범은 롤라가 필라 필리피나와 함께 활동했을 때 사진들이 담겨져 있다. 롤라는 사진 속에 나오는 롤라들을 보면서 이름도 이야기하고 잘사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사진과 음악은 롤라에게 웃기도, 울기도 하는 과거로의 시간여행이었다.

롤라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가족의 맏딸로 태어나, 돈을 벌러 마닐라로 나갔다. 친척의 소개로, 마닐라의 일본 비즈니스맨 가정의 가정부로 취직을 했고 그 후 일본군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롤라는 남편과 사별한 후 플라스틱 장사를 하면서 딸을 키웠다고 한다. 남편에게도, 딸에게도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온 롤라는 1998년 공개증언 후 훨씬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딸의 기억 속에 어머니는 늘 엄격하신 분이었는데 증언 후 훨씬 너그러워졌고 롤라 역시 공개증언 후 수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느낌이었다고 전한다. 비밀로 간직해온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공개적으로 증언하면서 롤라의 마음이 바뀌었다. 나만 피해자가 아니었고, 내 잘못 때문에 피해 입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롤라는 그때서야 자신을 움아매었던 삶의 굴레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

롤라의 구술채록 과정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었다. 손녀딸이 롤라의 증언을 경청하면서 핸드폰으로 녹화를 하고 있었다. 손녀딸도 작년에 함께 살게 되면서 롤라의 사연을 알게 되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롤라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을 수 있기에 녹화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손녀에게 물었다.

“롤라의 증언을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세요?”

“롤라를 잘 이해하게 되었구요.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일본군의 피해역사도 알게 되었어요. 특히 같은 여자로서 롤라의 삶에 대해 깊은 연민이 있어요”

롤라와 딸, 손녀에 이르기까지 롤라 에스텔라 가족이 증언팀에게 보여준 환대는 식탁에 차려진 간식에 고스란히 녹아져있다. 지난번에는 빵과 주스가 나오더니, 이번에는 딸이 직접 만든 찹쌀떡(필리핀전통식)과 코코넛주스가 일품이었다. 찹쌀떡은 필리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달달하고 쫄득거리는 맛난 간식거리였다. 거기에 몸에 좋다는 코코넛 생과일 주스까지...

아침 6시에 일어나 커피를 마신 후 아침 식사를 하고 텃밭에서 모링가와 배추를 가꾸는 롤라 에스텔라의 일상은 평온하다. 구술채록팀들처럼 가끔 방문객들이 필라 필리피나와 함께 찾아올 때면 가장 기쁘다는 롤라의 꿈은 이러한 일상을 지속하는 일이라.

2) 생존자 구술 요약

롤라 에스텔라는 1927년 12월 20일에 산후안 아브라에서 태어났다. 농부였던 부모님 밑에서 여덟 자매와 함께 살았다. 롤라 에스텔라는 1944년 17살이 되는 해에 가정부로 일하기 위해 고모와 마닐라로 이주했다.

그녀가 일한 지 5개월이 지난 뒤, 일본군의 침략 전쟁 상황은 심각해졌고 일본군들은 그녀가 일하던 집에 오게 되었다. 낮에 여자들은 일본군을 위해 요리를 하고 밤이 되면 그들이 머물던 3층에서 아래층 방으로 한 명씩 끌려가 일본군들에게 강간당했다. 이 일이 3주 동안 지속되었다. 그녀는 미군들이 마닐라를 폭격하기 시작했을 때 탈출할 수 있었다. 현재는 한 명의 딸과 아홉 명의 손주들과 함께 살고 있다.

롤라 에스텔라는 로사 헨슨이 라디오에서 필라 필리피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단체에 가입하기로 했다. 마닐라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던 그녀는 시위하러 온 여동생 나르시사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필라 필리피나 구성원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시위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기금 모음을 위해 거리에 나가 노래를 불렀다. 그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를 기억해주고 지지해주는 한국인들에게 감사함을 표했으며 앞으로도 함께 해주길 바라고 있다.

3) 생존자와 [가족] 딸 얼린다 다리아, 소녀 마릴린 구술 전문

증 언 자 | Estella Adriatico, Erlinda Daria, Marilyn

증 언 일 | 2022.09.20

증언장소 | 롤라의 집 (메트로 마닐라 칼루오칸)

참 석 자 | [한국] 양미강, 이해미 [필리핀] 클라이델 조르시오

롤라, 요즘 어떠세요?

하나님의 자비로, 저는 잘 지냅니다.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나요? 성함과 생년월일이요.

저는 에스텔라 아드리아티코(Estella Adriatico)입니다. 전 94살이에요. 제 생일은 12월 20일, 19일...27일입니다. 그 이상은 모르겠네요. 저는 점점 기억들을 잃고 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제가 키우는 오크라와 가지가 아직 싹을 틔우지 않았어요. 아직 자라지 않았어요. 당신이 준 오크라와 가지 말이에요.

요즘도 매일 이웃들에게 가시나요?

네 매일 가요. 매일 오후에, 그들이 저를 집에 데리고 와요, 여기로요. 아침에는 제가 거기로 가요. 그들이 저를 데려다줍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그들이 저를 집에 다시 데리고 와줘요. 저는 여기서 자고, 먹어요. 저는 여기서 모든 것을 합니다.

지난번 롤라께서 라디오를 들었을 때 울었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라디오를 들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당연하게도 저는 우리에게 그 당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요. 만약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라디오를 듣지 않고 있겠죠. 저는 항상 라디오를 볼 때마다 당신을 기억해요. 심지어 약을 볼 때도, 당신을 기억해요.

음악을 들을 때 어떤 경험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요, 우리가 그 당시 고문을 당했던 것들요. 제1차 세계대

전 후에, 일본군들이 오기 전에, 저는 이미 여기 마닐라(Manila)에 와 있었어요. 저는 가정부였어요. 저는 가정부로 지원했어요. 그 당시 여기서 제 직업은 가정부였어요.

저는 친절한 고용주를 찾을 수 있었어요. 오래전에 여기 마닐라로 온 일본인이었어요. 그들은 친절했어요. 하지만 그 나라의 군인들인, 일본군들은 벌 줄 때 아주 엄격했고 아주 잔인했어요. 저는 여기 에차그(Echague)에서 살았어요. Ayala 다리 근처에서요. 퀴아포(Quiapo) 가는 길이에요, 퀴아포 시장이요. 저는 거기 살았어요. 그때 일본군들은 도로를 봉쇄해서 통행로를 좁혔어요. 사람들은 두 줄로 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지나가고 나서야 다른 사람이 지나갔어요. 바로 그렇게요. 한 사람 후에 다른 사람이요. 그 차선들에는 일본군들이 총검을 들고 있었어요. 다른 차선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집은 어땠나요?

제가 살았던 집이요? 오스메냐(Osmena)의 집이었어요.

그게 뭔가요? 진짜 집을 의미하는 건가요? 주택빌딩이었나요?

아뇨. 큰 아파트였어요. 한 부자 남성의 집이었어요.

전에 살았던 집은 일본군이 주인이었나요?

전에 여기 와있었던 일본인들은 그들의 집을 갖고 있었어요.

당신을 고용했던 고용자의 집은요?

제 상사의 집이요?

필리핀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요. 일본인들이었어요. 일본인들이요. 필리핀인들에게 친절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전쟁 전에 여기 있었어요.

마닐라에 어떻게 오셨나요, 그리고 떠났을 때 아브라(Abra)에 있는 가족은 어땠나요?

저만 유일하게 마닐라로 일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저는 가정부로 지원했어요. 그게 제 삶이었어요.

아브라에서 떠났을 때 가족은 어떠셨나요?

신의 은혜로, 그들은 괜찮았어요. 일본군들이 아직 오지 않았었어요. 제가 마닐라로 떠났을 때, 일

본군들이 아직 없었어요. 우리의 삶이 좋았던 이유였죠. 제 어머니와 아버지는 농부셨어요. 그게 저희 가정의 생계였어요.

그때 몇 살이셨나요? 지금도 기억하실 수 있나요?

제가 열네 살쯤이었어요. 제가 떠날 때 저는 아직 어렸었어요.

고모와 함께 떠났었나요? 고모와 함께 있었나요?

우리 고용자들은 달랐어요. 그녀의 상사는 제 상사와 달랐어요.

하지만 마닐라로 올 때는 함께 있던 거죠?

네, 우리는 함께였어요.

첫 번째 직업을 일본인 고용주와 함께했던 건가요? 그분이 첫 번째 상사였나요? 아니면 마닐라에 도착했을 때 다른 상사가 있었나요?

롤라 아노. 첫 번째 분은 필리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좋지 않았어요.

딸 그들은 인색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일본인 고용주로 바꿨어요. 그들은 돈을 더 주었어요. 돈 때문은 아니었어요.

롤라 제가 일하고 있으면, 그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다른 일을 시켰어요. 그들은 지속해서 일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끝내지 못했어요.

딸 한 가지 일도 끝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다른 일을 시켰어요.

롤라 네, 그들은 다른 일을 주었어요. 그게 제가 힘들었던 이유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했어요 “너는 다른 집으로 가야 해. 내가 상사를 알아” “어디로요?” “일본인에게...” “일본인...저는 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어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아니, 그들이 따갈로그를 할 줄 알아”. 이렇게 정말로 그들은 친절했어요. 거기에서, 그들은 제가 제 일하도록 허락해주었어요, 저에게 달려있었죠. 그게 일본인들의 방식이었어요. 제가 먹을 것을 요리하면, 그들은 제가 먹을 시간 동안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빨래하고, 옷을 다리고, 집을 청소했어요. 그 당시 제 일이었어요.

가정부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빨래하고요. 옷을 다려요. 집을 청소하고요. 설거지도 했습니다. 집안일 모든 것이 제 일이었어요.

일본 고용주의 가족은 몇 명이었나요?

그들에겐 두 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총 4명이 있었죠.

일본인 상사를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나요?

2년 정도요. 2년 동안. 저는 계속 돌아왔어요. 저는 지방에서 올 때마다 같은 고용주에게 돌아갔어요. 그들은 친절했어요. 그리고 저도 친절했어요. 하지만 제 상사는 그때, 모터보트를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큰 강가 옆에 살았거든요. 보트, 모터보트, 어떤 것이든 모든 걸 그들은 만들었어요. 그들은 많은 일꾼이 있었어요. 그는 일본 정부에서 온 것처럼 보였어요.

언제 아브라에 있는 집으로 다시 갔나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이었나요? 그동안 아브라에 있는 가족들은 괜찮았나요?

네.

언제 가족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나요? 아브라 집에 갔을 때 나르시사(Narcisa)를 통해서 알게 되었나요?

저는 제 동생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알았을 때, 다시 지방으로는 언제 돌아갔나요?

저는 집회에 왔던 제 동생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동생을 보았고 우리는 서로를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 껴안았어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셔?” “안 계셔. 그곳에서의 삶은 힘들어” 그녀가 말했어요. “왜? 우리가 나무, 쌀, 음식들을 마을회관에 가져다주었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강에서 옷들을 세탁했어, 그들은 일본군들의 옷을 빨았어.”

동생이 당신에게 부모님께 있었던 일에 대해 말했었나요?

네.

그 후에, 아브라로 돌아갔나요?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여기 머물렀어요.

일본 상사와 일할 때 가끔 아브라에 있는 집에 갔다고 말했지 않나요? 아브라로 한 번도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아브라에 한 번도 가지 않았나요?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요?

저는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 고용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했나요?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요.

전쟁 동안요? 그는 여전히 제 상사였어요.

지난번 구술했을 때 오히라(Ohara) 회사에서 머물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름은 회사나 가족의 이름인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에게 오히라 상(Ohara-San)을 찾으라고 말했었어요.

나르시사와는 어떻게 함께하게 되었는지 말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동생을 보았을 때, 그들은 시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저는 그들은 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 동생이 저를 보았어요. 그녀는 저를 응시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어디서 왔나요?”

동생이 답했어요. “아브라에서요”

다시 제가 물었어요. “가족 이름이 뭔가요?”

동생이 답했어요. “아드리아티코입니다”

제가 다시 물었어요. “정말? 엄마가 누구셔?”

동생이 답했죠. “이름이 마리아(Maria)셔”

제가 다시 물었어요. “아버지는?”

동생이 답했어요. “유헤니오(Eugenio)이셔”

제가 말했어요. “이럴수가, 내 동생이잖아.”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이 내 언니였다니” 거기서 그녀가 그렇게 말했어요.

시위가 진행될 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사람들이 몰려있을 때, 엿듣는 것은 사람들의 습관이잖아요.

시위 전에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시위가 시작하기 전에도 거기 계셨나요?

저는 이미 거기 있었어요.

근처에 있었나요?

우리는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Ayala 다리 옆이었어요.

시장 쪽에 있는 거죠? 맞나요? 시장에서 판매자로 있었나요?

판매자요?

네.

네. 리갈다(Legarda)에서요.

롤라 나르시사를 다시 보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저는 기뻐어요. 제 동생을 다시 보았기 때문이죠. 저는 그때 그녀의 행방에 대한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었거든요.

나르시사와 다시 함께하게 됐을 때,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제 마음속에는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릴라 필리피나에는 어떻게 가입하게 되셨나요?

저는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요. 로사 헨슨(Rosa Henson)은 그녀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 중 누구나 참여하고 싶다면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조직을 이끌고 있으니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 달라고요.

일본군'위안부' 여성으로서 증명하는 과정에서 나르시사가 기여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나르시사는 일본군'위안부' 여성으로 당신이 밝히고 나오도록 어떻게 도와주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저 롤라 로사가 라디오에서 이걸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뿐이에요. “나 오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 경험을 이해하는 누구든지요”

릴라 필리피나에 가입하기로는 언제 결정하셨나요? 나르시사를 다시 보고 난 뒤 가입하셨나요?

딸 어머니와 나르시사 중에 누가 먼저 릴라 필리피나에 가입했죠?

롤라 그녀(나르시사)가 먼저 가입했어.

릴라 필리피나 가입을 언제 생각하셨죠?

다시, 로사가 무언가에 대해서 알렸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기관의 이름이 뭐였죠?

TF팀이요...

만약 당신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면, 함께하세요.

그게 당신이 가입했을 땐가요?

네.

얼마 전 나르시사와 이야기했을 때는, 그녀가 집회에서 당신을 봤을 때, 그때 동생이 당신에게 릴라 필리피나와 함께 하자 했다고 말했어요.

네. 동생이 그걸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제가 이미 구성원이었기 때문이죠.

나르시사를 보기 전에 가입하셨다는 말인가요?

네. 동생은 그걸 몰랐어요.

당신과 나르시사가 둘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무엇을 느꼈나요?

저는 반가웠어요. 우리가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싸워야만 한다는 것어요.

일본 점령 때 겪은 경험에 대해 가족은 언제 알게 되었나요? 전쟁 동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 언제 가족이 알았나요? 언제 가족과 남편 또는 딸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그들에게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을 언제 알게 되었나요?

딸 어머니가 활동들을 함께 하기 시작했을 때요.

왜 나나이³⁷⁾ 조시나 남편에게도 당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왜 당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

나만 알고자 했어요. 저만 아는 거로 하려고요.

딸이 당신에게 있었던 일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떠셨나요?

저는 기쁜지 슬픈지 모르겠어요.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께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것을 언제 알게 되셨나요? 시위에 갔을 때 혹은 어머니가 증언하는 것을 들었을 때였나요?

딸 우리는 어머니의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37) 따갈로그어로 '어머니, 아주머니'를 의미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의 딸로서, 에스텔라의 증언을 들었을 때, 어땠나요?

딸 저는 어머니가 어린 소녀였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미안했고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저는 그 일이 우리 청년들에게 일어나지 않길 바라요. 우리는 더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다른 나라로부터의 그런 잔혹 행위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외교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한 거고요. 이걸 어려워요.

처음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충격받으셨나요? 어머니께서 얘기한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딸 네.

다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볼 땐 어떠셨나요?

딸 다른 롤라들이요?

네. 다른 롤라들이요.

딸 저는 그들에게 공감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그런 일을 겪으셔야 했다는 게 죄송하고 안타까워요. 저는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이 다시 반복되지 않길 원해요. 특히 청년들에게요 만약 이게 오늘날 일어난다면, 피해는 훨씬 클 거예요. 필리핀이 손가락을 한번 튕기면 사라질 수 있는 것처럼 훨씬 더 심각할 거예요. 필리핀은 가라앉을 거예요. 무너질 거예요. 그게 더 나은 운명 일거예요. 아무도 고통을 느끼지 않게요.

손녀분도 알기 원하셨나요?

손주들은 이런 것들을 몰라요.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시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차라리 손주들이 아무것도 모르게 내버려 두려고 해요.

그들은 또한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싶어해요.

딸 이 일에 대해 어떤 감정이 들지?

손녀 저는 이 사실을 들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딸 제 딸이 도착 한지 얼마 안됐거든요. (2021년 해외에서 일하다가 귀국함)

지금쯤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녀분이 이번 해에 알게 되었다는 건가요?

딸 네.

손녀 왜냐하면 롤라는 한 번도 이것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었죠.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요.

그녀가 시위를 갔을 때는요…?

딸 그들은 여기 없었어요. 해외에 있었어요. 다른 나라예요.

이제 알게 되었는데 어떠신가요?

딸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손녀 롤라께서 젊었을 때 일본인들에게 노예와 같은 취급당했다는 것을 몰랐었기 때문에 우린 고통스러워요. 할머니의 손녀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정말 몰랐어요. 우리는 할머니에게 일어난 일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소녀일 때 그런 노예와 같이 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딸 어렵죠.

손녀 특히 손자 손녀들에게는요,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롤라 저는 자녀가 한 명만 있어요. 하지만 제 손주들은 9명이에요.

딸 왜냐하면 전에는 우리 둘뿐이었어요. 저는 혼자 있는 게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문제가 부담스러울 때, 그것을 공유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또한 과부였어요. 9명의 자식이 있는 과부였죠. 제가 과부가 되었을 때 그들은 여전히 작고 어렸어요.

막내가 몇 살인가요?

딸 이제 막 1학년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 48세였던 것 같아요. 그는 48살이었어요. 저는 그가 죽었을 때 44살이었어요.

에스텔라가 증언을 한 후에, 그녀 삶에 변화들이 있었나요?

딸 네 어떻게 해서든 그녀는 안에 숨겨두었던 것을 풀어주었어요. 적어도 줄어들긴 했어요.

증언하기 전에는 어머니의 태도나 삶의 모습이 어땠나요?

딸 그녀는 리갈다에서 장사를 했어요. 그녀는 장사할 자리를 갖고 있었어요. 전에 어머니는 매일 아침 여기에서 어린 손주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들은 플라스틱 가방들을 팔아요. 플라스틱 가방이요.

손녀 그들의 수업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나면 학교가 끝났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는 시장에 갑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가방들을 팔아요. 우리는 또한 다른 것들도 팔아요.

증언한 후, 어머니의 삶에 변화가 있었나요?

딸 그대로예요. 여전히 장사하고 계세요. 아직 시장에서 일하세요.

하지만 어머니의 태도는 어떤가요? 여전히 같나요? 전에는 어땠나요?

딸 그녀는 괜찮아요.

변화가 없다는...?

딸 음, 어머니의 손주들은 어머니의 정신을 분산시켜요. 아마 그녀를 괴롭히던 생각들이 떠나 갔을지도 몰라요.

어머니의 태도는 어떤가요?

딸 그녀는 가끔 성질이 안 좋아져요. 그녀는 심술궂기도 하고요.

전에도요?

딸 네 가끔 어머니는 까다로워지기도 해요. 하지만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 그녀는 진정하고 가라앉아요.

증언 후에도 여전히 까다로우실 때가 있나요?

딸 많지는 않아요. 어머니는 자신을 괴롭히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해소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음이 드디어 편해지게 되었어요. 문제들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니 안에 아주 오랫동안 그것들을 품고 있었거든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증언하고 이야기한 뒤에 스스로 보인 변화가 있나요? 당신의 행동에서 변화가 있었나요? 스스로 변화된 것이 있다고 느꼈나요?

저는 제 어깨가 좀 가벼워지는 것 같이 느꼈어요.

당신이 화를 잘 내지 않게 되었다는 건가요?

네, 더는 화를 잘 내지 않아요.

릴라에서 어떤 활동들에 참여하셨나요?

딸 릴라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롤라?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나요? 바느질도 하고 천도 꿰

매고요. 리치(Richie)는 릴라 구성원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있도록요. 후에 그들은 일본에 그것들을 팔았어요. 리치는 돌아가셨어요. 리치는 지난 8월 25일에 돌아가셨어요.

다른 활동들은요? 종종 시위에도 가셨었죠? 맞나요? 다른 활동들은 무엇을 하셨나요? 해외 일정도 함께하셨나요?

딸 아니요.

꽃무늬 천을 만드는 것 외에 어떤 다른 활동을 하셨나요? 릴라에서 진행되는 다른 활동이요. 함께 했던 기억나는 걸 말해주시면 됩니다. 행사들도요.

딸 그들은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들은 찬송가를 부르러 나갔어요. 그들은 특히 선거기간이나 12월에 기금을 모으기 위해 상원 의원들에게 가곤 했어요. 그들이 번 돈으로는 집회, 음식,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해요.

릴라에서 활동들을 함께 했을 때 어땠나요?

딸 저는 행복해요. 우리가 함께했거든요.

롤라 저는 행복해요. 많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딸 어머니는 친구를 사귀었지만 많이 돌아가셨어요. 많은 분이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요.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거의 안 계십니다. 아마 그들이 더는 걸을 수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롤라와 대화할 수 있었나요?

딸 물론이죠, 릴라에서 서로를 볼 때마다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은 서로 대화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친구들은 거의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속상해하는 이유예요. 그들은 춤추고, 노래를 불렀어요. 리치가 마이크를 들고 그곳에 있을 때마다 부르는 노래는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그 문제를 잠시만이라도 잊게 했죠. 생일이요. 생일이었어요.

롤라 에스텔라는 릴라에서의 가장 행복한 경험은 무엇인가요?

딸 네? 릴라에서의 가장 행복한 경험이 무엇이냐고요? 어머니의 행복한 경험이 뭔가요? 경험하신 것 중예요. 릴라에 있었을 때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인가요?

롤라 가장 행복했던 때는...

딸 그들이 선물을 줄 때예요.

롤라 가장 행복했던 거는 12월이에요. 그들이 선물을 주거든요.

딸 크리스마스예요. 특별히 그녀를 위해서 그녀의 생일은 20일이에요. 12월 20일이에요.

롤라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딸 어떻게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요? 어떻게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시나요?

딸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가요? 어떻게... 일본인이 사죄해야 한다거나. 더 해야 할 남은 것이 있나요?

롤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딸 어머니의 정신이 좋지 않아졌어요.

따님은 어떠신가요. 따님 의견은요.

딸 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특별히 아베가 죽은 뒤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본의 총리였잖아요? 신조 아베 총리요. 우리 정부가 소리를 내어 필리핀에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정의를 얻도록 해야 해요. 그들이 적어도 일본군들이 그들에게 한 것에 대해 정의를 찾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피해자가 그들이 정의를 찾았다는 것을 알고 편히 쉴 수 있도록요. 그들의 어머니를 지지하는 남아있는 아들과 딸들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야 해요. 저는 우리 정부가 방법을 만들길 소망해요. 적어도 그들이 목소리를 들어야 해요.

손녀분 의견은 어떤가요?

딸 이것에 대해 너의 의견은 어때? 의견을 나눠줘.

손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정의가 실현되어야 해요 반복되지 않도록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우리는 정말 정의 실현이 필요해요. 이것이 우리의 주된 요구예요.

한국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딸 한국인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한국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머니의 싸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요. 그들에게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말을 해야 해요. 그녀는 제가 그녀를 위해서 이야기하길 원해요. 계속해주세요, 그들이

어머니의 말을 들을 수 있게요. 녹화되고 있어요. 이게 그들의 마지막 요청이에요. 한국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롤라 우리를 도와주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를 지속해서 지지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딸 또 다른 말은요?

따님은요?

딸 우리 이웃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 말을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저는 우리가 정의를 얻기를 원하고 서로 정의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여러분 국가에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있으시죠? 저는 일본군들이 우리 어머니에게 했던 일에 대해 정의를 찾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며 싸워나가길 원해요. 생각해보면 그들은 정말 잔혹한 행위의 희생자가 되어야 했던 거예요. 그건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이에요, 특히 무력한 여성이라면 말이에요. 당시 아이들은 총검에 찔렸을 뿐이에요. 저는 여기 필리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정의를 찾길 바라요.



〈사진21〉 롤라 에스텔라와 큰 딸, 손녀딸, 증손주

4) 생존자 기존증언

원 문 | 『Summary of Circumstances of My Sufferings Lola Estella Adriatico』

진술자 | Estella Adriatico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 자 | 1998.10.21

장 소 | 메트로 마닐라

저는 Estella Adriatico 입니다. 전 1927년 12월 20일에 San Juan, Abra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부모님은 농부였습니다. 우리는 여덟 자매였고, 전 넷째였습니다. 전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학교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1944년 제가 17살이 됐을 때, 저는 가정부로 일하기 위해서 사촌과 마닐라로 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제 사촌은 제가 필리핀 가정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를 추천해주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후 일본인 부부를 위해서 다시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그곳으로 이동했을 때, 그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다른 4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 일본 부부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고 첫째가 당시 12살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편인, Ohara San이 일본 정부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Echague를 점령하고 있을 당시 쌀과 설탕 자루들이 그 집에 가득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저는 그 집이 Osinena 소유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오래된 스페인식의 3층 집이었고 앞에 발코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개의 방들이 있었고 아주 넓은 잔디밭이 있었습니다. 모든 가정부는 3층에서 잤습니다.

제 일본인 고용자는 따갈로그어(필리핀어)를 할 수 있었고 그를 위해서 일하는 30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노동자들은 필리핀 사람들이었고 나중에 저는 그들이 모터보트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아주 심각해졌을 당시 저는 거기서 5개월 정도 일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일본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그의 아내와 세 명의 자녀들이 일본으로 가기 위해 탄 배가 미국 전투기 폭격을 당해 죽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하루는 일본 군인들이 그 집으로 왔습니다. 전 정확하게 몇 명이 있었는지 기억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오고 낮 동안 그들은 여자들을 위한 식사를 요리하도록 했습니다. 밤이 되고, 우리가 자려고 했을 때, 그 군인들이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자는 곳에서 각자 한 명씩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있는 몇 개의 방들로 따로 데리고 갔습니다. 각 군인은 한 명씩 자기 여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으로 들어갔을 때, 저를 데려간 군인은 저를 강간했습니다. 그 사람 이후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차례대로 강간했습니다. 저는 당시 성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생리를 시작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군인들은 지속해서 왔고 저는 그날 밤 몇 명의 군인들이 저를 강간했는지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에, 저는 맞서 싸우려고 했지만, 그들은 저를 때렸고 저는 조용히 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조용히 제 생각을 혼자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날 다시 저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그들의 밥을 요리했고 그들의 더러워진 옷들을 세탁했습니다. 저녁이 오면, 우리는 다시 분리되어 방에 갇혔습니다. 이게 3주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일본군에게 강간당하고 난 뒤 침대 밑에 숨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침대 밑에서 군인들을 피해 숨어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밤에 우리는 방안에서 문이 잠긴 채 갇혀있었지만, 낮에는 집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지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문들을 일본군들이 지키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군들이 마닐라에 폭탄을 던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고용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하라 산과 군인들은 그 집에 남았습니다. 저는 산토 토마스(Santo Tomas) 대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앞서 말한 사실대로, 마닐라에서 제 사인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1998년 10월 21일, 마닐라에서.

5. 활동가 루시아 프란시스코 (Lucia Francisco)

65세, 파나이(Pannay) 거주, 루시아로 불림

1) 활동가 루시아의 초상



<사진22> 자신의 활동을 설명하는 루시아

구술집 기획단계부터 구상한 활동가 구술채록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롤라들이 증언하도록 기반을 만들고 운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활동가들이 있었기에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도 지금까지 30년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 운동의 기반을 만들었던 활동가들의 구술채록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 1대 넬리아 산초는 보라카이/일로일로에 거주하고 있고 전국을 다니는 특성상 일정 잡기가 어려웠다. 2대 리치 엑스트

라마둘라는 고향인 바콜에서 투병 중으로 수시로 입원을 했고 전화가 없어 연락하기가 어려웠다. 고심 중에 릴라 필리피나 샤론 선생과 상의하여 생존자 구술채록을 마닐라권 2명, 로하스 2명으로 결정하고, 이왕이면 지역에서 초창기부터 활동해왔던 활동가 구술채록을 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넬리아 산초와 리치 엑트라마둘라의 구술채록은 모두 성사되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오랜 투병 생활과 갑작스런 발병으로 8월과 9월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일로일로 지역 활동가 루시아 구술채록을 앞두고 여러 변수가 등장했다. 일로일로와 2시간 거리에 있는 로하스 방문 시 루시아를 만날 계획이었는데, 로하스 지역 코디네이터의 개인신상문제로 변수가 생긴 것이다. 현 정부와 정치적인 갈등이 문제가 되어 구술채록팀 일정수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라 외부인이 방문하면 지역사회에 노출되어 지역활동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로하스 방문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루시아 만남도 무산되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중에 때마침 로하스 상황을 가브리엘라에 보고하기 위해 마닐라로 온다는 루시아의 일정을 전해받고 일정을 잡았다. 그렇게 9월 13일 퀘존시티에 있는 릴라 필리피나 사무실에서 구술채록이 시작되었다.

9시에 맞춰 사무실에 도착하니, 까무잡잡하고 키가 작지만 당당한 포스를 가진 여성이 우리를 맞이했다. 풍채만으로도 오랜 활동의 내공이 돋보였다. 원색계열의 옷 색깔이나 팔찌 등 장신구가 원주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23> 이야기를 나누는 루시아와 양미강(프로젝트 책임자), 샤론(릴라 필리피나 코디네이터)

만나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워낙 많은 활동을 해온 사람이라 빙빙 돌리지 않고 인터뷰질 문지에 따라 필요한 요점을 바로 이야기한다. 러시아는 자기소개를 하고, 왜 이 활동을 시작했는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현재 일본 정부의 태도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역사의 진실을 덮는다고 소신 있게 말한다. 러시아의 소신이 없었다면 이 활동을 지역에서 유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의 삶과 초기 지역활동 이야기로 구술을 이어갔다. 너무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왜 이렇게 가난한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빈민운동을 시작했다는 러시아는 92년 벨리아 산초와 함께 일본군‘위안부’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로사 헨슨의 첫 증언 이후 피해자들의 증언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한 이야기를 절절하게 이어갔다. 특히 일로일로 지역과 로하스 지역에 피해자들이 많이 분포했기 때문에 초기 증언을 수집하기 위해 활동가와 역사연구자 등이 한팀이 되어 서너번의 방문을 통해 피해 사실을 수집한 이야기며, 지방어에서 영어로 증언을 정리하는 지난한 과정을 회상하며 이야기했다. 초기 증언채록 작업은 1994부터 1997년까지 약 3년간 정부의 지원 없이 NGO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후 예산상의 문제로 더 지속할 수 없었다고 한다. 현재 필리핀 피해자 숫자를 공식적으로 174명으로 정리한 것은 초기 증언에 기반 되어있다고 한다.

러시아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자료를 꺼냈다. 로하스 지역에서 위안소로 사용되었던 건물 사진과 그 위안소에 있었던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위안소와 피해자가 이렇게 연결 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꽤 귀한 자료였다. 문제는 필리핀 정부의 무관심으로 위안소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고 개발 논리에 의해 철거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지가 가장 큰 문제였다. 구술채록에 함께 참석한 릴라 필리피나 샤론 대표는 자료수집과 보관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디지털 작업을 시도하려 하지만 예산 등 역부족이다. 필리핀 활동가들은 위안소 건물을 잘 보존하면 좋겠으나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위안소 건물을 헐어버리거나 위안소 건물에서 상업적 행위 등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생존자의 고령화만큼 활동가의 고령화로 눈앞에 있다. 다음 세대가 이어서 이 운동을 지속하는 일은 가능한 것일까? 필리핀 사회의 전반적 무관심 속에서 청년세대들의 역사 인식을 확장하도록 돕는 일, 활동이 가능한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나마 더 들려주려고 돕는 일, 재정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는 일 등 활동가들 앞에 놓인 과제는 너무 많다. 그렇지만 생존자들과 함께 있기에 역사의 진실을 찾는 끈을 놓을 수 없다. 샤론과 러시아와 같은 활동가들이 있기에 역사는 더디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2) 활동가 구술 요약

루시아는 파나이와 귀마라스 지역 가브리엘라의 지부장이다. 그녀는 1987년 가브리엘라에 가입하여 여성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힘써 왔으며 자연스럽게 릴라 필리피나 활동에 함께하고 있다.

그녀는 경제, 농업,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권리 증진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특히 여성의 권리 증진을 바탕으로 그들이 경제적인 자립성을 갖도록 하고 시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우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루시아 활동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를 검증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넬리아 산초의 주도로 단체 구성원들과 함께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의 증언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했다.

루시아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많은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역사적 자료가 사용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과 더불어 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가족과 미래세대 청년 그리고 리더들이 함께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을 주장한다.

3) 활동가 구술 전문

증언자 | Lucia Francisco, Sharon Cabusao
증언일 | 2022.09.13
증언장소 | 릴라 필리피나 사무실(메트로 마닐라 퀘존시티)
참석자 | [한국] 양미강, 조부영 [필리핀] 샤론 카부사오

활동하게 된 배경과 과정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제 이름은 루시아 프란시스코(Lucia Francisco)이고 대표입니다. 저는 파나이와 귀마라스(Panay and Guimaras)의 가브리엘라(Gabriela)³⁸⁾ 지부장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카피즈(Capiz)와 로하스(Roxas) 그리고 일로일로(Iloilo)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파나이에 있는 릴라 필리피나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사진24> 질문에 답하는 루시아

38) 필리핀 개혁, 청렴, 평등, 리더십을 위한 집단 활동을 하는 여성 단체이며 릴라 필리피나 초기 활동을 이끌며 지원하였다.

저는 어떻게 릴라 필리피나가 파나이에서 시작되었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파나이는 일로일로에 있고 카피즈는 로하스에 있습니다. 그곳들은 우리가 롤라라고 부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릴라 필리피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넬리아 산초(Nelia Sancho)가 이끌었고 자랑스러워했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 TF팀은 199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으로부터 강간과 성노예 피해 입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이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고 나오도록 요청하기 위해 미디어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나이에서 일로일로와 카피즈를 조사하였고, 그 이후 일로일로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에 대해 1992년에 듣게 되었습니다. 넬리아 산초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TF팀을 만든다는 뉴스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피해 입은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위한 위원회, 즉 TF팀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TF팀을 통해서, 넬리아 산초는 우리를 파나이에 있는 가브리엘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가브리엘라 구성원들이 카피즈처럼 다른 지역들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며 일본군‘위안부’ 이슈를 가브리엘라에서 폭넓게 다루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에게 가브리엘라 사무실로 가라고 알렸습니다. 우리는 파나이에 있는 구성원들로 TF팀을 구성했으며 넬리아 산초와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피해생존자임을 밝히려 온 이들의 증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들을 인터뷰하고 다른 책과 기록들을 확인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마 부끄러웠기 때문에 자신을 밝히려 나오는 피해자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은 전체 가족이 수치를 당할 거로 생각해 주저하고 고민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리아 로사 헨슨(Maria Rosa Henson)이 국가적 차원에서 공개되고 드러나는 것을 보았을 때 다른 여성들과 함께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슈를 다룰 필리핀 일본군‘위안부’팀이 있을 때까지 TF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그저 그들 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들의 가족에게도 드러내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들을 기록하고 문서화 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기록이 되길 바라며 증언을 기록하고 번역했습니다. 넬리아 산초와 TF팀은 우리에게 확인작업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미 피해생존자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돕고 지원하기를 원하는 몇 개의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하여 문서화 했고 그 후 1994년 우리가 만나게 된 TF팀을 통해 몇 개를 더 작업했습니다. 그렇게 릴라 필리피나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렇게 TF팀을 대신해,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가 대부분 소속되어있는 기관으로서 릴라 필리피나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롤라를

위한 그들만의 조직이었습니다.

그에 앞서 1992년에, 문서화 작업 후에 우리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대표 고소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로사리오 노세토(Rosario Noceto) 입니다. 그때 다른 장소에서 온 16명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이들이 16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에 갔습니다. 16명의 피해생존자는 마닐라(Manila), 카피즈, 그리고 일로일로 등 각자 다른 지역에서 와서 모였습니다. 로사리오 노세토는 일로일로에서 왔습니다. 이들은 항의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소송 서류를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본 항구에서 일본이 필리핀과 다른 국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한 잘못을 인정하는 공개 사죄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몇 년 후, 법원에서는 개인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이미 국제조약에 의해 다루어졌다는 이유로 5년 후에 그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역사 측, 그들의 기록을 보면 일본 정부는 이미 필리핀과 같은 다른 국가들에 전쟁의 피해에 대해 보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더는 우리를 응대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소송한 사건은 1942년부터 1945년에 일어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1952년에 그들이 전쟁 동안 필리핀 정부에서 파괴한 것들에 대해 모든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마지막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은 잘 되지 못하였고 기각되었습니다.

아시아 여성기금과 관련된 필리핀 사회 분위기

보상을 위한 마지막 요청은 언제였나요?

정부가 정부에게 준 것이지 정부가 개인에게 준 보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쟁이 일어난 후 20년 이내, 적어도 20년 후에는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근거입니다. 피해생존자로부터 제기된 항의와 고소가 기각된 이유입니다. 우리 구성원 중 한 명인 로사리오를 포함해서요. 릴라 필리피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지원하는 몇 개의 단체를 통해서요. 이 투쟁에서 연속적으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모든 소송이 다 묵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더는 응해주지 않았고 아시아 여성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재단은 일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에 한 일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설립한 단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보상해주기 위한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본 정부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고 기부금만 모인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적인 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피해생존자들, 즉 우리 롤라들은 그 기금을 받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넬리아 산초가 필라 필리피나의 의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녀(Nelia)와 다른 피해자분들의 요구 중 한 가지는 먼저 일본 정부가 그들이 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기금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을 주기를 요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실제 일어난 것을 역사 기록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그들의 요구 중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필리핀과 한국 여성들이었고 아마 우리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 부르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시아 여성기금 지급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피해생존자 중 대부분은 가난하고, 질병을 앓고 있었고,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넬리아 산초는 피해생존자들의 요구는 일본인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시아 여성기금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재판이 계속해서 잘되지 않자, 우리는 일본 정부에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구하는 움직임은 계속됐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록이 있었고 100명 정도의 피해생존자가 더 밝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쟁 중 제국주의 군대에 제공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위안소를 설치했고, 그래서 일본군은 위안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일로일로에는 몇 개의 위안소들이 현재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예전의 흔적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지역 박물관이거나 학교였으나 현재는 아닌 곳이 많습니다.

피해자 중 아시아 여성기금을 원한다면 신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여성기금을 수령하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보상은 일본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며 기금 수령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금 수령 여부는 피해자 본인들에게 달려있었습니다. 이걸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롤라 중 대부분은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서 그들은 기금을 수령했습니다. 우리는 그 돈이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아시아 여성기금과 일본 정부를 통해 받은 기금을 통해 계속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롤라 중 몇 명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생존하고 있고,

그들은 지속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고 정의를 찾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다른 국가들의 방송사가 우리에게 방문하여 인터뷰했습니다. 아마도 영상이나 다큐멘터리였을 겁니다. 우리는 또한 피해생존자의 구술을 나누면서 제2차 세계전쟁 동안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로일로로의 모든 롤라는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카피스에는 여전히 2명의 피해생존자가 있습니다. 당신이 카피스주에 가게 되면 인터뷰하기로 예정된 분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계속 운동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2007년에 몇몇 피해자가 돌아가셔서 유가족 모임인 파마나를 설립했고, 그 가족들은 여전히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롤라들이 돌아가시더라도 전국 조직 뿐 아니라 피해생존자의 친척과 가족들을 포함하고, 그들의 아이들이 대대손손 정의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요구, 특히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전쟁 종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속적인 전략 일부입니다.

60년보다 더 길게는 거의 7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전쟁 반대운동에 참여하는 롤라들을 볼 수 있고 곧 9월 17일에 있을(로사 헨슨 증언 30주년) 대규모 행동도 있습니다. 새로운 컨퍼런스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지속해온 이유이며 계속 분투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계속 정의를 요구합니다.

전국 단위의 조직(필라 필리피나는 전국조직이다)이 움직일 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이 있거나 피해생존자가 포함된 지역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와 그 가족들 또는 피해생존자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유가족들에게 함께 이 활동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지역 상황에 맞춰 적용할 수 있는 활동들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며, 롤라를 위한 정의를 외칩니다. 그리고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한 분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를 향한 정의 실현 요구를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운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요구 중 하나는 롤라를 지지하는 다음 세대, 즉 가족을 포함한 청년층에게 다시 일본군‘위안부’ 피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가 사람들을 일깨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포함하여 가족들과 친구들까지 함께 조직을 만들어 투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말 많은 롤라가 있어서 지난 시련들을 극복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롤라들이 공개증언을 할 때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거나 제외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롤라 하우스를 만들어 롤라들이 편히 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로일로에서 했던 것처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롤라들이 올 수 있는 주거지가 있고 우리는 교육하고 캠페인을 갖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롤라이자 엄마를 더 사랑하고 지지하도록 교육합니다. 그들이 공동체에서 마주할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투쟁을 이해시킬 때, 그들은 그들의 시련을 극복합니다. 우리는 그 노력에 감사해야 하며 그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일어난 일에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에 대해 인식을 높이도록 지속하며 우리의 움직임에 함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 연결고리를 잇고 평화 네트워크를 만들어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 평화가 울려 퍼지도록 캠페인을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역사 속에서 롤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존중하며 그들이 굴욕당하지 않고 정의를 이루고 지지받도록 인식해야 합니다.

여성 노동운동으로 시작한 활동

왜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저는 1987년 2월에 가브리엘라에 조직위원으로 합류해서 현재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도시 빈민 여성 중 여성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일을 했습니다. 배고픔과 가난의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고 경험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조정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해왔는데, 특히 낮은 임금과 해고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각하면 임금에서 공제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성 노동자를 조직했고, 여성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인 노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 후 캠페인 및 옹호 활동을 담당하는 관리자가 되어,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는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뒤에 숨겨진 스토리가 있어 정말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특정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기름값이 1월부터 현재까지 오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현재까지 13배 정도가 오르면서 리터당 39페소(약 900원)로 올랐습니다. 만약 남편이 운전기사라고 상상해본다면, 그가 공공 지프니를 사용하고 하루에 22리터 정도 사용하는 아주 비싼 디젤을 사용한다고 상상해봅시다. 그러면 39페소(약 900원)가 추가적인 리터마다 더 붙게 됩니다. 수입에 비교해서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이슈도요 그리고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것에 집중하여 캠페인을 했습니다. 롤라의 이슈는 다른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가상승에 영향을 받고, 자녀들의 낮은 임금, 그들의 손녀 손자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부장일 때부터 현재까지 조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라는 우리의 연합체입니다. 우리는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성 노동자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아동들도 있습니다.

지역조정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일반적인 행동 프로그램에서(General Program of Action) 이슈들에 대해 논의했는지 확실하게 확인합니다. 그 이슈들은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 교육하는 것, 그리고 리더를 양성하는 것과 특히 우리가 책임을 주고 맡길 수 있는 청년들을 키우는 그 모든 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들을 키웠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훈련 시켜서 그 투쟁이 계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현재 필리핀 상황을 보면, 인플레이션 비율이 6.1%입니다. 임금은 아주 낮아 음식을 충분히 제공할 수도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이 언제까지 교육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이슈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사람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른 단체들과 함께 토론하고 캠페인을 하고 연결을 만들고 네트워킹을 합니다.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 프로그램도 참여합니다. 최근에는 새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다녀온 여성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해 계속되는 캠페인과 롤라들의 이슈들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식과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을 지속하며 다른 청년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하며, 다음 세대에 이런 이슈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가브리엘라는 그들을 지원하고 함께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성공적인 이벤트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여성단체만 아니라 국가와도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이슈이자 사람들의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체들, 학계, 노조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소통합니다. 그게 지역 의장으로서 제 역할 중 하나였습니다. 동시에, 일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부문의 활동을 다룹니다. 이건 중복되지는 않지만 그들의 분야에서 초점을 맞춘 다양한 이슈들을 보완할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노동자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농부들은 농부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젊은 층은 젊은 층에 초점을 맞추고, 도시 빈민과 침체 지역 사람들은 지역에, 롤라들과 아동들 모두 각각 분야별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보완하며 캠페인

들을 함께 합니다.

그곳에 사람들의 강력한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롤라의 운동을 포함한 여성 운동이 이 투쟁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현재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사랑이 없는 것, 높은 실업률, 높은 물가 그리고 대다수 소외된 사람들의 기본적 필요에 응하지 않는 정부의 시스템, 특별히 가난한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숙고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러한 근본적인 이슈들로부터 신중히 고민하는 것은 긴 투쟁이 될 것입니다.

가브리엘라의 이런 활동들을 알고 있었고, 일본군'위안부' 여성 이슈가 부각될 때 그들의 움직임과 활동의 방향이 같았나요?

릴라 필리피나는 가브리엘라 동맹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지난 8월에 우리가 회의를 하고, 의원들을 선출하고 앞으로 3년간의 방향성을 고려하며 일반 행동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현장을 공유하고 있는 농촌 지역과 롤라와 같은 다른 분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과 투쟁 그리고 서로를 보완하는 캠페인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치 분야에서는 우리가 여성의 대표로서 가브리엘라 정당을 갖게된 후부터 우리의 필요성은 입법을 통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정되어야 하는 법이나 의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캠페인들에 대해 요구하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걸 여성, 어린이, 롤라 그리고 청년들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의회의 관심과 일치하는 주제의 법들을 원하는 단체는 의회로부터 지지를 받았습시다. 그래서 하원의원에 대표를 두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우리는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서로 다른 분야의 이익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법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원에 있는 우리 대표는 결의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와 합의하여 그것이 승인된다면 상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성, 어린이, 롤라 그리고 청소년을 보호할 법으로 승인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선거기간 동안 가브리엘라 정당이었습니다.

여성 이슈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1987년에 함께 하게 됐다고 언급하셨는데, 왜 함께하게 되셨나요?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학대와 폭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여성 대부분은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의 권리를 깨우쳐 줄 누군가가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함께 있다면, 그들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할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은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1986년에 1년 동안 봉사자로서 활동했고, 공동체를 관찰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거의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벌레에 의해 불빛이 닳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교육을 위한 권리와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태풍, 홍수의 자연재해가 있을 때 그들은 위험에 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1년 동안 자원봉사를 했고 그 이후에 저는 정규직을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활동하고 있는 NGO의 여성 노동조직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높은 제 월급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를 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 다른 여성들에게 자원봉사자로 함께 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목적에 맞는 중요한 시간을 찾는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지금은 많습니다. 조직에는 계속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충분한 돈이 없으며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한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과 몰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문제를 공부하고 더 살살이 파고듭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걸 정말 가치 있습니다. 이걸 정말 가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청년 여성들을 독려하거나 그들의 단체에서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잘 설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다른 여성에게 그들의 능력과 기술을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 단체에는 활동가들이 있고 그들 각각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가정이 있어서 전체 시간을 다 쓸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정이 있어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자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알려줍니다.

여성들이 그들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정부에게 요구하길 원합니다. 권리란 무엇일까요? 만약 그들의 그걸 모르면,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개혁입니다. 정부를 향해 협상하기 위해 분투하고 개혁안들을 제안하고 그들이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너무 공격적인 법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국가에 쌀 인증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부는 필리핀과 같은 농업 국가인 다른 국가로부터 쌀을 수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만 명의 필리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농부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그들은 생산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상품을 수확합니다. 판매 가격이 아주 낮아 그들이 판매한 값으로 생산 비용을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버리고 지주들은 땅을 사서 그것을 세분화하거나 환금 작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량 안보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작농과 농부들을 그들이 권리를 알고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받도록 조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것과 같은 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단지 일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들은 임금이 낮은 것, 혜택이 없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자연에 안정성이 없는 것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을 위한 추가적인 보상과 안전을 위한 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법과 투쟁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교육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투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은 그들이 해야 할 것들을 위해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뭔가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를 위해 일어서서 싸울 힘을 주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알고 정부에 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사람들의 이익과 관심을 듣고 추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의 권리가기 때문입니다. 개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주하고 생계를 제공하고 다른 혜택들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대출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들을 쫓아냈고, 우리는 그것을 개발 침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정부는 농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필리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일부입니다.

롤라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미 나이가 드셨지만 살아계시고 함께 하는 롤라들이 있습니다. 롤라의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제공하며 여전히 힘있게 활동하는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프지 않다면 활동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롤라들이 더 거리에 나올 힘이 없다면 그들에게 직접 방문하여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계속해서 롤라를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많은 롤라들이 나이가 들고, 질병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롤라가 살아계시지 않거나, 우리가 찾아갈 수 없을 때 가족이 함께하여, 그들의 자녀나 손자 손녀들이 그들의 가족을 대표하는 것에 감사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들이 지속해서 지원해주고 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가족들이 와서 약을 주는 식으로 돕고 있지만 충분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원자를 찾습니다, 제공할 수 있는 사람요. 적어도 가족들의 필요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원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원봉사자로, 가브리엘라 멤버로서, 단체의 리더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의 집단적 투쟁입니다. 이건 우리가 서로를 치료하고 돕기 위한 집단적인 노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찾습니다. 그녀(벨리아)는 결국 몇몇

친구에게 지원을 계속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약속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족들과 여전히 살아계신 롤라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녀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성노예로 끌려가 학대받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알 필요가 있고 우리는 롤라에게 잔인하게 일어난 학대의 일이 젊은 세대에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려는 노력은 청년들이 역사를 인식하고 알게 하려는 거예요.

마닐라에 소녀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산층에는 우리의 투쟁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몇은 심지어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은 기록도 하고 인터뷰 조사도 하며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정보가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사실인 자료들을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학회들은 실제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저는 포럼에 있던 한 논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식지 제목이 포럼입니다. 역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담은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인터뷰는 릴라 필리피나 사무소에서 있어서 공유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롤라 중 몇몇은 오지 못하지만 그들이 마물수 있는 롤라 하우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들의 고통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걸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의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 역사 속에 있었던 오래된 그들의 고난들을 포함합니다.

초기 운동에서 증언활동과 피해자 발굴작업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과정이 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중 가장 어려운 상황이나 고난의 상황을 나눠 주실 수 있나요?

이 과정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당연히, 재정적인 자원의 한계입니다. 현재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우리 교통수단에 수백 달러를 사용했지만, 현재 기름값이 두 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두 배 이상 소비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전체 활동 중에서는요?

롤라가 공개 증언하기 시작했을 때, 당연히 우리는 기록 과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에게 보상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검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로부터 정보를 모으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모았습니다. 인터뷰를 하며 겪는 어려움은 그들이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

리는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방 언어를 사용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 명이 문서 작업을 하면 우리는 번역을 합니다. 한 명에서 두 명을 인터뷰하는데 하루가 전체 쓰입니다. 먼 지역에서 온 분이면 우리는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 위한 예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문서화의 앞뒤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진짜 피해생존자가 아니지만, 보상에 대한 관심으로 온 사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사람들을 검증했습니다. 그들에게 처음부터 당신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추적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가 이야기한 정보를 비밀리에 조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목록들을 만들고 검증된 사람들은 하나의 목록으로 작성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동안 일본 제국 군대에 의해 강간과 다른 형태의 학대 성노예 생활을 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입니다. 특히 아시아 여성 재단이 생겨났을 때 많은 이들이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검증된 사람들은 문서에 있습니다.

릴라 필리피나를 통해 벨리아 산초 그룹은 보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터뷰 한 사람 중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피해 봤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었고 조사와 문서를 통해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당신은 거짓말 중이에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요. 그래서 앞선 시기에 존재한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그게 우리가 마주했던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번역하고 작성하는 것이 어려워서 릴라 필리피나 사무소로 옮겨서 롤라가 있는 곳으로 가고 상황을 확인하고,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피해를 입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또한, 제한된 자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했지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롤라들의 진짜 목록과 문서 그리고 국가적 기록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 군대의 한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안소가 일본 정부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공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안소를 마련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시스템이 있었음을요. 그리고 그들은 문서가 있어서 위안소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성원 중 몇 명은 그와 인터뷰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 작업에서 일로일로 지방의 롤라들을 검증하고 찾기 위해, 릴라 필리피나와 결합된 거군요. 당신도 과거에 함께 일했던 사람인가요?

우리는 넬리아 산초와 일로일로에 왔습니다. 넬리아 산초는 전체적으로 그 사건들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그 지역에서 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롤라가 있는 곳을 가고 그들과 이야기하며 그들의 고난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넬리아 산초와 영어로 번역하여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조사하고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역사 기록을 했던 일로일로에 있는 역사학사들과도 만나 확인도 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장소들이 맞는 정보인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언급했던 장소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많은 롤라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상 때문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로 증언했지만, 우리는 누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업을 1992년부터 1995년까지 했습니다.

1994년 릴라 필리피나가 설립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아직 지원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넬리아 산초와 다른 피해생존자들은 TF팀을 만들었습니다. TF팀은 전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피해당한 여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일로일로에서 이 일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뷰팀은 하나의 문서를 만들 때, 우리의 언어로 녹음을 하고, 문서로 작성했습니다. 이게 번역과 문서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습니다. 현지에서 어떻게 채록하는지 확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문서화팀에게는 복사본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녀가 말한 증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업물을 나누고 앉아서 우리의 자료를 통합했습니다. 넬리아 산초는 마닐라에서 일로일로로 왔습니다. 우리는 깊게 논의한 후 문서 작업을 지속했습니다. 우리는 3년 동안 이 작업을 했습니다.

필리핀 지원단체 현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지지하는 다른 단체들도 있나요?

1992년에, 우리는 넬리아 산초 주도로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 TF팀을 만들었습니다. 1994년에는 TF팀이 아닌 릴라 필리피나가 설립되었습니다. 전국적인 단체로서 설립되었고 TF팀도 흡수되었습니다.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릴라 필리피나를 공식적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 단체로 설립했습니다, 모든 롤라가 함께요. 그래서 넬리아 산초는 대표였고, 리치 엑스트라마둘라(Richie Extramadula)가 코디네이터를 담당했습니다.

릴라 필리피나가 설립되었을 때, 가브리엘라가 그 그룹을 만든 단체인가요?

그 TF팀 과정은 가브리엘라, Committee of Women, Violence against Women으로부터 구성되었습니다. 이 TF팀은 7개의 다른 단체로부터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가브리엘라입니다. TF팀을 이끄는 단체는 가브리엘라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릴라 필리피나가 만들어졌나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가 증언하기 위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인 자신들이 스스로 주도를 하며 이끌어야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국제 정의 운동 국민을 초점으로 해서, 주요 조직으로 릴라 필리피나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TF팀은 해체되었습니다. 그렇게 넬리아 산초가 대표로 전환된 과정입니다.

릴라 필리피나가 구성되었을 때 그리고 TF팀을 인수했을 때, 릴라 필리피나가 가브리엘라의 한 일원이 된 거죠. 그리고 또한 넬리아 산초도 릴라 필리피나의 대표가 되었다는 이야기고요.

1992년 7월 13일에 필리핀 아시안 여성 인권위원회는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 TF팀을 소집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TF팀의 구성은 문서에 의해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공유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가 16명이었다는 정보를 말했는데, 열여섯이 아니라 열여덟입니다. 거기엔 18명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책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TF팀 구성은 BAYAN women’s Desk, GABRIELA Commissions on international Relations, Violence Against Women, Women’s Human Rights, Kanlungan Center, Batis Center for Women, Women’s legal and Human Rights Bureau,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the Philippines(NCCP women’s Desk)입니다. 이 팀들이 TF팀의 구성입니다. 후에는 이 TF팀은 릴라 필리피나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994년이 되었을 때, 릴라 필리피나는 일본군‘위안부’ 이슈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리더였던 넬리아 산초가 문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릴라 필리피나는 독립된 공식적 단체인가, 릴라 필리피나는 공식적으로 독립된 단체에 등록된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이 해왔던 활동들로 기관을 설립했기 때문에 기관을 독립적으로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있던 멤버들과 넬리아 산초가 대표직을 맡았습니다. 이 단체는 이미 몰라 이슈에 집중하도록 독립된 단체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력단체인 가브리엘라와 함께 몰라의 투쟁과 요구에 동참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였습니다.

넬리아 산초 이후 리치가 2대 대표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건(인터뷰 현장 공유 자료) 연대를 수행하는 학생 중 한 명의 인터뷰였고 그들의 소식지인 포럼에 공개되었습니다. 몇몇 우리가 놓친 문서들이 있는데, 이 자료에서(인터뷰 현장 공유 자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들과 날 짜들 그리고 TF팀이 설립된 당시 함께했던 기관들까지 연대기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서를 보면 그들의 이름이 거기 있습니다. 리더였던 롤라 마리아 로사 헨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일로일로에 소속된 롤라입니다. 거기엔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로사리오 베토도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일본 법정에 출두하여 그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말라야 롤라스(Malaya Lolas)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말라야 롤라스는 199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체에 롤라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2000년에는 롤라스 캄파니에라(Lolas Kampaneras)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말라야 롤라스에는 롤라가 두 명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였고 그 당시 하루 동안 억류되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일본군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였고 두 명 외에도 많은 이들이 강간당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성노예로 조직되고 시스템화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입니다. 사실 실제로 생존피해자 중 많은 이들은 아시아 여성기금으로부터 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원단체 간 기금 수령 여부를 가지고 나눠졌습니다. 당시에 로사 헨슨과 같은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증언자였고 기금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나이가 들었고 그녀의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죽었습니다. 이미 건강이 안 좋아지자, 기금을 수령 했다는 것을 언론에 알렸습니다.

넬리아 산초는 다른 세 명의 롤라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금을 수령 하고자 했는데, 그 기금이 일본 시민들 모금과 일본 정부의 기금이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일본 시민의 기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수령하고 싶다는 롤라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개인적으로 일본 시민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또 원칙에 위배 된다는 비판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기금을 받고 싶은 롤라도 있었고 아직은 그렇지 않은 롤라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릴라 필리피나가 결정한 것은 받고 싶은 롤라가 있다면 무엇이든 도와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이후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라야 롤라스에서 활동하다가 다시 릴라 필리피나로 돌아온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릴라 필리피나의 롤라가 아시아 여성기금에서 수령 할 때, 릴라 필

리피나 상황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피해생존자들은 나이가 드셨고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여성기금의 수령 여부를 둘러싸고 우리 단체들이 나뉘었습니다.

사실 한국도 아시아 여성기금 같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기금을 보는 관점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일본 시민들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 혹은 여전히 우리는 이것 받아들일 수 없어.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서 온 것에 아니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 이 아시아 여성기금을 받지 않았어요. 일본 정부에서 온 배상금의 형식이 아니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건 정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이 기금을 바라보고 정의를 할 것인가는요. 아마 여기도 같은 문제 같아요. 릴라 필리피나가 공식적으로 일본군'위안부' 운동을 이끌면서 아시아 여성기금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필리핀 내 지원단체 간 갈등이 생기게 되었으니까요.

롤라 코르베노(Corbehno)는 로하스에서 왔어요. 그녀는 국가적으로 로사 헨슨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들의 캠페인이 시작되었어요. 그 후에 넬리아 산초가 더는 가브리엘라에서 활동하지 않았을 때, 그녀는 그곳에 기반을 두고 있었어요, 아클란(Aklan)이에요. 그곳은 일로일로에서 2시간 떨어진 곳이에요.

롤라스 캠페니에라는 나중에 만들어졌고 로하스와 카피즈 지역을 위해 특별히 설립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넬리아 산초가 이끌었고요. 더는 전국 차원이거나 지역 차원에서가 아니라고요. 2000년쯤이었고요. 그렇다면 롤라스 캠페니에라가 릴라 필리피나의 다른 하나의 단체로 로하스에 있는 롤라에게 집중한 것이라고 보아도 될까요?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어요. 이걸 로하스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넬리아 산초는 더는 릴라 필리피나와 활동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1994년에, 릴라 필리피나가 설립되었을 때, 로하스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확장된 건가요?

일로일로만요.

하지만, 만약 롤라스 캠페니에라가 나중에 만들어졌다면, 릴라 필리피나와 롤라스 캠페니에라가 함께 일하고 있는건가요? 또는 릴라 필리피나가 주도권을 준건가요?

맞아요. 넬리아 산초는 로하스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릴라 필리피나는 전국적이었고 국가적이었어요. 넬리아 산초가 릴라 필리피나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리되었어요. 그래서 넬리아 산초는 롤라스 캠페니에라와 함께 그 도시 안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 지역에서 다른 롤라들에게 나오도록 요청했어요. 이걸 넬리아 산초의 주도였어요. 그러다 2020년에 롤라스 캠페니에라는 릴라 필리피나와 합쳤어요.

넬리아 산초가 20년을 이끌 동안 롤라스 캄파니에라는 로하스와 일로일로에서 일했나요?

로하스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2020년에 릴라 필리피나와 결합된 거죠?

그들은 롤라스 캄파니에라가 설립되기 전에 릴라 필리피나와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릴라 필리피나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넬리아 산초가 이 지역에 집중하면서 롤라 코르베노는 고향인 아클란으로 돌아갔고 카피즈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장소에 있는 롤라 코라(Cora)에게 롤라스 캄파니에라를 발표하도록 요청하고 결성했어요. 이게 그녀의 주도였어요. 넬리아 산초는 더는 릴라 필리피나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이제 살아있지 않아요. 롤라스 캄파니에라는 그녀가 만든거예요. 넬리아가 더는 이 여성들과 함께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지속적인 투쟁을 도울 조직이 필요해 릴라 필리피나로 돌아갔어요.

전체적으로 필리핀 전국에서 확인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수는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릴라 필리피나는 그동안 필리핀 전체에서 174명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확실하게 하고 싶은데요, 문서에 기반해서, 아시아 여성기금 조사를 위한 필리핀 정부 인터뷰에는 89명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있습니다. 릴라 필리피나로부터 공식적으로 우리가 확인한 건 174명이구요. 하지만, 넬리아 산초가 편집한 『Justice with Healing』에는 100명 이상의 목록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어도 174명입니다. 우리는 아시아 여성기금과 필리핀 정부가 가진 목록을 모릅니다. 왜냐면 릴라 필리피나와 TF팀과 같은 비정부 단체들은 정부 발표 및 분배에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필리핀 법무부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목록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이게 기관들에게 공유되지 않았다는 거구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같은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구요.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릴라 필리피나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174명이네요. 하지만, 우리는 그 숫자가 진짜인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부 목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그들이 이걸 통제하고 있지만, 릴라 필리피나는 검증 과정을 거친 문서들을 갖고 있습니다. 비정부 단체는 그 리스트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릴라 필리피나도 문서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이러한 종류의 정보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문서가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도 174명의 검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있다는 공식적인 문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 문서는 일로일로에서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벨리아 산초 대표가 한 것처럼 전체 문서를 통합하기 위해 문서를 릴라 필리피나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체 문서를 모았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포함하여 우리가 이해가능한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데이터입니다. 다른 지역들에 존재하는 롤라들도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벨리아 산초의 노력이 들어간 문서를 출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책이 가장 통합된 자료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롤라들 이름들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스템으로는 인터뷰 후에 자료를 올리고 롤라가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릴라 필리피나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로일로에 문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있던 자료들과 사진들이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책으로 출판되었고 문서들이 통합된 결과물입니다. 이건 또한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국가를 대상으로한 소송 원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소송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개의 다른 사건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검증이라고 하셔서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리스트가 검증된 과정을 기반으로 되어있을 텐데요. 그래서 만약 사람들이 자신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라고 말하면 어떻게 검증했나요? 그 과정을 만드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우리는 그들을 인터뷰합니다. 우리는 개인정보와 가족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가 겪은 어려움을 듣습니다. 왜 그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되었는지요.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그걸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우리에게 말했던 것을 가지고 우리 시스템대로 합니다. 벨리아 산초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경제적인 보상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 이야기를 만든 것은 아닌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롤라가 언급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합니다. 장소들도 우리가 직접 가봅니다. 검증된 롤라에게 기록들에 대해 알고 있는지 비밀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친척과 친구들 등 지인들에게 물어보며 확인하고 실제로 그녀가 언급한 곳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가 이야기하고 설명한 것을 우리 연구 자료에 통합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게 정말 사실인지 판단하고 검증합니다.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옳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공유한 것들이 사실인지 진실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TF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의문이 생기면, 그녀가 우리에게 나눈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얻기 위해 계속 확인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했던 조사나 다른 사람들의

검증을 통해, 만약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 중 한 명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편집하고 TF팀과 토론합니다. 우리는 일을 나누고, 조사한 것을 검증된 롤라와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 분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롤라를 다시 불러 인터뷰를 다시 합니다. 그들은 이미 나이가 들었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몇 가지 잊은 것들이 있습니다. 몇 분은 이름과 장소를 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인터뷰하다 보면 정말 진실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데이터를 완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한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검증 시 롤라 한 분과 얼마나 많은 인터뷰를 하나요?

2~3번 정도의 인터뷰를 합니다. 마지막 인터뷰가 최종입니다. 왜냐면 첫 번째로 인터뷰를 하고, 확인작업을 하고, 우리는 다시 자료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오라고 요청해서 몇 번의 인터뷰를 더 합니다. 우리는 롤라에게 우리가 이미 인터뷰를 했지만 몇 가지 놓친 것들을 있어 인터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전 인터뷰를 통해 배경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있다면 인터뷰에서 최대 2~3가지를 알아 냅니다. 왜냐면 그들이 다시 오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터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 팀에 있나요?

롤라 한 명 당 질문자 한 명이에요. ‘제가 이 롤라에 배정되었어요’라는 식으로요. 제가 인터뷰를 하면, 전 쓰는 걸 담당하고 기록과 문서화는 또 다른 사람이 합니다. 글을 쓰고 자료를 받는 사람은 한 명씩입니다.

롤라 한 명 당 한 분이군요. 여기 문서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가져오면 ...

이건 이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네 명이 있고 가끔 벨리아 산초의 동료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4명 정도가 있고 많을 때는 최대 6명입니다. 우리는 모든 롤라의 인터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를 토론합니다. 우리는 같이 토론하고 모든 롤라의 인터뷰 자료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하거나 의심할만한 것들이 있다면, 가브리엘라를 통해 정보를 요구하거나 그녀가 공유해 준 그녀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그녀가 온 장소로부터 다시 확인해보았습니다. 왜냐면 롤라 중에는 그들의 시련에 대해 가족에게 나눈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의를 위한 투쟁을 돕고 이끌 수 있는 TF팀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간직하고 있다가 사람들 앞에 나와 밝히도록 격려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말한 자료대로라면, 1992년에서 1994년 사이 대부분 검증 과정이 진행됐는데요. 그 당시 174명을 검증하신 거고요. 그러면 그 이후 더 이상의 검증 과정이나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없었던 건가요?

우리는 문서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우린 포기했어요. 이걸 긴 과정이었어요. 우린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질 못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없었던 거네요.

네, 없었어요. 넬리아 산초가 가브리엘라와 릴라 필리피나와 함께하지 않고 집이 있는 로하스, 카피즈에 갔을 때. 그녀는 다른 롤라들과 전에 함께 릴라 필리피나에 있었던 롤라 코라를 불렀어요. 카피즈에는 여전히 공개되고 밝힐 수 없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넬리아 산초는 카피즈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을 특정하여 캠페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오게 했고 그녀가 감당했어요. 그건 그녀만의 노력이었고 릴라 필리피나 소속이 아니었기에 우리는 접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롤라 코라와 같은 몇몇 롤라들은 그녀와 함께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넬리아 산초가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자 롤라 코라와 다른 롤라들은 릴라 필리피나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때 릴라 필리피나는 활동과 위원회 활동을 지속했어요. 하지만 넬리아 산초는 더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롤라스 캄파니에라에서 그녀만의 활동을 했어요.

이제 넬리아 산초와 리치 엑스트라마들라가 돌아가셔서 두 분 모두 깊은 애도와 슬픔에 있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

당연히 정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있는 크고 지속적인 작업에 초점을 맞추도록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에게 요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고, 모든 출처와 역사적 자료가 미래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가르침들과 전쟁 중 필리핀 사람들에게 가해진 다른 피해에 대한 가르침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말입니다. 학교에서 이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하고 청년들이 이 주제를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건 그런 의미의 순서는 아니지만,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생존자들의 물질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묻힌 곳에 역사적 표식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도록요. 여기에는 이 롤라가 묻히셨고, 여기는…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우리는 작년에 산타 코스타(Santa Coasta)에서 온 역사가와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롤라 중 한 명을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그들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역사적 자료인 위안소가 있는 곳에 피해자 기록이 있다면 마크 표식을 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필리핀 정부는 반대합니다. 필리핀 정부는 일본군이 과거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밝히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표식이 필요하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의안이나 시의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역 정부에서도 겪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일본군'위안부'에 대해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교육하기 원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그들이 알아야 할 평화의 역사를 교육하길 원합니다. 또한, 문화 사무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약속에 넣지 않는 한, 단지 하나의 역사나 문화로만 남기 쉽습니다. 이게 그들이 받아들이기 더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더 많이 보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들은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표시는 아니더라도요.



〈사진25〉 (왼쪽부터) 양미강(프로젝트 책임자), 루시아, 샤론 카부사오(릴라 필리피나 코디네이터)

The vivid voices of survivors, families, and activists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the Philippines

5부

구술채록 후기와 남겨진 과제

1. 구술채록 후기

1) 생존자의 증언을 듣는다는 행위는 고도의 감정이입과 감정노동

생존자 증언을 지면으로 대하는 일도 상당한 감정이입이 있지만, 직접 생존자와 대면하여 그의 목소리와 몸짓과 감정의 변화를 읽어내는 구술채록 과정은 생존자의 온전한 삶과 마주하는 일이었다. 특히 생존자의 집에서 생존자가 현재 처한 환경과 관계망을 살피는 일 역시 구술채록 참여자가 생존자의 삶에 깊게 연관되는 일이기도 하였다.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사는 생존자와 구술과정에 참여하면 면담자도 편안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생존자를 만나면 면담자가 화가 나기도 했다. 왜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하면서 생존자들의 가족과 필리핀 사회가 원망스럽기도 했다. 생존자가 과거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울먹일 때 감정이 상호 이입되어 함께 눈물을 흘리는 감정 노출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공감대는 동시대에 살지만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이며, 한국과 필리핀이라는 국적을 초월한 공감이기도 했다.

2) 포스트 피해자 시대 기억을 계승하는 일

조만간 한국이나 필리핀 모두 피해자 없는 포스트 피해자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시간을 거스를 수 없는 자명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역사적 기억을 이어갈 수 있을지 다시 묻게 된다. 우리 안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조직만 보이거나, 개인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 관성화된 운동의 논리는 없었는지도 성찰하게 된다. 필리핀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국경을 초월하여 어떻게 기억을 계승할 것인지 살펴보게 된다. 해방된 지 70년, 증언이 시작된 지 30년이 넘는 이 시간까지 생존자들이 투쟁을 이어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와 국가의 책임, 그리고 시민의 책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2. 남겨진 과제

1) 필리핀 생존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시급

필리핀은 필리핀 정부의 지원이 전무 한 상황에서 구술한 생존자 네 명 모두 4대, 9명에서 16명까지 함께 살고 있었다. 가족 중 수입원이 있는 경우는 다행스런 일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수입원이 끊긴 경우가 많아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었다. 경제적으로만 판단하기 어렵지만, 생존권이라는 측면에서 필리핀 생존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이 위험 수준이다.

2) 피해자들의 자료수집과 자료복원 시급

돌아가신 피해자 혹은 생존자가 사는 모든 공간이 자료로 인정받고 정리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필리핀 사회에서 생존자의 자료는 수집될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주 제한적인 문서자료만 보관되고 있는 형편이다. 피해자들의 유품과 생존자가 생산하는 각종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3) 필리핀 생존자, 2세대 구술작업의 지속성

이번 구술기록집 제작은 현지 지원단체 릴라 필리피나의 절대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생존자 11명 중 4명만 인터뷰했으나, 다른 생존자의 구술작업도 시급하게 필요하다. 또한, 유가족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파마나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2세대의 구술작업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4)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확산

2022년 8월과 9월에 걸쳐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운동에 있어 상징적인 두 활동가, 넬리아 산초와 리치 엑스트라마둘라가 세상을 떠났다. 이는 생존자의 고령화만이 아니라, 활동가 역시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주었다. 젊은 세대를 이 운동에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어떻게 확산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이다. 운동의 재생산구조를 만들어가는 일이 우리 세

대가 할 일이다.

5) 구술기록집을 기반으로 필리핀 피해자 연구 시작

이번 구술기록집은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 한국에 필리핀 피해자 문제와 생존자의 구술이 본격적으로 소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구술집을 통해 필리핀 생존자와 가족, 활동가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기초자료는 준비되었다. 더 많은 자료를 통해 한국과 필리핀 관계를 연구하고, 그 위에서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